



수시연구

2024-01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 연구

: IP 유동화를 중심으로

Advanced Strategies for Content IP Finance: Focusing on
IP Securitization

홍무궁·오하영·이현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수시연구 2024-01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 연구 : IP 유동화를 중심으로

Advanced Strategies for Content IP Finance: Focusing on IP Securitization

홍무궁·오하영·이현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 책임

홍무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 연구

오하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이현진 김·장법률사무소 수석연구원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 연구 : IP 유동화를 중심으로



연구 개요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노동·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지식재산권(IP) 등의 무형자산이 주목받으며, IP금융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IP금융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혁신기업은 필연적으로 IP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자금조달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IP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전 산업에 걸쳐 IP를 활용한 사업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IP금융 규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6.5%로 IP금융의 성장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음
- 전통적인 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 구조가 IP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원천 IP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콘텐츠기업의 성과에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며, 영세규모인 국내 콘텐츠기업이 보유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IP를 통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임
 - OTT 등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양질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플랫폼 간 IP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 웹소설, 만화,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며 한류를 이끄는 현상은 콘텐츠 IP 활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 높은 무형자산의 비중으로 유형적 담보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금융수단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콘텐츠기업은 콘텐츠 IP금융을 통해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음
 - 국내 금융시장은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나 신용도에 기초한 금융관행이 통용되고 있어, 무형자산 중심의 기업은 사업화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음
 - 콘텐츠산업은 대다수가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세기업일수록 신용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권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움

- 콘텐츠 분야를 비롯해 정부는 IP금융 관련 정책금융제도 제공과 육성 전략을 수립 하였지만, 정책수단과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음
 - 제도적·법적 기반의 미비로 보증과 대출 등 한정된 정책수단의 범위에서만 IP금융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수요에 비해 콘텐츠 IP금융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음

나.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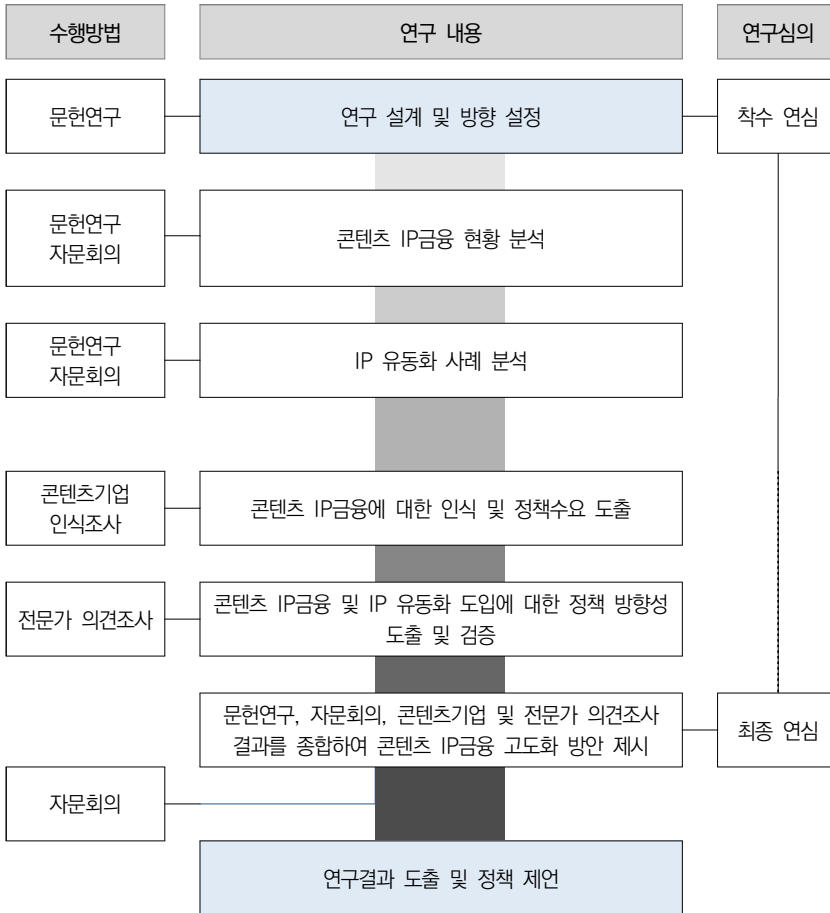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콘텐츠 IP금융의 개념과 유형, 콘텐츠 IP금융 정책 현황 등 콘텐츠 IP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콘텐츠 IP금융 고도화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 콘텐츠 IP금융 고도화의 방안으로서 IP 유동화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를 도출하고자 함
-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등 현황 분석 내용 및 정책 수요 기반 자료를 토대로 IP 유동화 중심의 콘텐츠 IP금융 고도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정부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 대책이 발표되고, 콘텐츠 IP금융제도의 수립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공간적 범위는 국내 IP금융 시장으로 한정하되,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할 경우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자 함
- (내용적 범위) 콘텐츠 IP금융의 개념과 유형, 콘텐츠 IP금융 정책 등 콘텐츠 IP금융의 현황 분석을 진행하며, 콘텐츠 IP 유동화의 개념, 특징, 주요 사례를 통해 콘텐츠 IP 고도화 방안을 제시함
 - 콘텐츠 IP 유동화가 시도된 영상, 음악, 웹툰, 게임 장르를 중심으로 진행함

나. 연구 방법



2. 콘텐츠 IP금융 현황 분석

2.1 콘텐츠 IP금융의 개념과 유형

가. 콘텐츠 IP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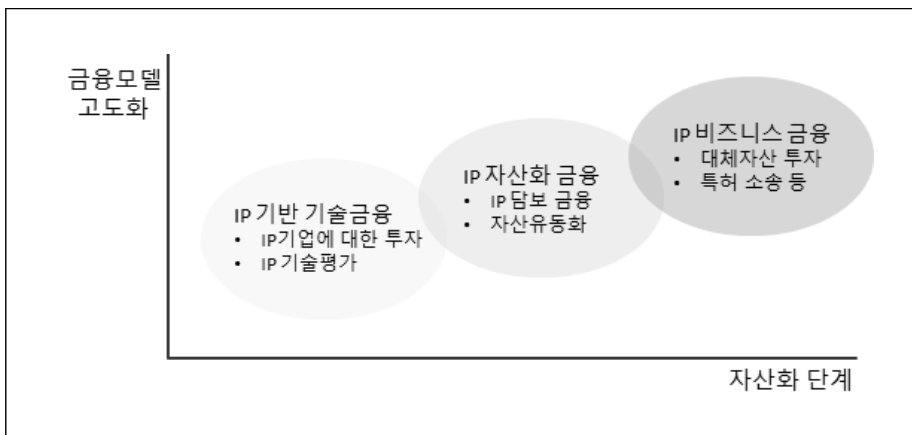
- 콘텐츠 지식재산(IP)의 법적 기반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모든 영역이지만, 실질적인 산업 환경에서는 저작권과 상표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 콘텐츠 IP는 권리의 성격이란 측면에서 주로 저작권과 상표권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상업화 전략의 측면에서는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 수입과 상표권 라이선싱을 통한 머천다이징 상품의 로열티 수입 등 다양한 콘텐츠 및 부가사업 활동의 결과를 포괄함(이현진, 2017)
- 콘텐츠 IP는 권리 및 수익구조 측면에서 기술 기반 IP와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콘텐츠 IP는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권리가 보장되는 동시에 진부화의 영향이 매우 적어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기반 IP와 차이가 있음

나. 콘텐츠 IP금융의 유형

- IP금융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을 총칭함
 - IP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금융과 IP 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모두를 포함함
- IP금융을 IP 자산화 단계와 금융모델 고도화를 기준으로 보면, IP기반 기술금융, IP 자산화 금융, IP 비즈니스 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1] IP금융의 유형



- IP금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IP보증, IP담보대출, IP투자가 있으며, IP Sales& License Back(SLB), IP 자산유동화증권 등도 IP금융의 유형임
 - IP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IP에 대한 가치평가에 기반하여 은행이 기업에 IP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임
 - IP보증은 보증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기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임
 - IP투자는 투자기관이 우수IP 보유 기업에 대해 지분투자를 하거나 수익화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유형임
 - Sales&License Back(SLB)은 특수목적법인이 기업으로부터 IP를 매입하고 해당 기업에게 실시권을 허여하는 대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금융 유형임
 -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 중 일부를 유동화자산으로 집합(Pooling)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융수단임

2.2 콘텐츠 IP금융 정책 분석

가. 모태펀드 문화계정 IP펀드

1) 현황

- 원천 IP 보유 콘텐츠기업을 육성하고 IP를 활용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콘텐츠 IP펀드가 2년 연속 출자되었음
 - 2020년 내 콘텐츠 IP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배경으로 260억 원 규모의 콘텐츠 IP 펀드가 처음 조성되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IP펀드 출자가 이어짐
 - 주목적 투자 대상은 1) 문화콘텐츠 원천 IP를 소유(확보 포함)한 콘텐츠 중소벤처기업, 2) 문화콘텐츠 기획 제작사가 단독 보유하거나 유통사와 공동 보유하고 있는 IP를 활용한 프로젝트, 3) 문화콘텐츠 원천 IP를 유통 배급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설정함

2) 성과

-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IP펀드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4년 간 투자 집행 자료를 분석함
- 2020년~2024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IP펀드를 통해 이루어진 투자는 총 52건이며, 그 규모는 약 334.9억 원임
 - 장르별로 살펴보면, 게임(101.5억 원), 방송(75.8억 원), 영화(68억 원), 애니메이션/캐릭터(52억 원)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음
 - 투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로젝트 투자는 164억 원(27건), 지분 투자는 170.9억 원(25건)으로 투자 유형에 따른 거래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장르별로 세분화하면 그 양상은 상이함
 - 장르별 투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상콘텐츠(영화, 방송, 애니/캐릭터) IP 프로젝트에 상당한 자금 유입을 유도하며, 일부 투자건의 경우 원천 IP를 타 장르로 확장하여 재생산하는 등 IP를 활용한 사업화에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 IP펀드의 주목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IP펀드 운용사들은 중소 제작사 및 CP사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IP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타 정책펀드에 비해 운용사들이 중소 제작사 및 CP사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웹툰 및 웹소설 제작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다수 진행되었음

3) 한계점

-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대기업 자본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정으로 이와 연계된 중소기업 및 IP 홀더 대상 투자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음
 - 모태펀드 규정에 따라 대기업 자본이 투입된 IP 프로젝트는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나 글로벌 OTT 프로젝트의 사례처럼 투자 시점에서 최종 배급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정책펀드의 투자가 가능하여 오히려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 IP의 라이선싱을 통한 사업화 등 실질적으로 IP를 활용한 프로젝트에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IP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에는 범위적 한계가 명확함

나. 콘텐츠 IP보증

1) 현황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 제작 또는 MD 상품 제작과 같은 콘텐츠IP를 활용한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콘텐츠IP 활용 기업(콘텐츠기업, 이중기업)에 대해 콘텐츠 IP보증제도를 제공하고 있음
 - 콘텐츠 IP의 범위는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지식재산의 권리성을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 IP로 정의함
 - 콘텐츠 IP보증의 보증한도는 10억 원 내외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임
- 콘텐츠 IP보증의 범위는 IP활용 측면에서 콘텐츠 제작과 제품/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IP는 독자적 비즈니스모델을 가지는 동시에 비즈니스의 형태가 지속적이어야 함
- 콘텐츠 IP보증의 신청 대상은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OSMU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내기업 및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정함

2) 성과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 IP보증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콘텐츠 IP보증이 도입된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의 콘텐츠 특화보증 집행 자료를 활용함
- 콘텐츠 IP보증제도 도입 후, 콘텐츠기업의 보증 신청 건수는 총 37건이며, 신용보증기금으로의 추천 건수는 총 32건임
 - 보증 금액 규모는 20년 6.8억 원, 21년 13.1억 원, 22년 14.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IP보증은 타 보증상품에 비해 건 당 보증규모가 높은 편인데, 이는 금융환경에서 완성된 콘텐츠 IP의 자산적 가치와 담보력이 기획이나 제작 단계의 프로젝트에 비해 높다는 점을 증명함
 - 콘텐츠 IP보증은 원천 IP보유기업 뿐 아니라 IP 이용기업의 자금조달도 가능하

여 콘텐츠 IP로 라이선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중산업 기업의 유입을 유도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콘텐츠 IP 보유기업과 원천 IP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짐

3) 한계점

- 콘텐츠 IP 라이선싱, 2차 콘텐츠 제작 등 IP활용 계약이 이미 진행된 프로젝트 혹은 현실적으로 담보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성 높은 원천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콘텐츠기업은 보증 대상에서 벗어남
 - IP보증 평가 시, 원천 IP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라이선싱 계약 여부가 중요한 평가요소로서 IP활용과 관련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 IP보증을 비롯해 정책금융에 대한 콘텐츠기업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산업 내 부족한 자금수요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2.3 시사점

가. 콘텐츠 IP금융 고도화의 필요성

1)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기존 IP금융 방식의 한계

-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산업 구조가 정립되며 플랫폼의 유망 IP 선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축소와 자본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
 - 제작사의 IP 권리가 플랫폼에 귀속되는 플랫폼 중심의 구조에서는 재무적 투자자 등 투자자본의 수익성이 낮아져 투자 축소로 이어짐
-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국내 콘텐츠산업의 환경을 고려할 때, 재무적 투자자와 같은 다양한 산업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IP금융 수단의 고도화가 필요함
 - IP보증, IP대출 등이 중심인 현재의 IP금융은 정책금융 중심의 구조로, 콘텐츠 산업이 고도화되고 산업화되어 IP를 활용한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2) 콘텐츠 IP 유동화를 통한 새로운 콘텐츠 IP금융 시장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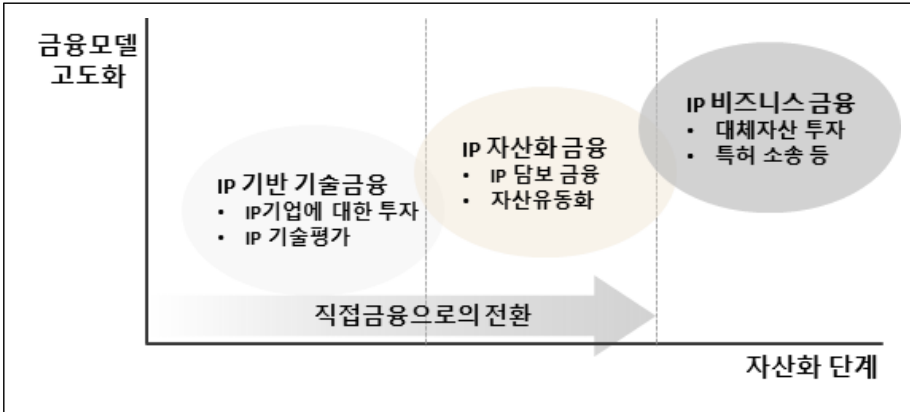
- 콘텐츠 IP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하는 조각투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증권 발행 등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어, IP금융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임
 - 콘텐츠 조각투자 부상의 배경은 무형자산 거래 관련 기술의 발전을 꼽을 수 있음
 - 또한,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IP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의 등장으로 클라우드펀딩 및 개인투자자의 증가 등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수요 확대도 콘텐츠 IP금융 및 조각투자 증가의 배경임

나. 콘텐츠 IP금융 고도화의 방향성

1) 간접금융의 한계와 직접금융 중심의 구조 전환 필요

- 콘텐츠 IP금융 시장은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로 형성되었으며, IP 평가에 기반한 보증, 대출과 같은 간접금융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음
 - 직접금융 시장은 기업의 규모와 업력 등의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도와 담보가 낮아 대규모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은 주로 간접금융을 활용하며,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은 콘텐츠산업의 IP금융은 간접금융 중심임
- 콘텐츠 IP금융 환경에서는 간접금융에서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잔존하여 효과성이 낮는데, 공급자 중심의 IP금융 환경에서 이러한 간접금융의 낮은 효과성은 콘텐츠 IP금융 활성화 및 콘텐츠산업 자금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콘텐츠 IP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기존의 간접금융에서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 직접금융 중심의 전환이 요구되어짐
 - 현재의 콘텐츠 IP금융은 IP 자체의 가치보다는 기술력과 사업화 역량에 중점을 두는 IP 기반 기술금융 단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IP 자산화 단계는 낮은 상태임
 - 콘텐츠 IP금융 인프라가 IP 자산화 금융 단계로 고도화된다면, 원천 IP의 가치에 기반한 금융수단이 다양해지고, 영세규모의 콘텐츠기업의 자본 접근도 용이해질 것임

[그림 2] 콘텐츠 IP금융 고도화의 방향성



2) IP 유동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접근 필요

- 직접금융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하여 큰 규모의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지만 위험도가 높아 영세규모의 콘텐츠기업이 개별 단위로 자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 벤처투자 시장으로 넓혀본다면, 콘텐츠 IP펀드에서는 IP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어 IP 자산화 측면에서 활용도가 낮음
-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면서 효과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한 IP금융 수단으로서 IP 유동화가 주목받고 있음
 - IP 유동화는 투자자 입장에서 자산보유자의 도산 위험과 분리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자산보유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채무 부담이 없으며, 투자자층을 쉽게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산업에서의 IP 유동화가 여러 차례 시도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와 미비한 제도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임

3. 콘텐츠 IP 유동화 사례 분석

3.1 IP 유동화의 개념과 특징

가. 자산유동화의 정의 및 유형

-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이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정의됨
- 최근, 금융기법의 진화, 새로운 구조 및 자산 활용 등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대한 개념이 지식재산권까지 확대되었으며, 콘텐츠 IP의 유동화가 가능한 법적 환경이 조성됨
- 전통적인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이외에 조각투자 성격의 신종증권도 자산유동화의 한 유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토큰증권의 발행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음
- 조각투자는 시장에서 먼저 등장한 이후 사후 규제가 발생한 경우로, 음악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뮤직카우가 대표사례임
 - 뮤직카우는 경매 방식으로 ‘음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구입하는 운영의 형태였으나 2022년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뮤직카우의 음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여 조건부 제재를 결정 받음
 - 2022년 9월 뮤직카우는 금융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구조 개편 요구를 이행하여 최종 제재면제 결정을 받았으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재개함
 - 이후, 「신탁업 혁신방안」을 통해 혁신서비스 지정 건의 경우 신탁업자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였으며, 현재는 음원 저작권을 기초로 하는 신탁 수익증권이 발행되고 있음
 - 금융당국은 신탁수익증권 대상 자산의 기본요건으로 객관적 가치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객관적 가치평가의 기준을 관계법령에 해당자산에 대한 평가원칙 및 방식이 존재하거나, 법령 등에 의거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가치평가 주체의 존재로 설정하였음

-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 한 발행형태의 종류로서 조 각투자 증권발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6일 발표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하였으나 정부의 토큰증권 정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도화는 지연되고 있음
 - 토큰증권의 제도화는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비교적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상장 주식시장 외에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높음

나. 자산유동화 대상으로서의 콘텐츠 IP

- 저작권은 다른 IP에 비해 현금흐름의 변동이 심하지 않는 안정적 기초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어, 콘텐츠 IP는 주로 저작권 중심의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자산유동화의 기초자산인 유동화 대상 자산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경우에 적합하며, 콘텐츠 IP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저작권은 특허권 등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미래의 현금흐름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창작에 의해 취득된 권리로 그 권리가 부인될 위험이 낮아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음(최승재 외, 2022)
- 콘텐츠 IP를 활용한 자산유동화는 이미 제작이 완료되어 수익이 창출되고 현금흐름 추정이 비교적 용이한 음악과 영화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음

3.2 콘텐츠 IP 유동화의 유형별 사례

가. 콘텐츠 IP ABS

1) 미국

- 1990년대 David Bowie의 앨범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Bowie Bond를 발매하였으며, 이후로도 유사한 방식의 음악 저작권 유동화 사례가 등장하였으며, 영화의 경우에도 특정한 영화 제작사의 영화포트폴리오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이 발행된 사례가 존재하나 여러 요인에 의해 점차 인기를 잃게 됨
- 그러나 음반산업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이 급증하면서, 음악 저작권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인식되며, 콘텐츠 IP 활용 ABS가 다시 주목을 받음
 - 사모펀드 KKR의 음악 저작권 ABS 발행, 사모펀드 Blackstone의 음악 저작권 ABS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음악 저작권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함

2) 한국

- 2012년 CJ E&M이 영화 등의 저작권을 담보로 1,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사례와 모태펀드 특허계정에서 200억 원 규모의 IP유동화증권 투자펀드를 조성해 S&LB 로열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사례가 있음
- 그러나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ABS를 발행한 국내 사례는 매우 적는데, 법제도적 환경의 미비와 미국 등에 비해 산업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됨

나. 콘텐츠 IP 조각투자

1) 미국

-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을 중심의 사례가 확인되며, 대표적 플랫폼으로는 SongVest와 JKBX(Jukebox)가 있음
 -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아 저작권 수익에 기초한 증권을 거래하는 구조임

- 아직까지 투자자간 거래가 가능한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금융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임

2) 한국

- 현재 제도권 내에서 유일하게 콘텐츠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뮤직카우는 재산권과 인접권을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아 음악 수익증권의 형태로 제공하는데, 기존 음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으로 발행되던 것을 수익증권 형태로 전환 발행하는 구조임
 - 뮤직카우는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저작권료 수익 비율이라는 새로운 가치 평가 방식을 개발함
 - 자산유동화법 개정 이후 음악 저작권을 기초로 한 수익증권은 현재(2024년 7월 31일)까지 총 20회 발행된 것으로 확인됨
 - 음악 수익증권의 참여율은 음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수익 배당률 역시 곡의 흥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음

다. 콘텐츠 IP 토큰증권

1) 미국

- 토큰증권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미국에서는 조각투자에서 활용한 것과 동일한 사모 또는 공모면제 제도를 활용하여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이 중 콘텐츠 IP와 관련된 토큰증권인 ‘Advent Token’이 2022년 10월 상장되었는데, 영화, TV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사운드트랙, 관련 상품 등 미래 영화의 흥행과 상품의 잠재적인 미래 수익에 투자하는 상품임

2)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017년 싱가포르 통화청(MAS)에서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토큰증권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소액 모집, 사모발행, 기관투자자/적격투자자만을 모집대상으로 하는 경우 투자설명서 등의 규제가 면제 가능함

- 싱가포르 토큰증권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접근이 어렵지만, 투자대상의 지역적 범위가 싱가포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특징도 존재함
- 싱가포르는 다양한 토큰증권 거래플랫폼이 등장하고 기존 금융시스템 내에 있던 기관들도 토큰증권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화하고 있음

3) 독일

- 2019년 독일 연방정부는 블록체인 전략을 발표해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증권 발행도 허용하였으며, 2021년 6월 관련 법이 시행됨
- 콘텐츠 IP와 관련해서는 360X Music AG가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와 협력해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는 음악 로열티 규제 토큰증권을 발행하였고, 해당증권은 독일 내에서 한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4) 한국

- 법제화 지연으로 국내에서의 콘텐츠 IP 토큰증권 발행 사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현재의 조각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시장이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음
- 이미 증권사를 중심으로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과 토큰증권 협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확장 가능성으로 인해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도 증가하고 있음

〈표 1〉 증권사 및 콘텐츠 조각투자 기업 제휴 현황

증권사	콘텐츠 조각투자 기업	주요 내용
미래에셋증권	링거스튜디오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 링거스튜디오와 업무협약 체결
	핀고컴퍼니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 핀고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업무협약 체결
	서울옥션블루	미술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업무협약 체결
KB증권	편더풀	콘텐츠 전문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으로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옥션블루	미술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계좌관리 관련 업무협약 체결
NH투자증권	투게더아트	미술품 조각투자 기업으로 투자계약 증권 발행업무 관련 업무협약 체결
하나증권	웹툰을	웹툰 기반 IP 수익권 거래 플랫폼 기업으로, 수익증권 발행 관련 업무협약 체결
키움증권	뮤직카우	음악 수익증권 발행 및 거래 지원,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서는 키움증권 계좌 필요
	테사	미술품 조각투자 기업으로 실명계좌 제공 서비스 도입 등 제휴

- 토큰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국내 조각투자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싱가포르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3.3 시사점

가. 유동화 대상자산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콘텐츠 IP

- 음악 저작권은 안정적인 장기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하여 미국 및 한국에서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동화증권 발행사례가 존재함
 - 한국에서는 콘텐츠 IP 및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 발행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음악저작권의 경우 유동화 대상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음악 저작권 외의 콘텐츠 자산이 유동화 증권 발행의 기초자산으로서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나. 다양한 유동화 구조의 활용 가능성

- 전통적인 ABS 발행, 조각투자, 토큰증권 등의 사례를 감안할 때 콘텐츠 IP의 유동화에 다양한 구조 활용이 가능함
- 토큰증권의 경우 음악 저작권 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발행되어 복잡한 IP를 보유한 콘텐츠산업에서의 잠재적인 활용 가능성을 보여줌

다.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 형성 움직임

- 주요 국가들은 제도적 규제를 활용해 토큰증권 참여자를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제한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음
- IP 조각투자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유통을 허용한 사례가 많지 않아 개인투자자 간 IP의 권리를 거래하는 유통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음
- 이는 콘텐츠 IP 유동화 방법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 시장으로 시스템이 체계화되기 전까지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사모펀드, 기관투자자, 적격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 면제를 통해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라. 전문적 콘텐츠 가치평가의 필요성

- 콘텐츠 IP 가치평가를 위해 자체 평가 모델 개발 및 외부 전문기관 육성을 통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가 필요함을 확인함
 - 미국 조각투자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경우도 발행기업이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가치평가 방식에 특화를 보유하는 등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음
- 콘텐츠 가치평가는 전문 지식 보유 및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전문기관 확대 및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평가 트랙 레코드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4. 콘텐츠기업 및 전문가 의견조사

4.1 콘텐츠기업 조사

가. 조사 개요

-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및 인식을 살피고, IP금융 고도화 방안에 대한 수요를 도출하기 콘텐츠기업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은 2024년 현재 콘텐츠기업에 종사 중인 관계자 50인으로 설정함

〈표 2〉 콘텐츠기업 인식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콘텐츠기업 종사자 * 장르: 만화·웹툰, 음악, 영상콘텐츠(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유효 응답 수	• 50개
진행 기간	• 2024년 7월 22일 ~ 8월 2일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 조사 문항은 응답자 개인과 종사 중인 기업 정보, 자금조달 현황 및 인식 전반,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 인식 및 수요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구성함

〈표 3〉 콘텐츠기업 인식 조사 내용

구분	내용
기업 및 응답자 정보	<div><div><div>• 응답자 직위</div><div>• 대표 장르</div><div>• 설립연도</div></div><div><div>• 상시 근로자수</div><div>• 연 평균 매출액(최근 1년)</div><div>• IP 보유 건수</div></div></div>
자금조달 현황 및 인식	<div><div><div>• 지난 3년간 투자 유치 경험</div><div>• 투자자 주체 및 투자 유형</div><div>• 투자 유치 애로사항</div></div><div><div>• 지난 3년 간 외부 자금조달 경험</div><div>• 자금조달 유형</div><div>• 보유 IP 기반 자금조달 성공 여부</div></div></div> <div><div>• 금융기관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div><div>• 자금조달 활성화 위한 선결 과제</div></div>
IP 활용 자금조달	<div><div><div>•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 예측</div><div>• IP 활용 자금조달 용이성 긍정/부정 예측 이유</div><div>•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 적용가능성 진단</div></div><div><div>• 제작 중 콘텐츠 활용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 예측</div><div>• 제작 중 콘텐츠 활용 자금조달 용이성 긍정/부정 예측 이유</div><div>• 제작 중 콘텐츠 활용 자금조달 방안 적용가능성 진단</div></div></div> <div><div>• IP 활용 자금조달 활성화 위한 선결 과제</div></div>

나. 조사 결과

1) 자금조달 현황 및 인식

- 최근 3년간(2021년 7월~2024년 7월) 피투자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50%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응답했고 18%는 실패했다고 응답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2%를 차지함
 - IP를 보유한 기업의 55.6%는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응답하였으나, 보유한 IP가 없는 기업은 피투자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자 유치에 있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투자자가 요구하는 투자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항목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최근 3년간(2021년 7월~2024년 7월) 외부 자금 조달 경험을 조사한 결과, IP 보유 기업의 경우, 외부 자금조달에 성공했다는 응답이 55.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IP 미보유 기업은 20% 수준의 낮은 응답 비율이 나타남
- 한편, 콘텐츠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은 ‘콘텐츠 IP를 활용한 금융상품 부족’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콘텐츠기업의 투자유치 및 외부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IP 확보를 위한 제작 단계에서의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기회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2) IP 활용 자금조달

- 조사 참여 기업(N=50)의 62%는 콘텐츠 IP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이 확대될 경우, 콘텐츠산업 내 자금조달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함
 - 콘텐츠 IP 기반 자금조달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한 기업은 ‘보유 IP를 유동화하여 즉각적인 자금 수급에 도움이 되어서’ 항목을 긍정 예측의 첫 번째 이유로 꼽은 반면, IP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은 기업은 부정 예측의 첫 번째 이유로 ‘콘텐츠 IP 권리관계의 복잡성으로 실질적인 거래가 용이하지 않아서’ 항목을 선택함

- 콘텐츠 IP 기반 자금조달 방안의 적용 가능성을 진단한 결과, 음악 기업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콘텐츠 IP를 활용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를 조사한 결과, ‘콘텐츠 IP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제도의 도입’을 1순위 과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콘텐츠 IP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활성화’, ‘콘텐츠 IP 거래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콘텐츠 IP 정책금융 규모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인식함

4.2 전문가 의견조사

가. 조사 개요

- 앞서 분석한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및 IP 유동화 방향성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진행함
- 조사 대상은 콘텐츠 IP펀드 운용 경험이 있는 VC, 금융권 전문가(IP 거래 플랫폼사, 증권사 등), IP금융 관련 공공기관(보증기관, 연구원 등)이며, 총 15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 간 조사를 진행함

〈표 4〉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IP펀드 운용 VC, 금융권, IP금융 관련 공공기관 등 전문가 15인
진행 기간	2024년 7월 26일 ~ 8월 2일
조사 방법	온라인을 통한 서면 답변

- 전문가 의견조사의 내용은 앞서 분석한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및 IP 유동화 방향성에 대한 내용 및 전문가 자문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함
 - 콘텐츠 IP 유동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IP 유동화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와 IP 유동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함
 - 총 4개의 IP금융 고도화 방안의 필요성과 각 방안별 세부방향성에 대해 조사하여 앞서 분석한 문헌연구를 검증하고자 함

〈표 5〉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구분	내용
콘텐츠 IP 유동화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5점 척도) •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5점 척도) • 장르별*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5점 척도) <p>*게임, 만화/웹툰, 영상, 음악, 전시</p>
고도화 방안(안)	세부 방향성(5점 척도)
콘텐츠 전문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평가, 특허평가, 감정평가 등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기술평가, 특허평가, 감정평가 등의 타 분야 가치평가 인력을 중심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별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 • 제작이 완료되고 권리화사업화된 IP를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 모형이 고도화 될 필요가 있다.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인프라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조각투자, STO 등 IP 기반의 신규 금융방식은 전문투자자 및 VC를 우선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 조각투자, STO 등 IP 기반의 신규 금융방식은 개인투자자를 우선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콘텐츠산업에 특성에 맞는 저작권 조각투자, STO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다. •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작 중인 콘텐츠에 대한 증권발행 등 콘텐츠 IP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을 위한 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 등의 적극적인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 콘텐츠 IP의 증권형태로 발행(STO)을 제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을 적극적인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 증권사 등 기존 신탁업체가 콘텐츠 전문 저작권관리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과도한 가격 변동, 권리관계의 불투명성 등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IP 기반의 정책금융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운영중인 IP펀드, IP보증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콘텐츠 IP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IP 담보대출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콘텐츠 IP의 현금흐름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로열티 매출채권 보증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투자한 콘텐츠 IP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지원펀드를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조각투자 등을 통해 거래된 IP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를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콘텐츠 IP 유동화증권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나. 조사 결과

1) 콘텐츠 IP 유동화에 대한 인식

- 개인투자자 등 자금조달처 확대와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증가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국내 콘텐츠산업 내 해외자본 유입의 증가와 필요시 빠른 자금조달의 가능성은 IP 유동화를 통한 기대효과로서 낮게 나타남

-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합리적인 콘텐츠 IP의 가치평가 수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 콘텐츠 장르별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음악과 만화/웹툰 분야가 가장 높은 적용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영상(영화/방송/애니메이션)의 적용 가능성은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2)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의 방향성 검증

- 콘텐츠 전문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비교적 다수의 전문가가 콘텐츠 전문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권리화·사업화된 IP를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 모형의 고도화,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가치평가 전문 인력 양성, 민간기관으로의 가치평가 기관 확대의 동의여부도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기술평가, 특허평가, 감정평가 등의 타 분야 가치평가 인력 중심의 전문성 제고는 다수의 전문가가 동의하지 않음

〈표 6〉 콘텐츠 전문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

고도화 방안	필요성			평균(점)
	낮음	보통	높음	
콘텐츠 전문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	20.0%	20.0%	60.0%	3.73
세부 방향성	동의여부			평균(점)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기술평가, 특허평가, 감정평가 등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0%	20.0%	60.0%	3.53
기술평가, 특허평가, 감정평가 등의 타 분야 가치평가 인력을 중심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0%	33.3%	46.7%	3.47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별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	20.0%	13.3%	66.7%	3.87
제작이 완료되고 권리화·사업화된 IP를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 모형이 고도화 될 필요가 있다.	6.7%	20.0%	73.3%	4.13

-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로 대부분의 전문가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세부 방향성의 경우, 콘텐츠산업에 특성에 맞는 저작권 조각투자, STO 가이드라인 도입, 전문투자자 및 VC 대상 시장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분석되었음
 - 반면,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 확대, 제작 중 콘텐츠 IP의 증권발행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낮게 나타남

〈표 7〉 콘텐츠 IP 유동화 관련 인프라 고도화

고도화 방안	필요성			평균(점)
	낮음	보통	높음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인프라 고도화	-	20.0%	80.0%	3.93
세부 방향성	동의여부			평균(점)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저작권 조각투자, STO 등 IP 기반의 신규 금융방식은 전문투자자 및 VC를 우선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6.7%	20.0%	73.3%	3.80
저작권 조각투자, STO 등 IP 기반의 신규 금융방식은 개인투자자를 우선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3.3%	40.0%	26.7%	2.93
콘텐츠산업에 특성에 맞는 저작권 조각투자, STO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다.	13.3%	-	86.7%	4.07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작 중인 콘텐츠에 대한 증권발행 등 콘텐츠 IP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46.7%	20.0%	33.3%	2.93

-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7%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모든 세부 방향성에 대해 필요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외에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 콘텐츠 전문 저작권관리단체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이 높게 조사되었음

〈표 8〉 콘텐츠 IP 유동화 관련 법·제도 개선

고도화 방안	필요성			평균(점)
	낮음	보통	높음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을 위한 법·제도 개선	-	13.3	86.7	4.20
세부 방향성	동의여부			평균(점)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 등의 적극적인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	20.0	80.0	4.00
콘텐츠 IP의 증권형토큰발행(STO)을 제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을 적극적인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	26.7	73.3	4.00
증권사 등 기존 신탁업체가 콘텐츠 전문 저작권관리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26.7	73.3	3.87
과도한 가격 변동, 권리관계의 불투명성 등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	6.7	93.3	4.13

- 콘텐츠 IP 기반의 정책금융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6.7%로 비교적 다수의 전문가들이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기 운영 중인 IP금융(IP펀드, IP보증) 규모 확대, 콘텐츠 IP 유동화증권 도입, 콘텐츠 IP담보대출 도입, 로열티 매출채권 보험 도입, IP 세컨더리펀드 도입 등 대체로 IP 정책금융 수단 확대의 필요성을 높다고 판단하였지만, 회수지원펀드의 필요성은 낮게 나타남

〈표 9〉 콘텐츠 IP 기반 정책금융 확대

고도화 방안	필요성			평균(점)
	낮음	보통	높음	
IP 기반의 정책금융의 확대	6.7	26.7	66.7	3.93
세부 방향성	동의여부			평균(점)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기 운영중인 IP펀드, IP보증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6.7	20.0	73.3	3.87
콘텐츠 IP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IP 담보대출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6.7	40.0	53.3	3.73
콘텐츠 IP의 현금흐름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로열티 매출채권 보험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13.3	33.3	53.3	3.60
투자한 콘텐츠 IP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지원펀드를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40.0	26.7	33.3	3.13
조각투자 등을 통해 거래된 IP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를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13.3	33.3	53.3	3.67
콘텐츠 IP 유동화증권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6.7	33.3	60.0	3.73

4.3 조사결과 종합

가. 콘텐츠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의 기대효과 확인

- 조사결과, 콘텐츠 IP 유동화가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증가시키고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콘텐츠산업 업계의 인식을 확인함
- 다만, IP 유동화가 콘텐츠기업의 즉각적인 자금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전문가와 콘텐츠기업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음

나. IP 유동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IP 유동화와 관련된 법제도 미비로 현재의 콘텐츠 IP 유동화 시장 형성이 지체되고 있으며, 시장 수요를 고려할 때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함
 - 특히, 저작권법,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 기존 법제도의 적극적 개정에 대한 의견도 높은 비중으로 조사되었는데, 현재의 콘텐츠 IP금융 시장과 법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전문가들은 콘텐츠 IP 유동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 비해 불안정한 시장의 현황을 고려할 때,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 확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IP 유동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의 방안으로서 합리적인 콘텐츠 IP 가치평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타남

다. 장르에 따라 상이한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

- 콘텐츠기업 및 전문가들은 대체로 음악과 만화/웹툰 장르에서는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지만, 영상 장르에서는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음
-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은 IP 권리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확인함
- 장르별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을 상이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저작권의 현금흐름 창출 구조가 다르다는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라. IP 정책금융 확대의 필요성 확인

- 정책금융 차원에서 IP 유동화 도입과 확대에 대한 콘텐츠 업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전문가들은 기 운영중인 IP펀드, IP 보증을 확대하는 동시에 IP 담보대출, IP 유동화증권, IP 세컨더리펀드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만, IP 정책금융의 확대는 민간 자본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정책자금의 과도한 투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함

5.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

가. 전문투자자 중심 단계적 시장 형성

- 본 연구는 콘텐츠 IP금융 고도화를 위해 전문투자자 중심의 IP 유동화 시장을 일차적으로 형성하고, 이후 개인투자자 시장을 이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적 시장 형성 방안을 제안함
 - 전문가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3%는 전문투자자 및 VC 우선의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지만, 개인투자자 우선의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6.7%에 그친 것처럼, 업계 전문가들은 안정성을 위해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토큰증권발행을 제도화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토큰증권시장이 발달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발행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를 기관투자자 및 적격투자자로 제한하였으며, 개인 투자자는 자산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등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 사모펀드 중심으로 투자자가 구성되어짐
- 전문투자자 중심의 IP 유동화 시장은 IP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
 - 정책금융을 통한 콘텐츠 IP 유동화증권과 IP 세컨더리펀드 등 신규 정책의 도입은 벤처자본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으며, 콘텐츠기업은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또한, 미국과 싱가포르의 규제 면제와 같이 시장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정책 금융 환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IP 정책금융이 미중물이 되어 시장이 형성된다면, 싱가포르 모델과 같이 IP 유동화 시장에서 사모펀드 및 해외자본을 유인할 가능성도 있음
- 한편으로는, 콘텐츠 IP는 권리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장르별로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IP 매출 구조와 현금흐름 데이터가 축적된 장르 중심으로 IP 정책금융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하며,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조각투자 및 토큰증권발행 가이드라인 개발의 검토가 필요함

나. 콘텐츠 IP 가치평가 인프라 고도화

1) 콘텐츠 IP 가치평가 전문 인력 양성

- 콘텐츠산업은 장르적 특수성 및 다양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구조로 산업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의 가치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콘텐츠산업 특화 가치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해야 함
 - 다만, 기술평가, 특허평가, 감정평가 등의 타 분야 가치평가 인력을 재교육하기 보다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가치평가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산업 이해도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콘텐츠 IP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범위와 성격을 규정짓는 법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함

2) 콘텐츠 IP 가치평가 전문 기관 지정 및 평가 데이터 확보

- 콘텐츠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정부 지정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을 콘텐츠 IP 평가 전문 기관으로 지정하여 콘텐츠기업의 IP 가치평가 수요를 연결할 수 있음
 - 문체부 등 소관부처 차원에서 콘텐츠 가치평가 전문 인력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IP 가치평가 수요와 연결시킨다면, 콘텐츠 IP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를 위한 민간 평가기관의 참여를 유인시킬 수 있을 것임

- 표준화된 콘텐츠 IP 가치평가 모형에 대한 업계의 요구도 높은데,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기보다는 콘텐츠 IP 가치평가 데이터, IP(저작권) 창출에 따른 현금흐름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유사 사례를 축적하는 방향이 요구되어짐
 - 음악 등 일부 장르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발전으로 저작물 이용 데이터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관련 신탁관리단체를 활용해 가치평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책적으로 마련된다면 IP 가치평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IP 가치평가 활용을 위한 데이터 실태조사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자료화하여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다. 저작권 등록 체계 개선

-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특별한 절차나 형식을 거치지 않아도 인정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저작권 등록 자체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반면, IP 유동화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유동화자산을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등록 제도의 개편이 필요함
 - 부동산과 같이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하고 등기부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유동화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별도로 유동화자산 등록이 필요함
 - 현재의 저작권법이 저작권의 유동화보다는 개별적인 저작권의 양도, 담보설정, 이용허락 등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IP로서 저작권의 유동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제도의 개편이 요구되어짐
- 자산으로서 금융 거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식 권리명부나 등기와 같이 그 권리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따라서 저작권 등록 체계를 금융위원회의 유동화자산 등록 절차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등록업무 위탁기관인 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작권 유동화를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등 저작권 등록 개편을 추진하되, 자산유동화 등록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등록·처리 절차와 연계하여 금융제도권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음

라. 콘텐츠 IP 전문 신탁관리단체 역할 강화

- 국내의 IP 신탁은 금융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신탁업자인 금융기관이 콘텐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IP 가치에 대한 평가가 어려우며, 저작권관리단체와의 협업도 원활하지 않은 구조임
 - 은행, 증권 등 신탁업자는 금융에 비해 IP 자산에 대해 전문성이 낮다는 한계점이 있어 IP 가치평가와 금융상품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임
- 정부는 2022년 「신탁업 혁신 방안」 발표를 통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화된 신탁서비스 제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본법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은행, 증권 등 신탁업자와 저작권관리단체의 연결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동일 장르라도 저작권 주체에 따라 저작권관리단체가 상이하고, 협업의 선례가 부족하여 신탁업자들은 콘텐츠 IP 유동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탁업자와 저작권관리단체의 연결 지원을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연계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저작권관리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관리·감독 강화도 함께 필요함
 - 저작권 등 콘텐츠 IP는 금융의 기초 자산이기 때문에 저작권관리단체에 의한 저작권 사용 요율 변경 등 현금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성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9
1. 연구 범위	9
2. 연구 방법	10
제2장 콘텐츠 IP금융 현황 분석	11
제1절 콘텐츠 IP금융의 개념과 유형	13
1. 콘텐츠 IP의 범위	13
2. 콘텐츠 IP금융의 유형	16
제2절 콘텐츠 IP금융 정책 분석	21
1. 모태펀드 문화계정 IP펀드	21
2. 콘텐츠 IP보증	27
제3절 시사점	33
1. 콘텐츠 IP금융 고도화의 필요성	33
2. 콘텐츠 IP금융 고도화의 방향성	35
제3장 콘텐츠 IP 유동화 사례 분석	41
제1절 IP 유동화의 개념과 특징	43
1. 자산유동화의 정의 및 유형	43
2. 자산유동화 대상으로서의 콘텐츠 IP	50

제2절 콘텐츠 IP 유동화의 유형별 사례	52
1. 콘텐츠 IP ABS	52
2. 콘텐츠 IP 조각투자	59
3. 콘텐츠 IP 토큰증권	65
제3절 시사점	70
1. 유동화 대상자산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콘텐츠 IP	70
2. 다양한 유동화 구조의 활용 가능성	71
3.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 형성 움직임	71
4. 전문적 콘텐츠 가치평가의 필요성	73
제4장 콘텐츠기업 및 전문가 의견조사	75
제1절 콘텐츠기업 조사	77
1. 조사 개요	77
2. 조사 결과	80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95
1. 조사 개요	95
2. 조사 결과	97
제3절 조사결과 종합	106
1. 콘텐츠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의 기대효과 확인	106
2. IP 유동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107
3. 장르에 따라 상이한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	108
4. IP 정책금융 확대의 필요성 확인	109
제5장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	111
1. 전문투자자 중심 단계적 시장 형성	113
2. 콘텐츠 IP 가치평가 인프라 고도화	115
3. 저작권 등록 체계 개선	118
4. 콘텐츠 IP 전문 신탁관리단체 역할 강화	120

참고문헌 / 123

ABSTRACT / 127

부록 전문가 의견조사지 양식 / 129

표 목차

〈표 2-1〉 지식재산권의 분류	14
〈표 2-2〉 기업금융, 기술금융, IP금융의 관계	16
〈표 2-3〉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분야(2020~2024)	22
〈표 2-4〉 문화계정 IP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2024년)	23
〈표 2-5〉 IP펀드 장르별 투자 규모	23
〈표 2-6〉 IP펀드 장르별 투자 유형	24
〈표 2-7〉 콘텐츠 IP보증 요건	28
〈표 2-8〉 콘텐츠 IP 활용(보유 또는 이용) 기업의 범위	28
〈표 2-9〉 콘텐츠 특화보증 평가 및 추천 현황	30
〈표 2-10〉 콘텐츠 특화보증 성공건수 및 규모	30
〈표 2-11〉 콘텐츠 특화보증 건 당 평균 보증 규모(보증규모/성공건수)	31
〈표 2-12〉 콘텐츠 IP 이용기업의 IP보증 사례	31
〈표 2-13〉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36
〈표 3-1〉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43
〈표 3-2〉 뮤직카우 사업재편 조건 이행결과	46
〈표 3-3〉 신종증권의 유형별 특성	47
〈표 3-4〉 유동화 자산으로서의 적격성	50
〈표 3-5〉 미국의 발행공시의무 면제 조항	59
〈표 3-6〉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된 음악저작권 유동화 현황	63
〈표 3-7〉 음악 수익증권의 수익 변화	64
〈표 3-8〉 증권사 및 콘텐츠 조각투자 기업 제휴 현황	68
〈표 4-1〉 콘텐츠기업 인식 조사 개요	77
〈표 4-2〉 콘텐츠기업 인식 조사 내용	79
〈표 4-3〉 응답 기업 정보	80
〈표 4-4〉 조사 참여 기업의 IP 보유 여부	80
〈표 4-5〉 대표 장르 및 연매출 규모별 IP 보유 건수	81
〈표 4-6〉 최근 3년간 투자 받은 경험	82

〈표 4-7〉 투자 유치 성공기업의 투자자 주체별 투자유형(복수응답)	83
〈표 4-8〉 투자 유치 실패 기업의 투자자 주체(복수응답)	83
〈표 4-9〉 투자 유치 시 애로사항	84
〈표 4-10〉 외부로부터 자금조달 경험	85
〈표 4-11〉 외부 자금조달 유형(복수응답)	85
〈표 4-12〉 IP 기반 자금조달 성공사례 경험(복수응답)	86
〈표 4-13〉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87
〈표 4-14〉 콘텐츠기업 투자 유치 및 외부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87
〈표 4-15〉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 예측	88
〈표 4-16〉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 ‘긍정’ 예측 이유	89
〈표 4-17〉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 ‘부정’ 예측 이유	89
〈표 4-18〉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적용 가능성	90
〈표 4-19〉 제작 중인 콘텐츠 활용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 예측	91
〈표 4-20〉 제작 중인 콘텐츠 활용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 ‘긍정’ 예측 이유	92
〈표 4-21〉 제작 중인 콘텐츠 활용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 ‘부정’ 예측 이유	92
〈표 4-22〉 제작 중인 콘텐츠 활용 자금조달 적용 가능성	93
〈표 4-23〉 콘텐츠 IP를 활용한 자금조달 활성화 위한 우선해결 과제	94
〈표 4-24〉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95
〈표 4-25〉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96
〈표 4-26〉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97
〈표 4-27〉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98
〈표 4-28〉 장르별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	99
〈표 4-29〉 콘텐츠 전문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	101
〈표 4-30〉 콘텐츠 IP 유동화 관련 인프라 고도화	102
〈표 4-31〉 콘텐츠 IP 유동화 관련 법·제도 개선	104
〈표 4-32〉 콘텐츠 IP 기반 정책금융 확대	105
〈표 5-1〉 콘텐츠 IP 유동화를 위한 가치평가 사례	116
〈표 5-2〉 저작권법 제55조 중 일부	118
〈표 5-3〉 국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신탁관리업)	120

그림 목차

[그림 1-1] S&P 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	3
[그림 1-2] 국내 IP금융 규모	4
[그림 1-3] 콘텐츠 IP의 확장 사례	5
[그림 2-1] IP금융의 유형	16
[그림 2-2] IP담보대출의 구조	17
[그림 2-3]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IP보증 구조	18
[그림 2-4] IP Sale and License Back(SLB) 구조	19
[그림 2-5] IP유동화증권 투자 구조	20
[그림 2-6] 콘텐츠 특화보증 제도의 구성	29
[그림 2-7] 콘텐츠 정책금융제도 인지도	32
[그림 2-8] 국내 주요 조각투자 플랫폼 이용자 연령대별 비중	34
[그림 2-9] 콘텐츠 IP금융 고도화의 방향성	37
[그림 3-1] 음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기반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45
[그림 3-2]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분류와 조각투자의 영역	47
[그림 3-3]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 규모 전망(2030년)	48
[그림 3-4] 글로벌 음반산업 부문별 매출 추이	54
[그림 3-5] Hipgnosis Music Assets 2022-1 L.P.의 구조	57
[그림 3-6] 음악조각투자플랫폼(뮤직카우)의 사업 구조	62
[그림 3-7] 뮤직카우의 신규 상장곡 발행가 추정 방식	63
[그림 3-8] INX에 상장된 Advent Entertainment 토큰증권	65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 연구 : IP 유동화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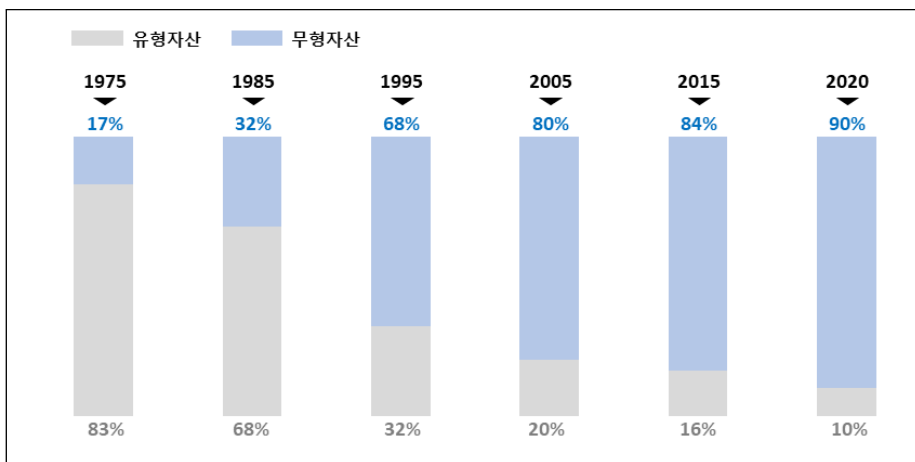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IP금융의 중요성 확대와 규모 증가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이후,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노동·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지식재산권(IP) 등의 무형자산이 주목받고 있음
 - S&P 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을 보면, 1975년 17%, 1995년 68%, 2020년 90%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S&P 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은 IT기술이 급격하게 확대된 1990년 중반과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2010년대 후반 급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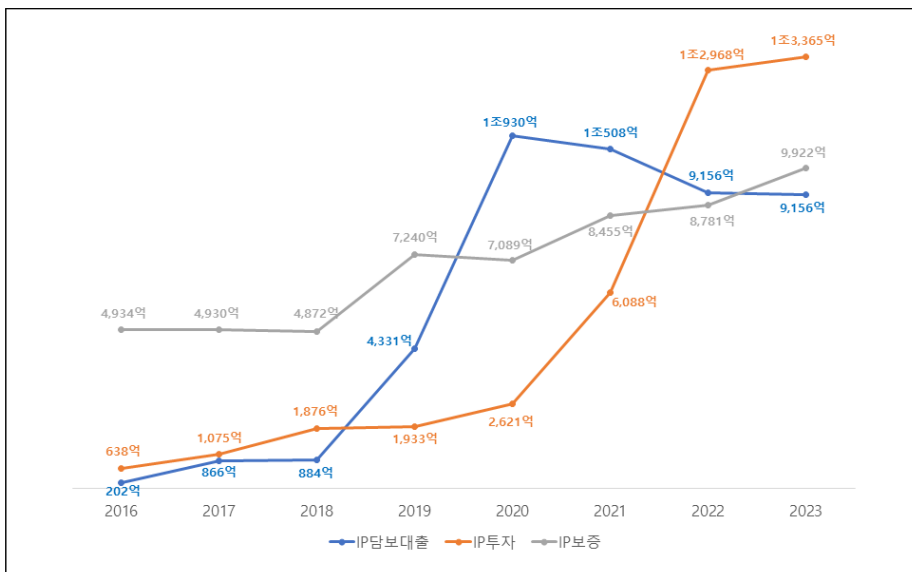
[그림 1-1] S&P 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



자료: Ocean Tomo(2020),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Study

-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혁신기업은 필연적으로 IP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자금조달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IP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스타트업은 통상 3~5년차에 유동성 위기를 겪는데, 기업의 IP가치를 인정받아 자금조달이 가능한 IP금융을 통해 혁신기업의 생존율이 상승함(금융위원회, 특허청, 2018)
- 전 산업에 걸쳐 IP를 활용한 사업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IP금융 규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2023년 IP금융 잔액은 약 9조 6,100억 원이며, 2023년 신규 공급 규모는 약 3조 2,406억 원임
 - 잔액 기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6.5%로 IP금융의 성장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음
 - 2023년 신규 공급 규모를 유형별로 보면, IP투자 1조 3,365억 원, IP보증 9,922억 원, IP담보대출 9,119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IP보증의 경우 전년대비 13%가 증가하였음

[그림 1-2] 국내 IP금융 규모



자료: 특허청 보도자료 재구성. 특허청(2024.3.25.), 지식재산(IP) 금융 10조원 눈앞! 혁신기업 자금조달 '청신호'.

나. IP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콘텐츠산업

- 전통적인 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 구조가 IP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양질의 IP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음
 - 콘텐츠산업의 구조가 IP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미디어와 플랫폼을 다양하게 넘나들며 세계관·캐릭터·스토리를 구축하고, 서로 연계시키는 서사구조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김규찬 외, 2021)
 - OTT 등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양질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플랫폼 간 IP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 웹소설, 만화,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며 한류를 이끄는 현상은 콘텐츠 IP 활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 웹소설에서 시작하여 웹툰으로 확장한 노블코믹스 <나 혼자만 레벨업>, 웹소설에서 웹툰과 드라마로 제작된 <재벌집 막내아들>, 웹툰에서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된 <스위트홈> 등은 원천 IP를 활용한 대표적 사례임
 - 제작사가 IP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변호사우영우>는 해외판권은 물론 웹툰, 뮤지컬로의 콘텐츠 재생산 및 라이선싱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IP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이처럼 원천 IP를 확장하여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괄목할만한 매출 성과와 인기를 얻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

[그림 1-3] 콘텐츠 IP의 확장 사례



- 결과적으로 콘텐츠 IP를 타 장르로 확장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라이선싱을 통한 상품화 등 콘텐츠 IP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콘텐츠기업의 성과에 직결되고 있는 상황임
- 글로벌 플랫폼에 비해 영세규모인 국내 콘텐츠기업이 보유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IP를 통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임
 - 대다수의 콘텐츠기업은 영세규모이기 때문에 원천 IP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2차 사업화 등을 추진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임
 - 보유 IP를 활용한 자금조달은 콘텐츠기업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적극적인 IP 사업화를 유도하여, 글로벌 플랫폼의 IP 독과점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음

다. IP금융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콘텐츠산업에 적합

- 콘텐츠기업은 대부분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으며, 이로 인해 유형적인 담보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금융수단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임
 - 콘텐츠기업은 토지, 건물 등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형자산 대신 저작권, 상표권과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 시 유형자산과 같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을 담보가 필요함
 - 국내 금융시장은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나 신용도에 기초한 금융관행이 통용되고 있어, 무형자산 중심의 기업은 사업화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음
- 콘텐츠산업은 소수의 대기업과 대다수의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세기업일수록 신용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권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움
 - 콘텐츠산업에 속한 기업을 연간 매출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10억 원 미만 기업의 비중은 88.3%, 10억 원 이상 기업은 11.7%로 대다수의 사업체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영세기업임(한국콘텐츠진흥원, 2024a)
 - 콘텐츠 영세기업은 투자 유치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매우 중요함

-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콘텐츠 IP금융이 확대될 경우, 유형적 담보와 신용도가 부족한 콘텐츠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수 있음
 - 자금조달의 수단이 다양화된다는 측면에서 콘텐츠 IP금융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높음(이현진, 2017)

라. 콘텐츠 IP금융의 구조적 한계

- 콘텐츠 분야를 비롯해 정부는 IP금융 관련 정책금융제도 제공과 육성 전략을 수립 하였지만, 정책수단과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음
 -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해 IP 가치평가 체계 고도화, IP금융 대상 확대, IP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IP 금융 규모를 23조 원으로 육성할 전략을 수립함
 - 콘텐츠 분야에도 IP 펀드, IP 보증 등의 정책금융이 제공되고 있지만, 정책 수단 및 범위가 제한적임
 - IP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된 2020년 이후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비롯한 정책펀드에서 IP 제작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펀드가 결성되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IP 보증 사업을 수행하여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 IP 활용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제도적·법적 기반의 미비로 보증과 대출 등 한정된 정책수단의 범위에서만 IP금융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수요에 비해 콘텐츠 IP금융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음
- 콘텐츠 IP금융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IP 유동화 등 신규 금융수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콘텐츠산업의 자금조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 연구 목적

가. 콘텐츠 IP금융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콘텐츠 IP금융 고도화의 필요성 도출

- 본 연구는 콘텐츠 IP금융의 개념과 유형, 콘텐츠 IP금융 정책 현황 등 콘텐츠 IP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콘텐츠 IP금융 고도화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 콘텐츠 IP금융의 개념과 유형분석을 통해 콘텐츠 IP금융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시함
 - 콘텐츠 IP금융 정책현황 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함

나. 콘텐츠 IP 유동화 사례 및 정책 수요 도출

- 콘텐츠 IP금융 고도화의 방안으로서 IP 유동화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를 도출하고자 함
 - 콘텐츠 IP 유동화의 범위, 대표 사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적용 가능성을 탐색함
 - 콘텐츠기업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IP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요를 도출함

다. IP 유동화 중심의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 제시

-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등 환경변화 분석 내용 및 정책 수요 기반 자료를 토대로 IP 유동화 중심의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콘텐츠 IP금융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인프라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도출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시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정부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콘텐츠 IP금융제도의 수립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를 중심으로 분석함
 - 다만, 콘텐츠 IP 유동화 등의 사례가 일부 나타났던 1990년대, 콘텐츠 IP금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2010년대도 사례 분석 과정에서 일부 포함함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 IP금융 시장으로 한정하되,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할 경우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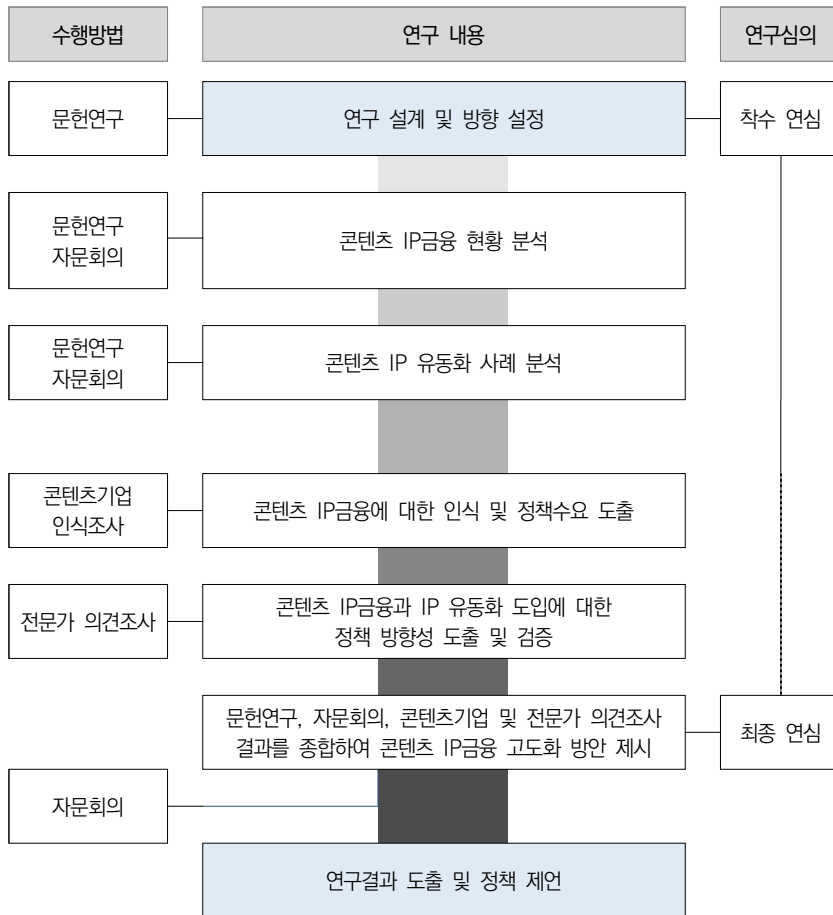
나. 내용적 범위

- 콘텐츠 IP금융의 현황 분석을 위해 콘텐츠 IP금융의 개념과 유형, 콘텐츠 IP금융 정책을 살펴봄
 - 기술 기반 IP와 대비되는 콘텐츠 IP의 특성과 범위를 도출하고, 콘텐츠 IP금융의 유형과 이와 연계되는 정책금융 제도를 분석함
- 콘텐츠 IP 고도화 방안으로서 콘텐츠 IP 유동화의 개념, 특징, 주요 사례를 분석함
 - IP 유동화 증권, STO 등 콘텐츠 IP 유동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분석 범위에 포함함
 - 이 과정에서 IP 유동화에 대한 콘텐츠기업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함
- 콘텐츠 IP금융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콘텐츠 IP 유동화 측면의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정책 방안은 법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포괄하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하여 제안함

■ 본 연구는 콘텐츠 IP 유동화가 시도된 영상, 음악, 웹툰, 게임 장르를 중심으로 진행함

2. 연구 방법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 연구 : IP 유동화를 중심으로

제2장

콘텐츠 IP금융 현황 분석

제1절 콘텐츠 IP금융의 개념과 유형

1. 콘텐츠 IP의 범위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가치 있는 무형의 자산이며, 그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이라 함(최승재 외, 2022)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는 지식재산에 대해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함
 -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 등의 용어로도 혼용되고 있으나,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권으로 관련 개념을 명명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함
 - 저작권은 협의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지식재산권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으로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신상표권, 산업저작권이 있음

〈표 2-1〉 지식재산권의 분류

유형	분류	주요 내용	관련법
산업재산권	특허권	기술적 창작	특허법
	실용신안권	실용적 창작	실용신안법
	디자인권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모양	디자인법
	상표권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도형 등	상표법
저작권	저작권	문학 및 예술분야 창작물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제작자의 권리 등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 배치설계, 인공지능, 사업방법 등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등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상표권	캐릭터, 지리적 표시, 소리상표 등	상표법, 농산물관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산업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DB, 콘텐츠 등	저작권법

자료: 최승재 외(2022), 저작권 유통화 정책 도입방안 연구.

- 콘텐츠 지식재산(IP)의 법적 기반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모든 영역이지만, 실질적인 산업 환경에서는 저작권과 상표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 콘텐츠 IP는 원천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 장르 및 산업 간 확장·연계 및 파생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관련 지식재산권 묶음(Portfolio)으로 정의할 수 있음(김규찬 외, 2022)
 - 콘텐츠 IP는 권리의 성격이란 측면에서 주로 저작권과 상표권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상업화 전략의 측면에서는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 수입과 상표권 라이선싱을 통한 머천다이징 상품의 로열티 수입 등 다양한 콘텐츠 및 부가사업 활동의 결과를 포괄함(이현진, 2017)
- 콘텐츠 IP는 권리 및 수익구조 측면에서 기술 기반 IP와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특허 등의 기술 기반 IP는 기존 기술이 대체되는 진부화의 영향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치가 하락함

- 반면, 콘텐츠 IP는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권리가 보장되는 동시에 진부화의 영향이 매우 적어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 콘텐츠기업 등 IP 보유자는 콘텐츠 IP의 저작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상표권에 기초하여 라이선싱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IP 보유자는 콘텐츠 자체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2차 저작물 작성권(저작권)에 기초한 판권(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이현진, 이성민, 2016)
 - 또한, 상표권에 기초한 연계상품(굿즈 등)을 판매하여 수수료 명목의 라이선싱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2. 콘텐츠 IP금융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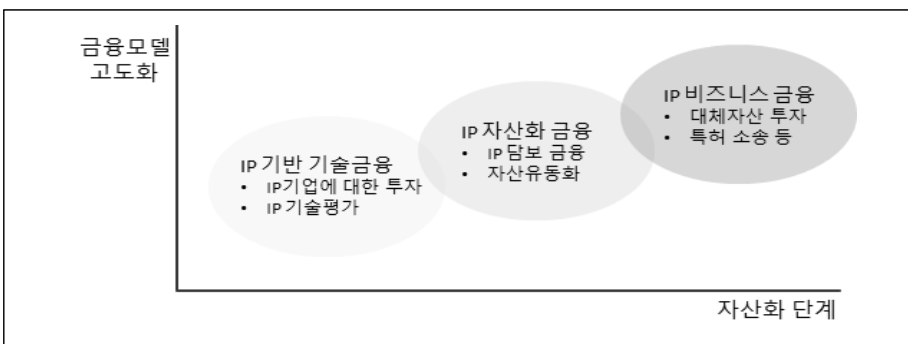
- IP금융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을 총칭함
 - IP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금융과 IP 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모두를 포함함
 - IP의 자산성격을 활용한 유동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IP금융은 기업금융 및 기술금융의 개념과 분리되어 새로운 금융방식으로 자리 잡음(이지언, 2021)

〈표 2-2〉 기업금융, 기술금융, IP금융의 관계

기업금융		기술금융		IP금융
기업의 재무실적·담보를 기반으로 매출 및 자금흐름을 중점적으로 고려	▷	기업의 재무실적·담보 이외에 기술력까지 고려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의 IP를 중점적으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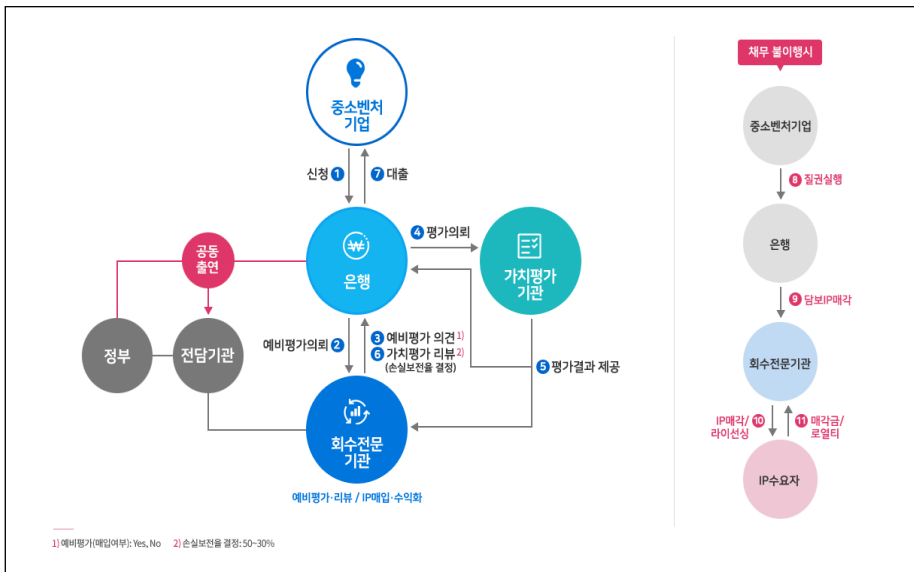
- IP금융을 IP 자산화 단계와 금융모델 고도화를 기준으로 보면, IP기반 기술금융, IP 자산화 금융, IP 비즈니스 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IP기반 기술금융은 IP 평가를 통한 보증, 대출이 이루어지지만 평가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IP의 자산화 단계는 낮음
 - IP자산화 금융은 IP의 가치를 담보로서 접근하는 단계로, Sales&License Back, IP담보 대출 등 담보 금융과 IP로열티를 유동화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임
 - IP 비즈니스 금융 단계에서는 IP를 하나의 대체자산으로 인식하고 투자하는 고도화된 자산화 단계로서 IP에 대한 특허소송과 NPE 펀드가 대표적 수단임

[그림 2-1] IP금융의 유형



- IP금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IP보증, IP담보대출, IP투자가 있으며, IP Sales& License Back, IP 자산 유동화증권 등도 IP금융의 유형임
 - 기업이 보유한 IP에 대한 가액·등급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이 IP를 기반으로 담보대출·투자·보증을 실행함(특허청, 2024.3.25)
- IP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IP에 대한 가치평가에 기반하여 은행이 기업에 IP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임
 - IP가치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10개 이상의 시중은행이 IP담보대출 상품을 운영 중에 있음
 - IP 범위에는 저작권과 상표권이 포함되어 콘텐츠 IP도 대출의 대상이나 기술 특허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IP 담보대출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자금회수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 IP 회수전문기관이 가치평가를 제공하는 구조도 도입되었음
 - IP 회수전문기관은 사전 결정된 손실보전율에 따라 매입대금을 협약은행에 지급하여 관련 담보IP를 매입한 후 IP거래(라이선싱) 등을 통해 매입대금을 회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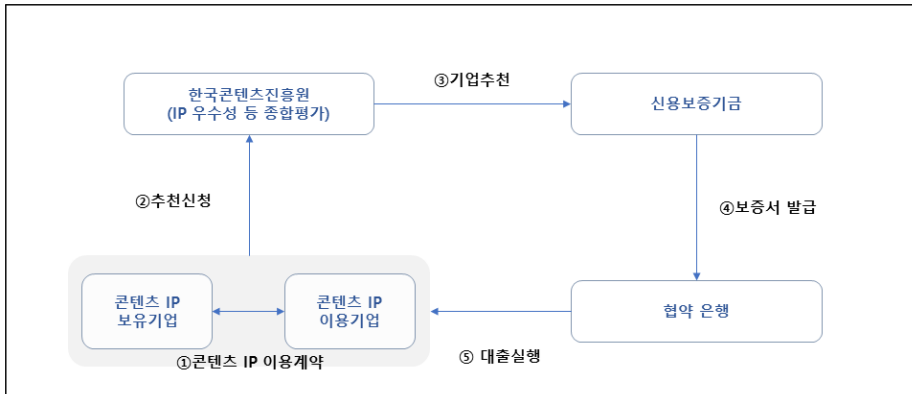
[그림 2-2] IP담보대출의 구조



자료: IP 금융관리시스템(<https://iphub.or.kr/ipfis/inform/intro/BusinessIntroduction/>)

- IP보증은 보증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기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임
 -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가치평가 결과를 근거로 연계 보증을 시행하고 있음
 -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IP 보유 기업의 대출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IP담보대출과 연계될 수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콘텐츠IP보증을 운영 중인데, 권리등록이 완료된 국내 IP에 한하여 10억 원 내외(보증기간 최대 5년)의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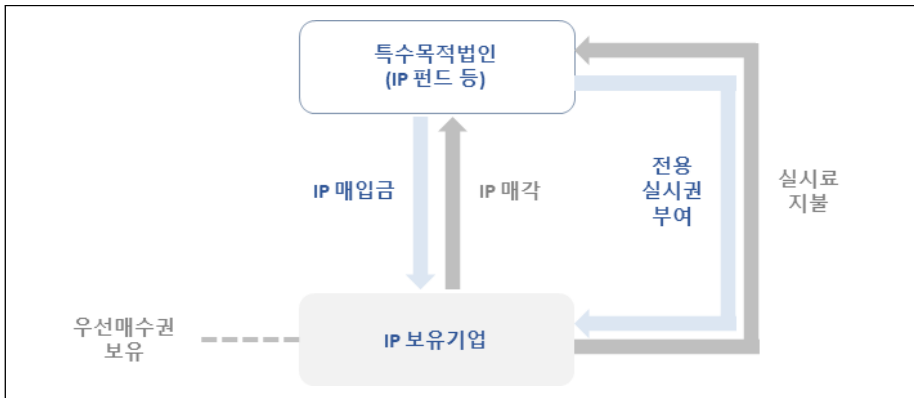
[그림 2-3]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IP보증 구조



- IP투자는 투자기관이 우수IP 보유 기업에 대해 지분투자를 하거나 수익화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유형임
 - IP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IP 자체에 대한 투자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
 - 모태펀드 특허계정, 성장사다리펀드 등의 지식재산 기반 펀드 혹은 VC의 직접 투자 등을 통해 IP투자가 실행되고 있음
 - 콘텐츠 IP투자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IP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IP 라이선싱에 대한 투자보다는 제작 단계의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IP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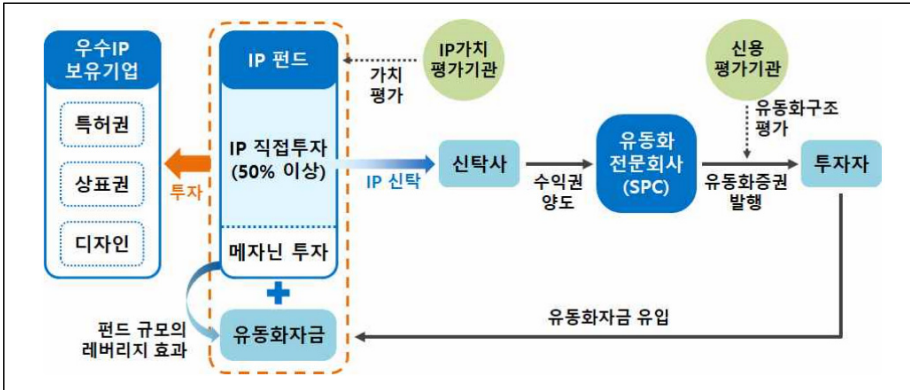
- Sales&License Back(이하 SLB)은 특수목적법인이 기업으로부터 IP를 매입하고 해당 기업에게 실시권을 허여하는 대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금융 유형임
 - 라이선스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원 IP 소유자는 구매 옵션에 따라 자산 소유권을 고정가에 재구매할 선택권을 지님
 - IP를 SLB 방식으로 유동화할 경우 IP의 공급자가 수요자가 됨으로써 가치에 대한 인식과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현금흐름을 구체화할 수 있음(이지영, 2017)
 - 또한, 기업이 IP 우선매수권을 보유하여 IP 활용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림 2-4] IP Sale and License Back(SLB) 구조



-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이하 ABS)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 중 일부를 유동화자산으로 집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융수단임
 - IP를 보유한 기업이 라이선스료 등의 현금흐름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하고, SPC가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임(이현진, 이성민, 2016)
 - 2000년대 전후,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저작권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이 활성화되었음
 - 최근에는 직접투자 펀드를 구성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사례도 나타남

[그림 2-5] IP유동화증권 투자 구조



-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공동으로 투자해 조각처럼 쪼개 소유하고 거래하는 방식임
 -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이나 IP 권리를 소액 지분으로 나누어 다수가 공동 투자하는 구조임
 - 비정형적 특성을 지닌 신종증권의 일종으로 법적규제로 인해 국내시장에서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한시적인 규제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음원, 미술품 등 IP를 거래하는 전문 플랫폼이 늘어나며, 조각투자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제2절 콘텐츠 IP금융 정책 분석

1. 모태펀드 문화계정 IP펀드

가. IP펀드 현황

-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정부가 개별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전문 투자기관을 통해 개별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개별 펀드에 출자하는 간접적 금융지원 정책임(홍무궁, 박찬욱, 2022)
 - 모태펀드는 19개 계정을 통해 각 산업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문화계정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에 출자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2~6개 정도의 분야를 정책방향에 맞춰 설정하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하고 있음
 -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출자 분야는 특정 장르 분야에 출자하는 개별 장르펀드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출자로 구분이 가능함(홍무궁, 박찬욱, 2022)
- 최근,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출자 경향은 장르 중심에서 정책목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 제작초기 콘텐츠와 소외장르 콘텐츠를 주목적 투자로 설정한 2020년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출자를 시작으로 문화계정의 출자 경향이 정책목표 중심으로 이동함
 - 매년 1개 이상의 장르 전용 펀드가 조성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정책목표 중심의 펀드만 출자되고 있어, 펀드 출자 전략이 장르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3〉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분야(2020~2024)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장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 • 애니메이션 캐릭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OTT 영상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마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연계 • 콘텐츠 IP • 5G기술융합 콘텐츠 • 모험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험 콘텐츠 • 콘텐츠기업 재기 지원 • 가치평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험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콘텐츠IP • K-문화M&A • K-유니콘 • K-밸류 • K-문화상생 • K-문화일반 •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 수출 • 신기술 • M&A·세컨더리 • 문화일반

- 특히, 원천 IP 보유 콘텐츠기업을 육성하고 IP를 활용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콘텐츠 IP펀드가 2년 연속 출자되었음
 - 2020년 내 콘텐츠 IP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배경으로 260억 원 규모의 콘텐츠 IP 펀드가 처음 조성되었으며, 주목적 투자는 문화콘텐츠 원천 IP (소설, 웹툰 등 타 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한 1차 창작 콘텐츠 등) 및 저작재산권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임
 - 이후, 3년만인 2023년에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펀드가 약 1,160억 원(4개 조합) 규모로 다시 출자되었으며, 1) 문화콘텐츠 원천 IP를 소유(확보 포함)한 콘텐츠 중소 벤처기업, 2) 문화콘텐츠 기획 제작사가 단독 보유하거나 유통사와 공동 보유하고 있는 IP를 활용한 프로젝트, 3) 문화콘텐츠 원천 IP를 유통 배급하는 중소 벤처기업으로 주목적 투자대상을 설정함
 - 2024년에도 IP 분야에 대한 출자는 이어졌는데, 약 3,200억 원(4개 조합) 규모로 조성되어 콘텐츠 IP 분야 출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콘텐츠 IP펀드 이외에도 2022년 조성된 드라마 펀드는 제작사가 단독 IP를 소유하거나 제작사와 방송국 또는 OTT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와 IP를 공동소유한 드라마 제작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하도록 명시하여, 국내 콘텐츠기업의 IP 확보를 주목적 투자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홍무궁, 박찬욱, 2022)

〈표 2-4〉 문화계정 IP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①~③ 중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결성목표액의 60% 이상 투자 ① 문화콘텐츠 원천 IP를 소유(확보 포함)한 콘텐츠 중소·벤처기업 ②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사가 단독 보유하거나 유통사와 공동 보유하고 있는 IP를 활용한 프로젝트 ③ 문화콘텐츠 원천 IP를 유통·배급하는 중소·벤처기업 <p>- 단, 상기 주목적 투자대상 중 ③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유통·배급사) 누적 투자금액은 결성목표액의 20% 이내여야 함</p>
--

자료: 한국벤처투자(2024), 모태펀드(문화, 영화, 해양) 2024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나. IP펀드의 성과

-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IP펀드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4년 간 투자 집행 자료를 분석함
- 2020년~2024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IP펀드를 통해 이루어진 투자는 총 52건이며, 그 규모는 약 334.9억 원임
- 장르별로 살펴보면, 게임(101.5억 원), 방송(75.8억 원), 영화(68억 원), 애니메이션/캐릭터(52억 원)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음
 - 게임 및 영상 콘텐츠 IP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전체의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출판/만화에 대한 투자는 약 10억 원으로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음
 - 콘텐츠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약 27.5억 원 집행되었음

〈표 2-5〉 IP펀드 장르별 투자 규모

(단위: 억 원)

장르	게임	영화	방송	애니/캐릭터	출판/만화	기타
거래금액	101.5	68	75.8	52	10	27.5
건 수	13	13	12	7	2	5

자료: 문체부 내부자료

- 투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로젝트 투자는 164억 원(27건), 지분 투자는 170.9억 원(25건)으로 투자 유형에 따른 거래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장르별로 세분화하면 그 양상은 상이함

- 총 13건의 영화 장르 투자는 모두 프로젝트 투자인 반면, 게임은 전체 13건의 투자 중 12건이 지분 투자로 진행되어 장르별로 IP 투자 유형이 상이함을 알 수 있음
- 방송과 애니/캐릭터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투자의 비중이 높으나 우선주, CB 등 지분 투자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 출판/만화는 우선주 방식의 지분 투자만 이루어지고 있음

〈표 2-6〉 IP펀드 장르별 투자 유형

장르	전체 거래금액 (억 원)	지분 투자		프로젝트 투자	
		건 수	거래금액(억 원)	건 수	거래금액(억 원)
전 장르	334.9	25	170.9	27	164
게임	101.5	12	96	1	5.5
영화	68	-	-	13	68
방송	75.8	4	20.4	8	55.4
애니/ 캐릭터	52	2	17	5	35
출판/ 만화	10	2	10	-	-
기타	27.5	5	27.5	-	-

자료: 문체부 내부자료

- 장르별 투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IP펀드를 통해 영상콘텐츠(영화, 방송, 애니/캐릭터) IP 프로젝트에 상당한 자금 유입이 유도되며, 일부 투자건의 경우 원천 IP를 타 장르로 확장하여 재생산하는 등 IP를 활용한 사업화에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프로젝트 투자의 비중이 높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 지분투자의 비중이 프로젝트 투자를 앞지르기 시작함(양지훈 외, 2022)
 - IP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지분투자의 증가는 펀드의 자금이 투자대상 기업의 신용도와 경쟁력을 근거로 유입되었음을 의미하며, IP 사업화 등 IP 활용에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 IP펀드의 프로젝트 투자내역이 주목적 투자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세부적인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IP펀드 조성을 통해 IP 프로젝트에 투자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유추할 수 있음

- IP펀드의 주목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IP펀드 운용사들은 중소 제작사 및 CP사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IP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타 정책펀드에 비해 운용사들이 중소 제작사 및 CP사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웹툰 및 웹소설 제작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다수 진행되었음
 - 중소 제작사 및 CP사가 보유한 작은 규모의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로 묶어 투자하는 사례도 나타남

IP펀드 성과 관련 모태펀드 콘텐츠 IP펀드 운용 VC 인터뷰

- 다른 펀드에서보다 중소제작사, CP사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편이며, 50억 원 이하의 중소 CP사 투자 유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짐
- 웹소설이나 웹툰을 게임으로 만드는 경우처럼 IP의 장르 확장에 대한 투자 사례도 있음

- 이처럼 IP펀드는 중소 제작사 및 CP사, 그리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IP 프로젝트에 정책자금을 유입시켜 IP 활용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효과를 일으킴

다. IP펀드의 한계점

-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대기업 자본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정으로 이와 연계된 중소제작사 및 IP 홀더 대상 투자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음
 - 모태펀드 규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 자본이 투입된 IP 프로젝트는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
 - 그러나 투자 시점에서 최종 배급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해외 OTT 프로젝트로 추후에 배급이 되더라도 정책펀드의 투자가 가능하여 오히려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며, 결과적으로 IP가 해외 플랫폼사에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내의 산업 자본 유입이 수월해진다면, 경쟁력 있는 IP와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과의 교섭력을 높일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IP펀드는 구조적 한계점을 지님(홍무궁 외, 2023)
- IP의 라이선싱을 통한 사업화 등 실질적으로 IP를 활용한 프로젝트에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IP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에는 범위적 한계가 명확함
 - 이미 제작이 완료된 IP를 활용한 라이선싱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제작사 역시, 라이선싱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에는 투자 유치보다는 대출 등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한다는 의견임
 - IP펀드 운용사들은 지분투자의 높은 수익성을 근거로 지분투자 중심의 투자전략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이 지속된다면 다른 정책펀드와 차별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함

IP펀드 한계점 관련 모태펀드 콘텐츠 IP펀드 운용 VC 인터뷰

-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대기업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기업 활동이 어려운 상황인데, 해외 OTT 배급 프로젝트라도 투자 시점에서 최종 배급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정책펀드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대기업이 차별받을 수 있음
- 프로젝트 투자는 수익의 상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분투자를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IP 프로젝트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음
- 제작 완료된 IP를 활용한 라이선싱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며, 제작사 입장에서 도 투자보다는 대출 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2. 콘텐츠 IP보증

가. IP보증 현황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 제작 또는 MD 상품 제작과 같은 콘텐츠IP를 활용한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콘텐츠IP 활용 기업(콘텐츠기업, 이중기업)에 대해 콘텐츠 IP보증제도를 제공하고 있음
 - 콘텐츠 IP활용기업의 보증신청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평가 및 추천을 진행하고 추천결과를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임
- 최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카카오, 신용보증기금이 협약을 통해 카카오가 추천하는 콘텐츠 IP와 활용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심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카카오는 이모티콘 캐릭터 등 콘텐츠 IP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추천하고, 콘진원은 콘텐츠 평가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할 콘텐츠 IP와 IP 활용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심사를 통해 콘텐츠 IP 활용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임(봉채영, 2023.6.29.)
- 콘텐츠 IP의 범위는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지식재산의 권리성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 IP로 정의함
 - 콘텐츠분야의 범위는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 음악, 공연, 캐릭터, 디지털콘텐츠로 설정하였으며, 해외 IP와 초상권은 평가대상이 아님
 - 신청기업은 저작권등록증,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등 IP 권리에 대한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콘텐츠 IP보증의 범위는 IP활용 측면에서 콘텐츠 제작과 제품/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IP는 독자적 비즈니스모델을 가지는 동시에 비즈니스의 형태가 지속적이어야 함
 - (콘텐츠 제작)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OSMU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의미함
 - (제품/서비스)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계획을 포함함

- 단순 납품 및 하청용역, 샘플 제작 및 테스트베드 등 단발성 사업은 신청이 불가하며 IP로서의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여야 함

〈표 2-7〉 콘텐츠 IP보증 요건

①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OSMU 포함) (예시) · 만화(웹툰)→드라마/영화, 드라마→영화, 애니메이션→게임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 · 웹툰, 웹소설 등 작가와 IP 이용계약 체결→웹툰, 웹소설 등 제공 및 중개 플랫폼
②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예시) · 콘텐츠IP(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문구, 완구 등으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즈) · 콘텐츠IP(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의류, 화장품, 식품, 생활 잡화 등 소비재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즈) · 콘텐츠IP(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테마파크, 키즈카페, 체험존 등 라이선싱 활용 서비스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웹사이트

- 콘텐츠 IP보증의 신청 대상은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OSMU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내기업 및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정함
 - 콘텐츠기업 외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이종기업도 보증신청 대상에 포함됨
 - 또한, 콘텐츠 IP 보유기업 외에 이용기업도 보증신청이 가능함

〈표 2-8〉 콘텐츠 IP 활용(보유 또는 이용) 기업의 범위

구분	세부요건
콘텐츠 IP 보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개발 · 제작한 콘텐츠IP로서, 법인기업은 해당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콘텐츠IP를 보유하는 경우(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콘텐츠IP는 대상이 아님) - 단, 직접 제작 및 개발한 콘텐츠IP가 아닐 경우 신청 불가
콘텐츠 IP 이용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IP의 관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단, 직접 제작이나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고 유통(도/소매)만 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OEM방식으로 제작/제조/가공하는 경우도 신청 불가)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웹사이트

- 콘텐츠 IP보증의 보증한도는 10억 원 내외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임
 -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비용 등 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활용될 수 있음

나. IP보증의 성과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 IP보증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콘텐츠 IP보증이 도입된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의 콘텐츠 특화보증 집행 자료를 활용함
 - 콘텐츠 특화보증은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콘텐츠 IP보증, K콘텐츠혁신성장보증으로 구성됨
 - 문화콘텐츠기업보증은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 등 제작 단계, K콘텐츠혁신성장보증은 글로벌, 비대면, 신기술융합 콘텐츠 등 콘텐츠 특성에 따라 신청대상과 보증한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IP보증과 차이점이 있음

[그림 2-6] 콘텐츠 특화보증 제도의 구성

분류	단계	기획 단계 (기획/개발)	제작 단계 (제작착수~완료전)	사업화 단계 (완성~국내유통)	성숙 단계 (해외진출 등)
콘텐츠 특화 보증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기획보증			
			제작보증		
				사업화보증	
	콘텐츠 IP보증	콘텐츠IP보증			
	K콘텐츠 혁신성장보증	기획보증			
			제작보증		
				사업화보증	
문화산업 완성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4c), 콘텐츠 금융제도 브로슈어.

- 콘텐츠 IP보증 도입 후, 콘텐츠기업의 보증 신청 건수는 총 37건이며, 신용보증기금으로의 추천 건수는 총 32건임
 - 2020년 출시 후, 콘텐츠 IP보증 신청 건수와 추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9〉 콘텐츠 특화보증 평가 및 추천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계
문화콘텐츠기업보증	평가	141	112	76	121	450
	추천	137	109	73	106	425
콘텐츠 IP보증	평가	4	6	13	14	37
	추천	3	5	12	12	32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평가	-	24	52	33	109
	추천	-	20	47	30	97

자료: 문체부 내부자료

- 보증 성공 건수의 두드러진 증가세는 보이지 않지만, 보증 금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보증 성공 건수는 총 16건이며, 보증 규모는 약 34.5억 원임
 - 보증 금액 규모는 20년 6.8억 원, 21년 13.1억 원, 22년 14.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10〉 콘텐츠 특화보증 성공건수 및 규모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계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성공 건수	81	69	33	54	237
	성공 금액	11,446	7,595	3,458	6,948	29,447
콘텐츠 IP보증	성공 건수	-	4	6	6	16
	성공 금액	-	685	1,317	1,455	3,457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성공 건수	-	12	27	13	52
	성공 금액	-	1,786	5,116	1,805	8,707

자료: 문체부 내부자료

- IP보증은 타 보증상품에 비해 건 당 보증규모가 높은 편인데, 이는 금융환경에서 완성된 콘텐츠 IP의 자산적 가치와 담보력이 기획이나 제작 단계의 프로젝트에 비해 높다는 점을 증명함
 - IP보증의 건당 보증규모는 약 2.16억 원으로 K콘텐츠혁신성장보증(1.67억 원), 문화콘텐츠기업보증(1.24억 원)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콘텐츠 특화보증 내 보증상품 간 추천률 및 보증성공률이 비슷한 수치임을 고려할 때, IP보증의 높은 건당 보증규모는 IP보증이 콘텐츠기업의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임을 의미함
- 콘텐츠 IP는 보유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고 물적 담보가 부족한 영세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에 유리한 구조임

〈표 2-11〉 콘텐츠 특화보증 건 당 평균 보증 규모(보증규모/성공건수)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계
문화콘텐츠기업보증	141	110	105	129	124
콘텐츠 IP보증	-	171	220	243	216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	149	189	139	167

- 콘텐츠 IP보증은 원천 IP보유기업 뿐 아니라 IP 이용기업의 자금조달도 가능하여 콘텐츠 IP로 라이선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종산업 기업의 유입을 유도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콘텐츠 IP 보유기업과 원천 IP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짐
- 콘텐츠 IP보증을 통해 IP 이용기업의 사업화 자금조달 용이성은 높아지며, 콘텐츠 IP 라이선싱 등 IP 활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음

〈표 2-12〉 콘텐츠 IP 이용기업의 IP보증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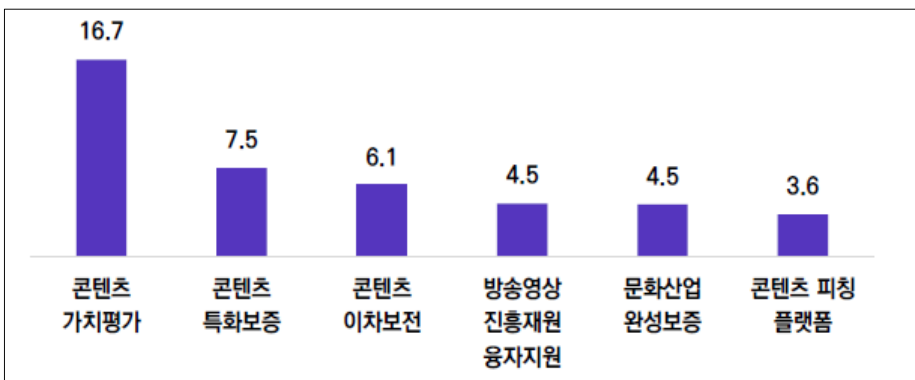
아기상어 IP를 활용한 라이선싱 사업 IP보증 사례

- 완구 전문 업체인 '지나월드'는 '더핑크퐁컴퍼니'와 아기상어 캐릭터에 대한 IP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교육 놀이 완구를 제작해 수출
- 콘텐츠 IP 이용기업인 '지나월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IP보증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함
- 출시 후 6개월 만에 매출 10억 원 이상, 상품 성장률 10%대를 기록하는 등 보증공급 규모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다. IP보증의 한계점

- 콘텐츠 IP 라이선싱, 2차 콘텐츠 제작 등 IP활용 계약이 이미 진행된 프로젝트 혹은 현실적으로 담보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성 높은 원천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콘텐츠기업은 보증 대상에서 벗어남
 - IP보증 평가 시, 원천 IP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라이선싱 계약 여부가 중요한 평가요소로서 IP활용과 관련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 권리계약 등 명확한 담보물이 제공되어야 하는 보증제도의 구조적 한계점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선판매 계약 등 유통계약이 체결된 경우, 완성보증과 같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보증지원 제도가 있어 콘텐츠기업 입장에서 유인력이 떨어짐
- IP보증을 비롯해 정책금융에 대한 콘텐츠기업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산업 내 부족한 자금수요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콘텐츠기업 대상 금융환경 조사 결과, 콘텐츠기업의 7.5%만이 콘텐츠 특화보증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음(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 특히, IP보증의 신청 건수는 연간 20건 이하로 콘텐츠 정책금융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7] 콘텐츠 정책금융제도 인지도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4b), 2023년 콘텐츠기업 금융환경조사

제3절 시사점

1. 콘텐츠 IP금융 고도화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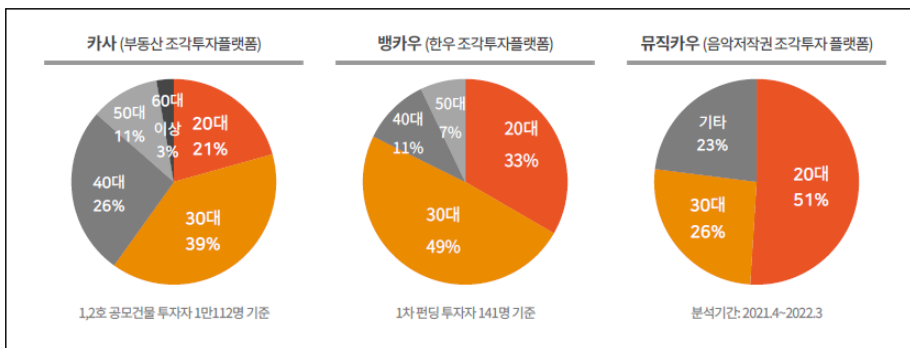
가.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기존 IP금융 방식의 한계

-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산업 구조가 정립되며 플랫폼의 유망 IP 선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축소와 자본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
 -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의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콘텐츠 IP의 플랫폼 귀속은 증가하였고, 플랫폼과 연계한 IP 제작이 기업 경영성과에 핵심요인이 되었음
 - 플랫폼은 구독자가 일정하고 수익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작사와 수익공유가 불필요하여 플랫폼 중심의 구조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제작사의 IP 권리가 플랫폼에 귀속되는 플랫폼 중심의 구조에서는 재무적 투자자 등 투자자본의 수익성이 낮아져 투자 축소로 이어짐
 - 결과적으로 콘텐츠 IP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IP 거래가 활성화되었지만, 콘텐츠 IP를 활용한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국내 콘텐츠산업의 환경을 고려할 때, 재무적 투자자와 같은 다양한 산업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IP금융 수단의 고도화가 필요함
 - 플랫폼 중심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제작사의 유망 IP 보유와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재무적 투자자와 같은 다양한 산업자본의 유입으로 가능함(홍무궁 외, 2023)
 - IP보증, IP대출 등이 중심인 현재의 IP금융은 정책금융 중심의 구조로, 콘텐츠 산업이 고도화되고 산업화되어 IP를 활용한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기존 IP금융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민간 중심의 고도화 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나. 콘텐츠 IP 유동화를 통한 새로운 콘텐츠 IP금융 시장의 등장

- 콘텐츠 IP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하는 조각투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증권 발행 등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어, IP금융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임
 -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를 비롯해 저작권(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조각투자 서비스가 앞 다투어 출시되었음
 -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저작권 조각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부 규제가 풀리며, 콘텐츠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콘텐츠 조각투자 부상의 배경은 무형자산 거래 관련 기술의 발전을 꼽을 수 있음
 -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물 자산을 분할하는 동시에 자금조달 과정을 효율화 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조각투자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관심이 증가하였음(삼일PwC경영연구원, 2024)
 - 더 나아가,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이하 STO)을 활용한 개인투자 서비스도 콘텐츠 분야에서 적용이 시도되고 있음
-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수요 증가도 콘텐츠 IP금융 및 조각투자 증가의 배경임
 -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IP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의 등장으로 크라우드펀딩 및 개인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MZ세대가 이러한 투자 참여를 이끔
 - 이들은 자산과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어 고액투자는 어렵지만 고위험 고수익 투자와 가치 소비에 적극적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콘텐츠 조각투자에 참여하고 있음

[그림 2-8] 국내 주요 조각투자 플랫폼 이용자 연령대별 비중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2024), 조각투자의 이해 및 STO(토큰증권 발행) 시장 전망.

2. 콘텐츠 IP금융 고도화의 방향성

가. 간접금융의 한계와 직접금융 중심의 구조 전환 필요

- 콘텐츠 IP를 통한 가치창출이 산업의 주요한 성공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콘텐츠 IP 금융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비단 콘텐츠산업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전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
- 콘텐츠 IP금융 시장은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로 형성되었으며, IP 평가에 기반한 보증, 대출과 같은 간접금융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음
 - 금융시장은 크게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하는 주식, 채권 발행 등을 직접금융,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매개로 거래하는 금융방식을 간접금융이라 함
 - 직접금융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초기 비용과 위험도가 높은 반면, 간접금융은 높은 안정성과 함께 금융사 등 전문기관이 중개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중개자 비용이 높다는 단점도 존재함
 - 직접금융 시장은 기업의 규모와 업력 등의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도와 담보가 낮아 대규모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은 주로 간접금융을 활용하며,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은 콘텐츠산업의 IP금융은 간접금융 중심임 (최종일 외, 2006)
 - 일반적으로 금융환경이 고도화될수록 직접금융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콘텐츠 IP금융 환경에서는 간접금융에서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잔존하여 효과성이 낮음
 - 중개자인 금융기관은 기업 신용정보 등을 근거로 거래 상대의 위험도를 파악하며, 이에 따라 간접금융은 직접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비용과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그러나 흥행과 연계된 불확실한 현금흐름, 복잡한 권리구조로 인해 콘텐츠 IP의 가치를 평가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음

- 높은 비용에 비해, 주로 소액 중심으로 거래되는 콘텐츠기업 대상의 보증, 대출 규모가 작아 금융기관의 수익은 낮은 상황임(이지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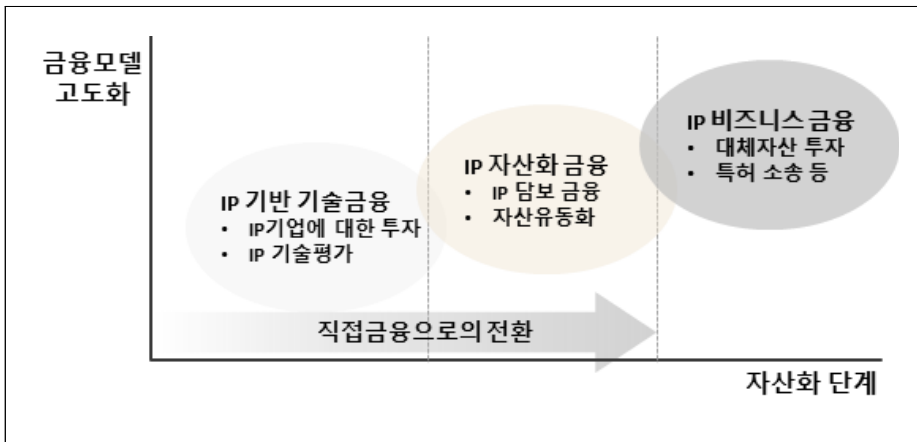
〈표 2-13〉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구분	직접금융	간접금융
개념	- 자금을 공급하는 측과 자금을 수요하는 측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	- 자금을 공급하는 측과 자금을 수요하는 측이 금융 기관을 매개로 거래하는 방식
사례	- 주식, 채권 발행 등	- 대출, 보증 등
장점	- 자금수요자의 신용도에 따라 규모가 큰 자금 조달이 가능 -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을 통한 정보 비대칭 보완 - 높은 안정성과 신뢰도
단점	-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큼 - 자금 확보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높은 중개자 비용 - 콘텐츠산업 등 특정 산업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 잔존

- 공급자 중심의 IP금융 환경에서 간접금융의 낮은 효과성은 콘텐츠 IP금융 활성화 및 콘텐츠산업 자금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은행, 보증기관 등의 금융기관은 콘텐츠기업 및 IP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보 및 신용 중심의 자금공급을 선호할 수 있으며, IP 가치를 기초로 하는 IP금융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콘텐츠 IP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콘텐츠산업의 구조를 생각한다면, IP금융의 활성화는 콘텐츠산업 자금조달에 핵심 포인트임
- 콘텐츠 IP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기존의 간접금융에서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 직접금융 중심의 전환이 요구되어짐
 - 간접금융 중심 IP금융의 한계점과 직접금융으로의 전환 필요성은 다양한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IP금융시장이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이지언, 2021)

- 직접금융으로의 전환은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콘텐츠 IP의 활용을 높이는 동시에 콘텐츠 IP금융이 자산화 금융 단계로 고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현재의 콘텐츠 IP금융은 IP 자체의 가치보다는 기술력과 사업화 역량에 중점을 두는 IP 기반 기술금융 단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IP 자산화 단계는 낮은 상태임
 - 콘텐츠 IP금융 인프라가 IP 자산화 금융 단계로 고도화된다면, 원천 IP의 가치에 기반한 금융수단이 다양해지고, 영세규모의 콘텐츠기업의 자본 접근도 용이해질 것임

[그림 2-9] 콘텐츠 IP금융 고도화의 방향성



나. IP 유동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접근 필요

- 직접금융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하여 큰 규모의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지만 위험도가 높아 영세규모의 콘텐츠기업이 개별 단위로 자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 대표적인 직접금융 방식인 상장을 통한 주식 발행은 상장과정에서 기업의 규모와 업력 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공시와 회계 등 유지비용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기업의 상장 비율은 매우 낮음

- 벤처투자 시장으로 넓혀본다면, 콘텐츠 IP펀드는 IP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어 IP 자산화 측면에서 활용도가 낮음
 -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IP펀드를 비롯해 콘텐츠 IP펀드는 콘텐츠 IP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등 IP 기반 기술금융 단계에서 주로 투자가 발생하고 있음
 - 투자 시장에서 콘텐츠 IP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기초로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자산화 금융 단계의 사례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IP의 창출과 활용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면서 효과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한 IP금융 수단으로서 IP 유동화가 주목받고 있음
 - IP를 포함한 자산의 유동화는 자산보유자가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이런 증권은 SPC가 매입한 매수채권의 추신을 통해서 변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이며, 자산보유자의 신용에 주시할 필요가 없음(최승재 외, 2022)
 - 이로 인해 IP를 보유한 기업이 영세하거나 저작자와 같은 개인이더라도, 또한 개별 IP의 가치가 부족해도 이를 집단화(Pooling)하여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앞서 언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형태가 대표적인 사례임
- IP 유동화는 투자자 입장에서 자산보유자의 도산 위험과 분리되며, 자산보유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채무 부담이 없으며, 투자자층을 쉽게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콘텐츠산업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꼽히는 콘텐츠기업의 낮은 신용도와 높은 위험성과 분리된다는 측면에서 콘텐츠 IP의 가치에 기반한 자금조달이 가능함
 -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상 추가적인 채무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관투자자를 유도함으로써 자금조달 비용을 인하할 수 있음
 - 또한 최근에는 투자플랫폼을 중심으로 직접금융의 단점인 정보 비대칭성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어, 개인투자자 등 투자자층이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산업에서의 IP 유동화가 여러 차례 시도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와 미비한 제도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임
 - 1997년 약 300여 곡의 노래를 담보로 10년 기한의 채권을 발행한 David Bowie의 'Bowie Bond', 음악 저작권 기반의 '뮤직카우' 등 콘텐츠 저작권을 유동화한 사례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는 증권법, 저작권법 등 여러 법령에 따른 규제로 인하여 콘텐츠 IP 유동화와 관련된 논란과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IP금융 고도화의 수단으로써 IP 유동화의 구조, 주요 사례, 산업적 수요, 정책 수요를 살펴보고, IP 유동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 연구 : IP 유동화를 중심으로

제3장

콘텐츠 IP 유동화 사례 분석

제1절 IP 유동화의 개념과 특징

1. 자산유동화의 정의 및 유형

가. 자산유동화의 정의와 IP 유동화

-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이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정의됨
 - 발행된 증권의 원리금 상환이 발행기관의 신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산보유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특수목적법인, 자산관리자 및 수탁기관 등이 발행과정에 참여함(최승재 외, 2022)
 - 국내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은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되었고, 주택저당증권, 신용카드매출채권, 회사채, 부실채권 등의 대상자산을 유동화하면서 발전되어 옴
- 최근, 금융기법의 진화, 새로운 구조 및 자산 활용 등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고 있으며, 콘텐츠 IP의 유동화가 가능한 법적 환경이 조성됨
 - 2024년 1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동화 대상자산이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확장함(금융위원회, 2023)

〈표 3-1〉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기존	개정안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장래 발생 채권, 지식재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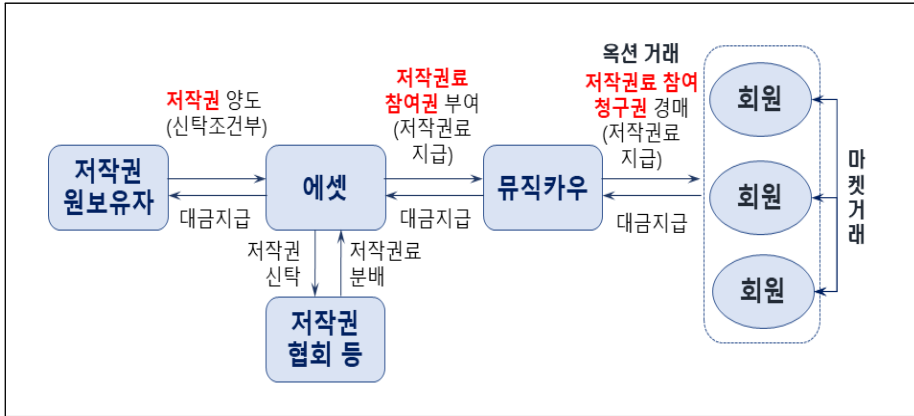
나. IP 유동화의 제도화 과정 및 특징

- 전통적인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이외에 조각투자 성격의 신종증권도 자산유동화의 한 유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토큰증권의 발행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음
 - 투자대상인 기초자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투자자 모집 및 증권 발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각투자의 영역인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일부 토큰증권의 경우도 자산유동화로 이해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IP 유동화의 신규 유형으로서 조각투자과 발행형태의 한 종류인 토큰증권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제도화 과정과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1) 조각투자

- 조각투자는 시장에서 먼저 등장한 이후 사후 규제가 발생한 경우로, 부동산, 음악 저작권, 미술품, 한우 등을 거래하는 플랫폼들이 등장함
 - 일반적인 ABS 발행과 조각투자는 대상 자산의 차원에서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ABS가 동일한 군내의 다양한 자산을 풀링함으로써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원천에서의 분산이 가능한 반면, 조각투자는 하나의 자산을 대상으로 유동화가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음
- 2016년 4월 ‘뮤지코인’으로 설립된 뮤직카우는 경매 방식으로 ‘음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구입하는 운영의 형태였음
 - 창작자로부터 음악저작권 일부를 양도받아 조각투자 공모를 하며 투자자들은 지분율에 따라 저작권을 소유한 뮤직카우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익을 매월 배당으로 수취함

[그림 3-1] 음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기반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4.20.)

- 2022년 4월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어떤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
 -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함
- 이에 따라 뮤직카우의 음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되어 조건부 제제결정을 받음
 - 금융위원회는 음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자본시장법 상 증권은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뮤직카우는 조건부 제제의 해제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을 요구 받았는데, 투자자의 권리 및 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탁,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이 포함됨

- 2022년 9월 뮤직카우는 금융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구조 개편 요구를 이행하여 최종 제재면제 결정을 받았으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재개하였음
- 2022년 11월 미술품 조각투자의 증권성도 인정하면서, 플랫폼인 테사(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도 조건부 제재 및 사업재편이 결정됨

〈표 3-2〉 뮤직카우 사업재편 조건 이행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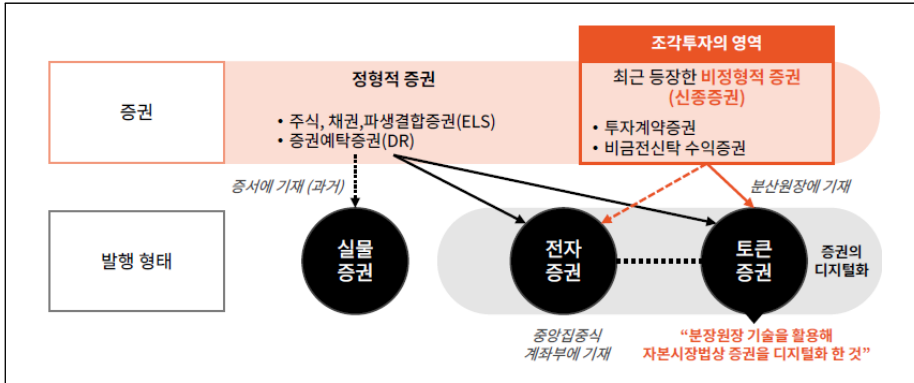
① 투자자 재산을 사업자 자산위험과 절연	→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전환
② 투자자 예치금을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예치	→ 투자자 명의 키움증권 계좌에 예치
③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 전산설비 확보 등 확인
④ 설명자료·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 교부	→ 공시규정·증권신고서 양식 사용, 금투업자 수준의 광고기준 등
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고, 이해상충방지체계와 시장감시체계를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통시장 운영 허용	→ 내부통제기준·시장감시규정·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마련, 사무공간 분리, 정보교류 차단 등
⑥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 이행완료에 확인시까지 신규 모집·광고 불가	→ 신규 모집·광고 집행 없었음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11.29.)

- 이후, 「신탁업 혁신방안」을 통해 비금전재산 신탁에 대해서도 혁신서비스 지정 권의 경우 신탁업자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였으며, 거래소 내 신종증권 시장 시범개설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함
- 한국거래소 신종증권시장에 조각투자(비금전신탁수익증권¹⁾) 상품을 주식처럼 장내 상장시킬 수 있는 구조임
- 그러나 까다로운 상장 요건²⁾으로 인해 한국거래소 신종증권시장에 상장 심사를 청구한 조각투자 업체가 없어 시장 개설은 지연된 상태임

1) 민법상 미술품과 같은 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려면 해당 동산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미술품 등의 투자계약증권은 장내 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
2) 회사 자기자본 20억 원 이상, 상장하는 상품 금액 30억 원 이상

[그림 3-2]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분류와 조각투자자의 영역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2024)

-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발행과 유통이 모두 가능하고 신탁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투자계약증권에 비해 안정성이 높으며, 뮤직카우를 비롯해 여러 콘텐츠 조각투자 기업이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신청함
 -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명품, 미술품 등의 조각투자 증권이 이에 해당함
 -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비금전 기반 재산을 타인에게 운용을 맡겨 수익을 받을 권리가 표시된 증권으로서 음악의 뮤직카우가 대표 사례임

〈표 3-3〉 신종증권의 유형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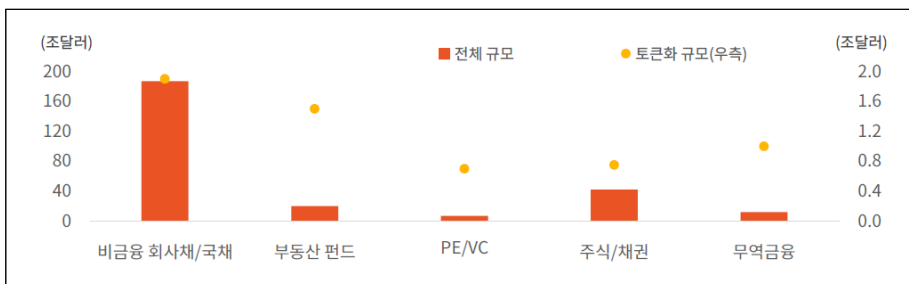
구분	특징	주요 사례
신탁수익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을 통한 - 2차 유통 가능 - 공모규모가 큼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직카우(음악) -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부동산) - 에이판다(부동산 금전채권)
투자계약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지분 형태의 상품 - 2차 유통 불가 - 공모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매컴퍼니, 아트투게더, 테사(미술품) - 뱅카우(한우)

- 금융위원회는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요건 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신탁수익증권 대상 자산의 기본요건을 규정함
 - 1) 객관적인 가치측정 및 평가가 가능해야 하며, 2)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아니어야 하며, 3) 기초자산의 처분이 용이하며,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하며, 4) 기초자산은 복수재산의 집합(pooling)이 아닌 단일한 자산이어야 하며,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5)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되어야 함
 - 특히, 객관적 가치평가의 인정을 관계법령에 해당자산에 대한 평가원칙 및 방식이 존재하거나, 법령 등에 의거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가치평가 주체(예 :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의 존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토큰증권

-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 한 발행형태의 종류로서 조각투자 증권발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음
 -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그림, 고급시계, 명품, 주식, 채권, 부동산)등을 토큰화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구조임(삼일PwC경영연구원, 2024)
 - 2030년에는 토큰증권 자산이 글로벌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거의 모든 실물자산과 IP를 토큰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음

[그림 3-3]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 규모 전망(2030년)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2024)

-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6일 발표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이하 STO)을 허용함
 -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가상자산과는 구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며,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과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정의하였음
 -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의 전자증권 발행으로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소액공모 확대,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함
 -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토큰증권이 투자의 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기초자산의 속성이 무엇인지가 중요함을 내포하고 있음
- 정부의 토큰증권 정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토큰증권 제도화는 지연되고 있음
 -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531)은 비정형증권 유통 허용, 장외거래중개업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전자증권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533)은 분산원장 수용,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토큰증권의 제도화는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비교적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상장 주식시장 외에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높음
 - 토큰증권은 탈중앙화가 특징인 분산원장이 기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 발행인도 직접 증권을 전자등록·관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
 - 또한,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IP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주식 상장이 어려운 무형자산 중심의 중소기업 자금조달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임

2. 자산유동화 대상으로서의 콘텐츠 IP

- 자산유동화의 기초자산인 유동화 대상 자산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경우에 적합하며, 콘텐츠 IP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콘텐츠 IP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매각) 내지 신탁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자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자산보유자의 재무 상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최승재 외, 2022)
- 저작권은 다른 IP에 비해 현금흐름의 변동이 심하지 않는 안정적 기초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어, 콘텐츠 IP는 주로 저작권 중심의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저작권은 특허권 등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미래의 현금흐름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창작에 의해 취득된 권리로 그 권리가 부인될 위험이 낮아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음(최승재 외, 2022)

〈표 3-4〉 유동화 자산으로서의 적격성

구분	현금흐름 예측 가능성	권리 부인 가능성	진부화 가능성
저작권	Neutral	Mild Positive	Neutral
특허권	Neutral	Neutral	Mild Negative
실용신안권	Strong Negative	Strong Negative	Strong Negative
디자인권	Mild Negative	Mild Negative	Strong Negative
상표권	Mild Positive	Strong Positive	Mild Positive

자료: 최승재 외(2022)

- 콘텐츠 IP를 활용한 자산유동화는 이미 제작이 완료되어 수익이 창출되고 현금흐름 추정이 비교적 용이한 음악과 영화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음
 - 음악 및 영화 IP는 전통적인 ABS의 발행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음
 -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 증가로 음악 저작권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음악 저작권 ABS 발행이 증가하고 있음
 - 미래의 현금 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사업 초기 매출규모가 미미하지만 대규모 현금유입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자금조달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 다음 절에서는 국가별 콘텐츠 IP 유동화 사례를 분석하여 특징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국내 콘텐츠 IP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콘텐츠기업이 사용 가능한 자산유동화 유형 중 자산유동화증권(ABS), 조각투자, 토큰증권발행(STO)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
 -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조각투자는 미국 및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제도화 이전인 토큰증권발행(STO)은 미국, 싱가포르, 독일, 한국의 사례를 정리함

제2절 콘텐츠 IP 유동화의 유형별 사례

1. 콘텐츠 IP ABS

가. 미국

1) 1990년대~2000년대

① 음악 저작권 유동화

- 1997년 세계 최초로 David Bowie는 25개 앨범의 카탈로그³⁾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반으로 이자율 7.9%, 만기 10년, 5,500만 달러의 ABS를 발행하였음(이현진, 2016)
 - 해당 채권은 EMI Group이 매년 저작권 사용료의 최저지불액을 보증하는 신용 보강을 제공함에 따라, Moody's에서 A3를 받았고, Prudential Insurance Company가 총액 인수함
 - 앨범 판매는 감소하고 온라인 음악과 파일을 공유하는 형태로 음악시장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2004년 Bowie Bond의 등급이 투기등급 바로 위인 Baa3로 하락함
 - 최종적으로는 채무불이행 없이 2007년 만기 상환되었음
- Bowie Bond의 등장 이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Moton Record, Ashford & Simpson, James Brown, Marvin Gaye 등의 음악 저작권이 유동화 되었음

3) 음악 카탈로그(music catalogs)는 특정 아티스트, 레이블, 출판사가 소유한 모든 음악 저작물의 모음으로 이해할 수 있음

② 영화 유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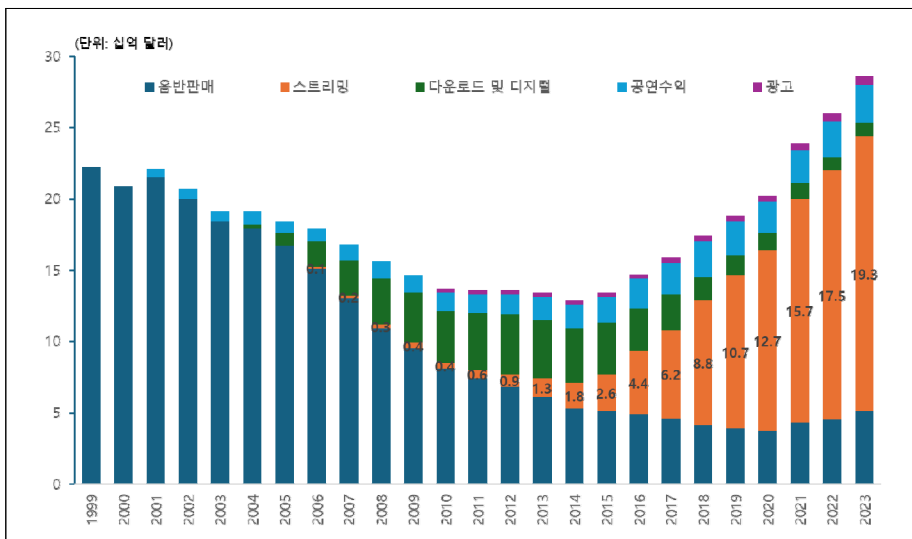
- 1990년대 중반 이후, 특정한 영화 제작사의 영화포트폴리오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이 발행된 사례가 존재하며, 2000년대 중반까지 유사한 형식의 ABS가 발행됨(이현진, 이성민, 2016; Tempkin, 2011.11.5)
- 영화 분야의 경우, 이미 개봉한 영화를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한 Miramax와 향후 제작할 영화의 장래 수익과 판권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한 DreamWorks 사례가 대표적임
- 2002년 DreamWorks는 신탁 방식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유동화를 진행하였는데, 안정적인 1순위 수익권은 투자자에게, 2순위 수익권은 자산보유자가 보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영화 개봉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미래의 영화수익과 배급권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영화 흥행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이후 슬레이트 파이낸싱(slate financing) 구조가 널리 사용됨
 - 슬레이트 파이낸싱은 Ambac, MBIA 등의 채권보증업체를 사용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슬레이트 파이낸싱도 신용등급하락과 등급철회 등의 난항을 겪게 됨
- 2011년 11월 Miramax는 영화 라이선스 관련 기존 계약의 모든 현금흐름을 기초로 ABS를 발행하였고, 2차 유통시장의 수익을 포함하였음(Tempkin, 2011.11.5)
 - 현금흐름에는 TV, 디지털, DVD/블루레이 등 영화의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미래 라이선싱 및 유통 관련 수익이 포함됨
 - 2011년 5월 Miramax의 모회사인 Filmyard Holdings는 2011년 5월 넷플릭스와 700여 편의 영화를 5년간 제공하고 1억 달러 이상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현진, 2016)
- 그러나 영화 ABS의 경우 영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제작사가 영화의 지속적인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마케팅 비용 등)를 통제할 수 있고 ABS 발행 이후 ABS 투자자와 제작사의 유인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점차 인기를 잃게 됨(DLP Piper, 2016.3.2)

2) 2020년대 음악저작권 ABS

① 음악 저작권 ABS 발행 부활의 배경

- 음반산업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이 급증하면서, 음악 저작권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인식됨
 - IFPI의 ‘글로벌 음악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규모는 2020년 127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193억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또한 2023년 전세계 음반산업 매출 중 스트리밍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67.3%로 음반판매(17.8%), 공연수익(9.5%), 다운로드 및 디지털(3.2%)에 비해 가장 비중이 높음(IFPI, 2024)

[그림 3-4] 글로벌 음반산업 부문별 매출 추이



자료: IFPI(2024), Global Music Report 2024

- 이러한 음악산업 수익구조의 변화로 대규모 자본을 확보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관심이 큰 KKR, Blackstone 등 사모펀드의 음악 저작권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음악 저작권 ABS도 다시 발행되기 시작함
 - Northleaf Capital(2021), KKR(2021), Blackstone(2022), HarbourView Equity Partners(2024) 등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음악 저작권 ABS 발행사례가 존재함

② 사모펀드 KKR의 음악 저작권 ABS 발행 사례⁴⁾

- 글로벌 투자회사 KKR은 수년간 음악,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기업 등 아티스트 중심의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있음
- KKR은 미국 투자자문사 Dundee Partners LLP와 함께 62,000건 이상의 음악 퍼블리싱 저작권을 보유한 KMR Music Royalties II(포트폴리오)를 음악 저작권 투자자문회사인 Kobalt Capital Limited로부터 2021년 10월 11억 달러에 매입함(Aswad, 2021.10.19.)
 - Kobalt는 아티스트, 작곡가, 출판사 및 레이블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상위 100개 노래와 앨범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
 - KKR은 Dundee Partners와 함께 플랫폼 'Chord Music Partners'를 설립하고 음악 저작권을 Chord에 귀속하였음
- 이어 KKR의 자회사인 KKR Credit Advisors (US) LLC (KCA)는 2022년 음악 로열티 유동화증권(Hi-Fi Music IP Issue II 2022-1)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함(Leong, 2022.2.8.)
 - KCA가 발행한 ABS는 40년 만기(2062년), 3.939% 이자율, 분기별 이자지급, 단일 트랜치로 발행되었으며,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음
 - 카탈로그의 수입에는 출판 로열티, 사운드 녹음 로열티, 아티스트 선금금 회수 등이 포함되었으며, 독립적인 제3자 평가 회사로는 음악산업 컨설팅 법인인 'Massarsky Consulting⁵⁾'이 카탈로그의 가치를 11억 2,700만 달러로 평가하였고, 신용평가기관 KBRA는 해당 채권에 A등급을 부여함
 - ABS 발행으로 조달된 금액은 Kobalt에 대한 KKR의 11억 달러 투자금액 중 일부 자금지불에 사용됨
 - Hi-Fi Music IP Issue II 2022-1는 빈 증권거래소(Wiener Börse)의 채권시장 플랫폼인 Vienna MTF에 상장되어 있음

4) Donna M.Mitchell(2022.2.7.), Hi-Fi Music IP Issuer, 2022-1, plans to release \$732.5 million in ABS

5) Massarsky Consulting은 두 명의 평가 전문가인 Barry Massarsky와 Nari Matsuura가 운영하는 음악 카탈로그 평가 전문 회사로 30년의 평가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2021년 한해에만 300건 이상(65억 달러 가치)의 음악 자산을 평가하였으며, 2022년 Citrin Cooperman에 인수되어 두 전문가가 동일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음(MBW, 2022)

③ 사모펀드 Blackstone의 음악 저작권 ABS 발행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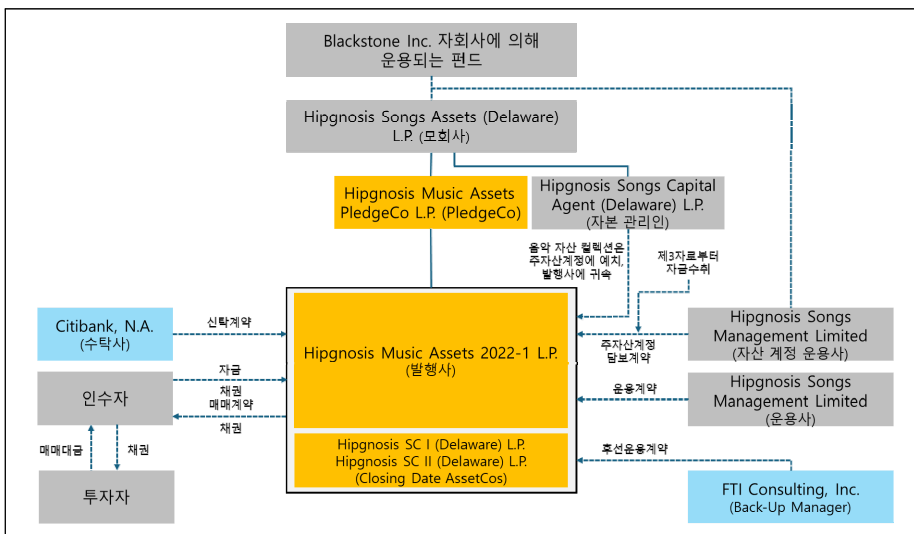
-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Blackstone은 2021년 Hipgnosis Songs Fund에 투자하면서 음악 저작권 시장에 참여함
- Hipgnosis Songs Fund는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는 영국 최초의 투자신탁회사로, 2018년 7월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s)에 상장됨
 - 음악산업 전문가이자 Elton John, Beyonce 등의 아티스트 매니저였던 Merck Mercuriadis가 설립한 Hipgnosis Songs Fund는 Blondie, Chic, Neil Young, Dua Lipa, Harry Styles, Khalid의 곡을 비롯한 노래 65,413개, 글로벌 차트 1위곡 3,854개, 그래미 수상곡 156개를 보유함
 - 2018년 조성된 Hipgnosis Songs Fund는 저금리 기조 상황에서 채권과 유사한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음악에 투자하는 펀드임
 - 2020년 3월부터는 Hipgnosis Songs Fund는 런던 증권거래소의 FTSE 250 (중형) 인덱스에 포함되었고,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더 많은 음악 카탈로그를 매입하면서 성장함
- Blackstone은 2021년 Hipgnosis Songs Fund에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Hipgnosis Song Management의 지분을 대량 매입하였고, Hipgnosis Songs Fund와 별도로 10억 달러의 펀드를 통해 Hipgnosis Songs Capital을 만들어 음악 저작권 투자를 실행함
- 2022년 8월 Hipgnosis Songs Capital이 음악 저작권을 담보로 2.22억 달러, 6% 이자율의 ABS를 발행(Hipgnosis Music Assets 2022-1 L.P.)⁶⁾
 - 담보로 사용된 음악 카탈로그에는 Justin Timberlake, Nelly Furtado, Leonord Cohen 등의 유명 가수 및 작곡가의 총 950개 곡이 포함됨
 - 로열티 채널은 음반 판매, 디지털 다운로드, 스트리밍, 공연, 광고, 라디오, 영화/TV 등이 해당됨
 - 신용보강은 초과담보(가치의 35% 초과담보), 이자준비금 계정(6개월치 이자), 유동성 준비금 계정(12개월분), 초과현금흐름(이자율+수수료 보다 높은 할인율

6) KBRA(2022), Hipgnosis Music Assets 2022-1 L.P. Pre-Sale Report.

7% 적용) 등으로 이루어짐

- 카탈로그 가치는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⁷⁾이 약 40년간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산정하였으며, 평가 결과 자산의 가치는 3.41억 달러로 분석되었고, 카탈로그의 가치는 매년 재평가됨
- ABS에 대한 신용평가는 채권신용평가기관인 KBRA가 담당하였으며, Hipgnosis Music Assets 2022-1 L.P.의 최종 신용등급은 A-로 제시함

[그림 3-5] Hipgnosis Music Assets 2022-1 L.P.의 구조



자료: KBRA, Hipgnosis Music Assets 2022-1 L.P. Pre-sale Report

나. 한국

- 2014년 호프집 와바(WABAR) 브랜드를 보유한 외식업체 (주)인토외식산업이 상표권을 유동화한 사례가 있음
 - 산업은행은 와바 브랜드 등의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 채권 및 신용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하여 3년 만기 55억 원 자금을 조달함

7) KBRA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Hipgnosis Songs Fund의 순자산가치는 Massarsky Consulting(현재 Citrin Cooperman)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ABS의 가치평가 역시 Massarsky Consulting가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특허청 산하 IP가치평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가 상표권 가치를 평가하여 유동화대출 담보로 인정하였음
- 2012년 CJ E&M은 영화 등의 저작권을 담보로 1,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함
 -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은 5년 만기로 1,5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산업은행을 비롯해 다수의 은행 및 보험사가 참여함
 - CJ E&M이 향후 5년간 제작하는 모든 영화의 저작물에 대한 수익권을 갖게 되며,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발매 음반, 게임 등은 선택적인 구조인데, CJ E&M은 만기 1년 6개월을 앞두고 조기상환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음
- 정부의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모태펀드 특허계정에서 200억 원 규모의 IP유동화증권 투자펀드를 조성해 SLB 로열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사례도 있음
-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ABS를 발행한 국내 사례는 매우 적는데, 법제도적 환경의 미비와 미국 등에 비해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됨

2. 콘텐츠 IP 조각투자

가. 미국

- 미국은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을 제정하여 증권 발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S-1)를 제출해야 하지만, 발행공시의무가 면제되는 사모(Regulation. D), 소액공모(Regulation A), 크라우드펀딩(Regulation CF) 등의 조항이 조각 투자에서 활용되고 있음(김갑래, 2021; 천창민, 2015)
 - Regulation D(Reg. D)는 발행자가 각종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판매하는 사모발행에 적용되는 규정임
 - Regulation A(Reg. A)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되는 소액공모에 적용되는데, 자금조달 규모에 따라 Tier 1과 Tier 2로 구분하며, Tier 2에서 일반투자자는 발행건별로 연 수입 또는 순자산에 따라 투자한도가 정해짐
 - Regulation CF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음

〈표 3-5〉 미국의 발행공시의무 면제 조항

	Reg. D 506(b)	Reg. D 506(c)	Reg. A Tier 1	Reg. A Tier 2	Reg. CF
SEC제출서류	Form D	Form D	Form1-A	Form1-A	FormC
발행금액한도 (12개월내)	없음	없음	2,000만달러	7,500만달러	500만달러
적격투자자 이외의 투자자	숙련된 투자자 35인까지	불허용	허용	조건부허용	조건부허용
일반적 청약의 권유	불허용	허용	허용	허용	제한적허용
유통제한	제한주식	제한주식	제한주식아님	제한주식아님	12개월 재판매 금지
계속공시의무	X	X	X	자금조달 후 발생	-

자료: 김갑래(2021), 삼일PwC경영연구원(2014)

①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플랫폼 SongVest⁸⁾

- 2007년 설립된 SongVest는 음악 저작권의 일부를 팬들에게 경매하는 플랫폼으로 시작했으나 초기 시스템은 2013년 12월 폐쇄하고 2020년 음악 저작권 수입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재개함
- SongVest의 음악 로열티 증권(royalty share unit)인 ‘SongShares’는 2021년 10월 미국 SEC로부터 음악 저작권 투자에 대한 승인을 최초로 취득하였음
 - ‘SongShares’는 미국 증권법상 Regulation A Tier 2에 따라 소액공모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가능함
 - SongVest 웹사이트에서는 해당 증권의 과거 3년간의 저작권 수입을 출처별(예: Apple, Spotify, YouTube 등)로 공개하고 있음
 - 투자자는 VIP(Verify Interest of Participation) 옵션에 참여해 음악 로열티 증권의 단위당 최종 가격을 정한 후, ‘SongShares’가 SEC의 승인을 취득하면 VIP Sale 기간에 증권을 구매하게 되고, 해당 기간 이후에 잔여 증권은 공개 판매됨
 - ‘SongShares’ 투자자는 보유한 지분만큼 분기별로 저작권 수입을 받게 되며, 개인 대시보드를 통해 구매 현황 뿐 아니라 음악 저작권 수입 및 분기별 지급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SongShares’에 대한 유통시장은 존재하지 않아, 투자자는 보유한 ‘SongShares’를 거래할 수는 없는 구조임
- ‘SongShares’는 가상자산이나 NFT의 형태로 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거래는 ‘Tezos 블록체인’으로 거래된다는 특징이 있음

②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플랫폼 JKBX⁹⁾

- 작곡가와 음반 아티스트가 음악 저작권지분인 ‘Royalty Shares’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음악투자플랫폼 JKBX(Jukebox)는 미국 SEC의 승인을 받아 2024년 3월 6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하였음

8) <https://www.songvest.com/>

9) <https://www.jkbx.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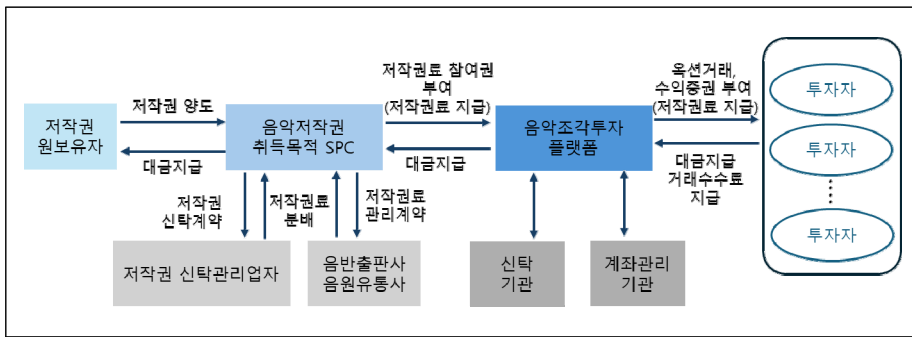
- JKBX는 영국 사모펀드 Dundee Partners가 2022년 설립한 플랫폼으로 Spotify, Red Light Management, Bertelsmann Digital Musi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함
- JKBX 플랫폼은 2023년 6월 SEC에 승인을 신청하였고, 2024년 3월 'Royalty Shares'가 SEC의 자격을 획득함
- JKBX의 'Royalty Shares'은 SEC에 등록된 증권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는 직접 공모(direct public offering)로, Regulation A Tier 2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참여 가능함
- Regulation A에 따라 투자설명서(offering circular)를 SEC에 제출한 'Royalty Shares'는 'JKBX Hits Vol.1 LLC'로 시리즈로 발행되는 형태임
- 현재는 투자자가 매입한 'Royalty Shares'를 거래할 수는 없지만, 향후 금융산업 규제당국(FINRA)에 등록한 서비스를 이용해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저작권지분의 2차 판매(secondary sales of Royalty Shares)를 계획하고 있음

나. 한국

- 현재 콘텐츠산업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신종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각투자를 영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사례는 뮤직카우 한 곳이기 때문에, 뮤직카우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
- 뮤직카우는 재산권과 인접권을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아 음악 수익증권의 형태로 제 공하는데, 기존 음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으로 발행되던 것을 수익증권 형태로 전환 발행하는 구조임
 - 음악 수익증권은 음악 재산권과 인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입을 구매 한 지분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법상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해당함
- 뮤직카우의 음악 수익증권은 크게 1) 저작권 선매입, 2) 가치평가를 통한 가격 산정, 3) 유통으로 구분됨

- (저작권 선매입) 회사사 뮤직카우에셋이 창작자로부터 양도계약을 통해 저작권 일부를 매입¹⁰⁾하면, 뮤직카우는 공모대상 지분의 전부를 선매입하고 공모를 진행함
- (가치평가를 통한 가격 산정) 저작권 데이터 기반으로 개발한 자체 가치평가 모형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산정함
- (유통) 공모 후 전자증권의 등록 및 입고, 계좌등록 과정을 거쳐 거래 등록이 완료되는데, 투자자들은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신탁수익증권을 매매할 수 있음

[그림 3-6] 음악조각투자플랫폼(뮤직카우)의 사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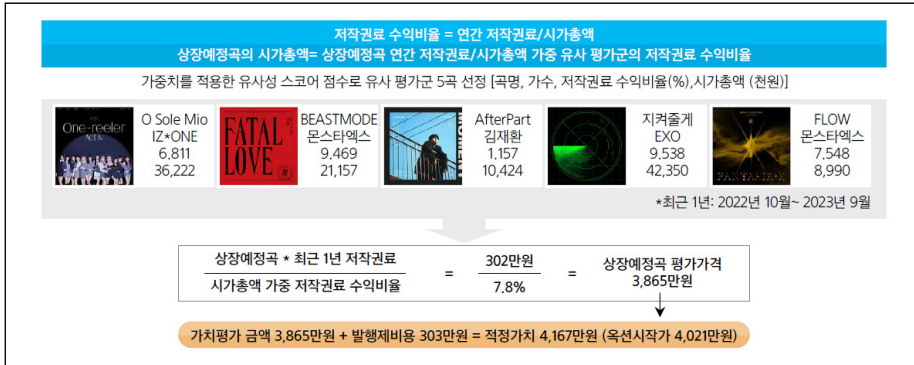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삼일PwC경영연구원 등 수정

- 뮤직카우는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저작권료 수익 비율이라는 새로운 가치평가 방식을 개발함(이경자 외, 2024)
 - 과거 1년간 실제 발생한 저작권료를 기반으로 계산한 수익률로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거래 중인 음원의 시가를 기반으로 신규 상장곡의 발행가를 추정함
 - 수익증권의 기초자산과 유사한 저작권료 패턴을 보이는 유사 평가군 5곡으로부터 도출한 것이 저작권료 수익비율이며, 이 과정을 거쳐 산정된 가치에 발행비용을 더해 공모가가 산출됨(이경자 외, 2024)

10) 저작권재산권의 매각 주체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며 저작권은 분할이 가능하여 모든 주체와 협의할 필요가 없어 소유 주체 중 일부와 협상하는 형태로 매매 진행. 저작인접권의 매각 주체는 주로 제작사

[그림 3-7] 뮤직카우의 신규 상장곡 발행가 추정 방식



자료: 이경자 외(2024), 대체투자-STO ②: 새로운 금융, 토큰증권

- 자산유동화법 개정 이후 음악 저작권을 기초로 한 수익증권은 총 20회 발행(2024년 7월 31일 기준)된 것으로 확인됨
 - 저작권별로는 재산권관리처분신탁이 12회, 인접권관리처분신탁이 8회 발행되었음
 - 평균잔존만기는 재산권관리처분신탁이 176년, 인접권관리처분신탁이 57.9년 정도로, 저작재산권은 원작자 사후 70년, 인접권은 음원 발매일 다음 해부터 70년 간이라는 저작재산권과 인접권의 보호기간 차이에 기인함

<표 3-6>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된 음악저작권 유통화 현황

저작권 구분	발행기관	발행횟수	발행금액	평균잔존만기
재산권관리처분신탁	키움증권	12회	19.9백만원~207백만원	176년
인접권관리처분신탁	하나은행	8회	24백만원~234백만원	57.9년

자료: SEIBro(유동화증권 중 신탁수익증권 종목의 발행)

- 뮤직카우가 공모한 음악 수익증권의 참여율은 음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수익 배당률 역시 곡의 흥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음
 - 뮤직카우가 발행한 20개의 음악 수익증권 중 목표 공모수량을 초과 달성한 증권은 8개이며, 공모 참여율은 14%~145%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증권 발행 후 배당하는 음원 저작권 수익 역시 곡과 기간에 따라 변동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음악 수익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배당수익 외에 증권 판매를 통한 구매가와 판매가의 차이으로 추가 손익이 발생할 수 있음

〈표 3-7〉 음악 수익증권의 수익 변화

신탁재산	2024.5		2024.6		아티스트
	당기순이익 (증권당 분배금)	배당수익률 (액면가액 대비)	당기순이익 (증권당 분배금)	배당수익률 (액면가액 대비)	
ANL 음악 수익증권	24,182원 (9원)	0.60%	897,034원 (312원)	20.86%	NCT DREAM
한여름밤의꿈 음악 수익증권	224,017원 (60원)	2.04%	245,905원 (66원)	2.25%	San E, 레이나

3. 콘텐츠 IP 토큰증권

가. 미국

- 토큰증권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미국에서는 조각투자에서 활용한 것과 동일한 사모 또는 공모면제 제도를 활용하여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
- 미국의 대표적인 토큰증권 거래소로는 tZERO, INX, Securitize Market 등이 있으며, 이중 INX ONE에 콘텐츠 IP와 관련된 토큰증권인 'Advent Token'이 2022년 10월 상장되었음
 - Advent Token은 Advent Entertainment가 제작한 할리우드영화, TV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사운드트랙, 관련 상품 등 미래 영화의 흥행과 머천다이징의 잠재적인 미래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최초의 디지털 증권으로, Regulation D 506(c)에 따라 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가 가능함
 - Advent 토큰 보유자는 보유자가 초기 토큰 가격의 125% 또는 달러당 1.25달러를 반환받을 때까지 이익에 대한 80/20(보유자/회사) 분할 받을 수 있으며, 보유자는 회사의 할당된 10% 지분의 비례 배분된 부분과 지속적인 로열티로 회사 이익의 10% 지분을 받음

[그림 3-8] INX에 상장된 Advent Entertainment 토큰증권



자료: INX 웹사이트

- Advent Token 보유자는 이미 제작 완료된 영화(Spiderman, Iron Man, Thor, The Hulk, Black Panther, Captain America) 뿐 아니라 Advent Entertainment가 제작하는 작품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Advent'라는 IP의 TV시리즈 및 비디오 게임 제작은 이러한 자금조달 구조를 활용함

나.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017년 싱가포르 통화청(MAS)에서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토큰증권 관련 규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함(삼일PwC경영연구원, 2024)
 - 토큰증권이 증권선물법상 증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규제 대상이 되며, 발행자는 투자설명서 발급, 등록, 자본시장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자금세탁방지, 테러 자금조달방지 등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함
 - 그러나 소액 모집, 사모발행, 기관투자자/적격투자자만을 모집대상으로 하는 경우 투자설명서 등의 규제가 면제 가능함
 - 개인적격 투자자 기준은 연소득 3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이거나 1백만 싱가포르달러의 순금융자산, 200만 싱가포르 달러의 순자산, 기업 적격투자자 기준은 1,0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순자산 또는 회사 전체 자본을 적격 투자자 1인 이상이 소유하는 등의 조건이 있음
- 다양한 토큰증권 거래플랫폼이 등장하고 기존 금융시스템 내에 있던 기관들도 토큰증권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화하고 있음
 - 2019년 ADDX(구 lstoX)를 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지정했고, 2020년 최초의 토큰증권 유통 플랫폼으로 정식 인가하였음
 - 2021년 ST플랫폼 인베스타X를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했으며, 2022년 체계적인 ST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가디언을 발표함
 - 싱가포르거래소(SGX)는 2020년 디지털 채권 발행 시작, 2021년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과 마켓노드(Marketnode)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채권과 펀드의 토큰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인프라를 제공함

- 싱가포르 개발은행(DBS)는 디지털 거래소(DDEX)를 설립하여 공인 시장 운영자(RMO) 라이선스를 취득, 일부 디지털 결제토큰(DPT)거래, 자산유동화형 토큰증권 발행 서비스 등을 진행함
- 싱가포르 토큰증권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접근이 어렵지만, 투자대상의 지역적 범위가 싱가포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특징도 존재함

다. 독일

- 2019년 독일 연방정부는 블록체인 전략을 발표해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증권 발행도 허용하면서 전자증권법(Gesetz über elektronische Wertpapiere: eWpG)이 제정되어 2021년 6월 시행됨(법무법인 세종, 2023)
- 콘텐츠 IP와 관련해서는 360X Music AG가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와 협력해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는 음악 로열티 규제 토큰증권을 발행하였음(Pathe, 2022.12.4)
 - 360X는 음악, 예술,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 자산 클래스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 보안 토큰을 호스팅하는 발행 및 유통시장으로 Deutsche Börse와 Commerzbank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 처음 발행된 음악 토큰증권에는 GEMA가 영화 음악 작곡가 Hans Günter Wagener로부터 수집한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음
 - 해당증권은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규제를 받는 360X에서 거래가능하며, 독일 내 한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짐

라. 한국

- 법제화 지연으로 국내에서의 콘텐츠 IP 토큰증권 발행 사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금전선택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현재의 조각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시장이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음
- 이미 증권사를 중심으로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과 토큰증권 협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확장 가능성으로 인해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도 증가하고 있음

- KB증권은 콘텐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펀더풀, 미술품 조각투자사인 서울옥션블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계좌관리 등 토큰증권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미래에셋증권 역시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고컴퍼니, 링거스튜디오를 비롯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을 보유한 열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맺음
-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인 카사를 인수하며 적극적으로 토큰증권 시장에 뛰어 들고 있음
-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블록체인 기술 기업, 기초자산 실물평가사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토큰증권 사업 본격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삼일PwC경영연구원, 2024)

〈표 3-8〉 증권사 및 콘텐츠 조각투자 기업 제휴 현황

증권사	콘텐츠 조각투자 기업	주요 내용
미래에셋증권	링거스튜디오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 링거스튜디오와 업무협약 체결
	핀고컴퍼니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 핀고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업무협약 체결
	서울옥션블루	미술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업무협약 체결
KB증권	펀더풀	콘텐츠 전문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으로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옥션블루	미술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계좌관리 관련 업무협약 체결
NH투자증권	투게더아트	미술품 조각투자 기업으로 투자계약 증권 발행업무 관련 업무협약 체결
하나증권	웹툰을	웹툰 기반 IP 수익권 거래 플랫폼 기업으로, 수익증권 발행 관련 업무협약 체결
키움증권	뮤직카우	음악 수익증권 발행 및 거래 지원,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서는 키움증권 계좌 필요
	테사	미술품 조각투자 기업으로 실명계좌 제공 서비스 도입 등 제휴

- 토큰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국내 조각투자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싱가포르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국내에 비해 먼저 시장이 조성되고 비교적 제도가 간소한 싱가포르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바른손랩스, 펀더풀 등 콘텐츠기업과 싱가포르의 STO 플랫폼 간 업무협약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뮤직카우는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ST기반 음악저작권 투자플랫폼 서비스 베타버전을 서비스할 계획임
- 특히, 음악 뿐 아니라 영화, 방송 등 기존 콘텐츠 조각투자에서 주로 거래되지 않은 장르가 기초자산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 다만, 권리화된 콘텐츠 IP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제작 중인 콘텐츠 프로젝트도 투자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존 IP 유동화 방식과 차이가 있음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의 싱가포르 MOU 사례〉

- “K-콘텐츠 해외투자 유치 기회 넓힌다” 펀더풀 'IX SWAP'과 맞손”(이데일리, 2023.11.8.)
- 증권형 토큰(STO) 플랫폼 '아이엑스 스왑(IX SWAP)'과 K-콘텐츠 투자 접근성 개선 및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아이엑스 스왑(IX SWAP)은 싱가포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STO 플랫폼

〈콘텐츠 STO 플랫폼 바른손랩스의 싱가포르 진출 사례〉

- “바른손 토큰증권(STO) 거래 시장 개화...영화 STO 글로벌 상장 추진”(서울경제, 2023.12.4.)
- 블록체인 기술 기업 EQBR홀딩스와 협약을 통해 영화 콘텐츠를 기초 자산으로 싱가포르 STO 거래소인 SDAX에 거래를 추진

〈콘텐츠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미국 진출 사례〉

- “뮤직카우, 美 진출 속도...ST 기반 서비스 베타버전 하반기 론칭”(전자신문, 2024.07.09.)
- 2022년 미국 법인을 설립하며 미국 음악저작권 투자플랫폼 서비스를 밝힘
 - 하반기 미국에서 ST 기반 음악 저작권 서비스 베타버전을 선보일 예정

제3절 시사점

1. 유동화 대상자산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콘텐츠 IP

- 음악 저작권은 안정적인 장기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하여 미국 및 한국에서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동화증권 발행사례가 존재함
 - 미국 음악 산업에서는 2000년대 전후 음악 저작권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ABS 발행사례가 다수 등장하였고, 최근 수익구조가 스트리밍 중심으로 진화하면서 음악 저작권이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
 - 한국에서는 콘텐츠 IP 및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 발행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음악저작권의 경우 유동화 대상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영화 산업의 경우 2000년대 전후 2차 유통시장 수익까지 포함한 ABS 발행사례가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ABS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사례는 찾기 어려움
- 음악 저작권 외의 콘텐츠 자산이 유동화 증권 발행의 기초자산으로서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 IP는 흥행여부에 따라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원에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콘텐츠 IP의 경우 ABS 발행 뿐 아니라, 조각 투자의 형식의 유동화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

2. 다양한 유동화 구조의 활용 가능성

- 전통적인 ABS 발행, 조각투자, 토큰증권 등의 사례를 감안할 때 콘텐츠 IP의 유동화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 미국은 음악 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와 조각투자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사례도 존재함
 - 한국은 음악 저작권을 중심으로 하는 조각투자 시장은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고, 자산유동화법의 개정으로 IP 유동화증권 발행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도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IP 유동화 수단 도입에 대한 업계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토큰증권의 경우 음악 저작권 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발행되어 복잡한 IP를 보유한 콘텐츠산업에서의 잠재적인 활용 가능성을 보여줌
 - ABS와 조각투자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음악 저작권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 토큰증권은 대상 자산을 국한하지 않고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토큰증권은 제작 완료되어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콘텐츠 IP 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 자금 확보를 위한 발행도 가능해, 콘텐츠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
 - 다만 한국 토큰증권 법제화의 지연으로 토큰증권이 국내 콘텐츠기업의 IP금융에 활용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3.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 형성 움직임

- 주요 국가들은 제도적 규제를 활용해 토큰증권 참여자를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제한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음
 - 싱가포르는 기관투자자 혹은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을 모집할 경우 여러 규제의 면제가 가능하며, 미국은 증권 성격에 따라 일정 자격에만 부여되는 적각투자자에 한해 토큰증권 투자가 가능함

- 반면,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자산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개인투자자의 유입을 막고 있는 추세임
- IP 조각투자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유통을 허용한 국외사례가 많지 않아 개인투자자 간 IP의 권리를 거래하는 유통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음
 - 콘텐츠 IP 조각투자 플랫폼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미국은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유통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해당 증권(지분)을 투자자간 거래하거나 2차 판매하는 사례가 거의 없음
 - 미국의 금융당국도 현재 콘텐츠 IP 조각투자의 유통시장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임
- 이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콘텐츠 IP 유통화 방법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 시장으로 시스템의 불안정화와 담보되지 않는 안정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음
 - 국내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과 증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시장 형성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다만, 개인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처로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관련된 투자규모가 증가하는 등 국내 조각투자 시장은 정부 규제 속에서도 시장 수요에 의해 발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그러나 사모펀드, 기관투자자, 적격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 면제를 통해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의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하여 선도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전문투자자 중심의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있음
 - 최근 여러 국내 토큰증권 플랫폼이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사례가 있어,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관련 자본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됨

4. 전문적 콘텐츠 가치평가의 필요성

- 콘텐츠 IP 가치평가를 위해 자체 평가 모델 개발 및 외부 전문기관 육성을 통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가 필요함을 확인함
 - 2020년 이후 사모펀드의 주도하에 발행되는 미국 음악저작권 ABS의 경우 수십 년간 음악 저작권 평가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외부의 독립적인 저작권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을 뿐 아니라, 음악 저작권 ABS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획득하고 있음
 - 미국 조각투자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경우도 발행기업이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가치평가 방식에 특화를 보여주는 등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음
- 콘텐츠 가치평가는 전문 지식 보유 및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전문기관 확대 및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평가 트랙 레코드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한국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가치에 기반한 대출, 투자 등 자금조달에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 가치평가 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 저변을 확대하고 있음
 - 반면 콘텐츠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가치평가센터 이외에는 민간 평가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IP금융을 실행하는 당사자들이 가치평가를 실행하고 있어,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하는 자금조달 확대를 위해서는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 연구 : IP 유동화를 중심으로

제4장

콘텐츠기업 및 전문가 의견조사

제1절 콘텐츠기업 조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및 대상

-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및 인식을 살피고, IP금융 고도화 방안에 대한 수요를 도출하기 콘텐츠기업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 콘텐츠 IP와 제작 중 콘텐츠를 활용한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정책금융 다각화 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조사 대상은 2024년 현재 콘텐츠기업에 종사 중인 관계자로 설정함
 - IP 기반 자금조달 유인이 있는 만화/웹툰, 음악, 게임, 영상콘텐츠(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관계자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 콘텐츠기업의 IP 활용 역량이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기업과 그 외 기업을 기준으로 표본을 설계함
- 설문조사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11일간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을 중단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0개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함

〈표 4-1〉 콘텐츠기업 인식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콘텐츠기업 종사자 * 장르: 만화·웹툰, 음악, 영상콘텐츠(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유효 응답 수	• 50개
진행 기간	• 2024년 7월 22일 ~ 8월 2일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나. 조사 내용

- 조사 문항은 응답자 개인과 종사 중인 기업 정보, 자금조달 현황 및 인식 전반,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 인식 및 수요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구성함
- 먼저, 응답자 개인의 직위를 포함해 대표 장르, 설립연도, 상시 근로자수, 연 평균 매출액 등 기업의 기초정보 파악을 위한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가 IP 기반 자금조달 방안 및 정책금융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 중인 IP 건수 조사 문항을 포괄함
- 두 번째로, 자금조달 현황 및 인식 관련 문항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함
 - 지난 3년간 투자유치 경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주체 및 투자 유형, 투자유치 과정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 조사 문항을 제시했으며, 투자자 주체 및 투자유치의 경우,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 각각의 응답을 구별해 살필 수 있도록 설계함
 - 지난 3년 간 외부 자금조달 경험 여부와 자금조달 유형 파악을 위한 문항을 제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유 IP를 활용한 자금조달 성공 경험이 있는지 함께 조사함으로써 IP 기반 자금조달 확대방안의 가능성을 진단함
 - 콘텐츠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체감하는 한계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무엇으로 인식하는지 조사함
- 세 번째로,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전반을 살피는 것을 목표로 조사문항을 제시함
 - IP 기반 자금조달 방안이 확대될 경우, 콘텐츠산업 내 자금조달 용이성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사업영역(장르) 내 IP 기반 자금조달 적용 가능성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제시함
 - 제작 중인 콘텐츠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이 확대될 경우, 자금조달 용이성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업 인식을 함께 조사함
 - 마지막으로, IP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 기업의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문항을 제시함

〈표 4-2〉 콘텐츠기업 인식 조사 내용

구분	내용
기업 및 응답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직위 • 대표 장르 • 설립연도 • 상시 근로자수 • 연 평균 매출액(최근 1년) • IP 보유 건수
자금조달 현황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3년간 투자 유치 경험 • 투자자 주체 및 투자 유형 • 투자 유치 애로사항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3년 간 외부 자금조달 경험 • 자금조달 유형 • 보유 IP 기반 자금조달 성공 여부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 자금조달 활성화 위한 선결 과제
IP 활용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 예측 • IP 활용 자금조달 용이성 긍정/부정 예측 이유 •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 적용가능성 진단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중 콘텐츠 활용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 예측 • 제작 중 콘텐츠 활용 자금조달 용이성 긍정/부정 예측 이유 • 제작 중 콘텐츠 활용 자금조달 방안 적용가능성 진단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활용 자금조달 활성화 위한 선결 과제

2. 조사 결과

가. 응답자 정보

- 조사 참여 기업의 대표 장르를 살펴보면, 영상콘텐츠기업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게임(28%), 만화/웹툰(18%), 음악(10%) 순으로 뒤를 이음
- 상시 근로자 수의 경우, 50인 이상인 기업이 16%, 5~50인 미만인 기업이 48%, 5인 미만 기업이 36%로 대다수의 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 비중이 42%로 가장 높고, 5~10년 미만 기업 비중은 32%, 5년 미만의 신생 기업은 26%를 차지함

〈표 4-3〉 응답 기업 정보

구분		빈도	비율(%)
대표 장르	영상	22	44.0
	만화/웹툰	9	18.0
	게임	14	28.0
	음악	5	10.0
연평균 매출	10억 원 미만	25	50.0
	10억 원 이상	25	50.0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18	36.0
	5~50인 미만	24	48.0
	50인 이상	8	16.0
업력 (설립연도 기준)	1년 이하	2	4.0
	2~5년 미만	11	22.0
	5~10년 미만	16	32.0
	10년 이상	21	42.0

주) 전체(N) = 50

- 조사 참여 기업 중 90%가 1건 이상의 IP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 조사 참여 기업의 IP 보유 여부

구분		빈도	비율(%)
IP 보유 여부	없음	5	10.0
	있음	45	90.0

주) 전체(N) = 50

- 기업의 IP 보유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건 미만 보유하고 있는 기업 비중이 34%로 가장 높고, 5~10건 미만(22%), 10~30건 미만(18%), 50건 이상(14%), 30~50건 미만(2%)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 음악 장르 기업의 경우, IP를 50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며, 영상, 만화/웹툰, 게임 장르 기업의 경우, 1~5건 미만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룸
 - 기업의 연평균 매출에 따른 IP 보유 건수 차이를 살펴보면, 10억 원 미만인 기업의 과반 이상이 보유한 IP가 없거나(16%), 1~5건 미만 보유 중(52%)이라고 응답한 반면, 10억 원 이상 기업에게서는 5~10건 미만, 10~30건, 50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20%대에서 고르게 나타남

〈표 4-5〉 대표 장르 및 연매출 규모별 IP 보유 건수

(단위: %)

구분		없음	있음				
			1~5건 미만	5~10건 미만	10~30건 미만	30~50건 미만	50건 이상
전체		10.0	34.0	22.0	18.0	2.0	14.0
대표 장르	영상	9.1	31.8	31.8	18.2	0.0	9.1
	만화/웹툰	0.0	33.3	11.1	33.3	11.1	11.1
	게임	21.4	42.9	14.3	14.3	0.0	7.1
	음악	0.0	20.0	20.0	0.0	0.0	60.0
연평균 매출	10억 원 미만	16.0	52.0	16.0	12.0	0.0	4.0
	10억 원 이상	4.0	16.0	28.0	24.0	4.0	24.0

주) 전체(N) = 50

나. 자금조달 현황 및 인식

1) 투자 유치 경험

- 최근 3년간(2021년 7월~2024년 7월) 피투자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50%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응답했고 18%는 실패했다고 응답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2%를 차지함
 - 피투자 경험 비율이 높은 장르는 만화-웹툰(66.7%), 영상(59.1%), 음악(40%), 게임(28.6%) 순으로 집계됨

- 연평균 매출이 10억 원 미만인 기업(40%)보다 10억 원 이상인 기업(60%) 집단에게서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IP를 보유한 기업의 55.6%는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응답하였으나, 보유한 IP가 없는 기업은 피투자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 최근 3년간 투자 받은 경험

(단위: %)

구분		빈도	투자유치에 성공	투자유치를 시도했으나 실패	투자유치 시도 없음
전체		50	50.0	18.0	32.0
대표 장르	영상	22	59.1	13.6	27.3
	만화/웹툰	9	66.7	11.1	22.2
	게임	14	28.6	28.6	42.9
	음악	5	40.0	20.0	40.0
연평균 매출	10억 원 미만	25	40.0	24.0	36.0
	10억 원 이상	25	60.0	12.0	28.0
IP 보유 건수	없음	5	0.0	40.0	60.0
	있음	45	55.6	15.6	28.9

주) 전체(N) = 50

- 투자 유치 성공기업(n=25)을 대상으로, 투자자 주체와 투자 유형을 조사한 결과,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6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투자 주체를 금융·투자업종 외 기업(36%), 스타트업 투자자(32%), 개인투자자(32%)로 특정한 응답 비율은 30%대로 집계됨
- 투자자별 투자유형을 살펴보면, 스타트업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에게서는 지분 투자를, 그 외 투자자로부터는 프로젝트 투자를 받았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확인함

〈표 4-7〉 투자 유치 성공기업의 투자자 주체별 투자유형(복수응답)

(단위: %)

구분	해당 투자자로부터 피투자 경험 있음			없음
	지분투자	프로젝트 투자	계	
벤처캐피탈(VC)	28.0	36.0	64.0	48.0
스타트업 투자자	20.0	12.0	32.0	68.0
정부보증기관	0	28.0	28.0	72.0
금융회사, 은행	8.0	12.0	20.0	80.0
금융, 투자업종 외 기업	16.0	20.0	36.0	64.0
개인투자자	20.0	12.0	32.0	68.0
클라우드펀딩 등 플랫폼	0	8.0	8.0	92.0
기타	0	4.0	4.0	96.0

주) 투자 유치 성공 기업(n) = 25

- 한편, 투자유치 실패 기업(n=9)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시도한 대상, 즉 투자자 주체를 조사한 결과, 벤처캐피탈을 꼽은 응답 비율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여타 투자자를 꼽은 비율은 30%대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

〈표 4-8〉 투자 유치 실패 기업의 투자자 주체(복수응답)

(단위: %)

투자 주체	비율(%)
벤처캐피탈(VC)	44.4
스타트업 투자자	33.3
정부보증기관	33.3
금융회사, 은행	33.3
개인투자자	33.3
금융, 투자업종 외 기업	11.1

주) 투자 유치 실패 기업(n) = 9

-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투자자가 요구하는 투자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항목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추진 프로젝트 및 보유 IP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의 어려움’(20%), ‘투자자 설득을 위한 자료작성(IR자료, 재무현황 등) 어려움’(18%)이 뒤를 이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애로사항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할 경우, ‘추진 프로젝트 및 보유 IP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의 어려움’ 항목 응답비율(48%)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9〉 투자 유치 시 애로사항

애로사항	1순위	1+2순위 (복수응답)
투자사 정보가 없어서 접촉하기 어려움	12.0	20.0
투자자가 요구하는 투자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26.0	38.0
추진 프로젝트 및 보유 IP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의 어려움	20.0	48.0
투자 유치까지의 복잡한 절차와 기간	14.0	32.0
투자자 설득을 위한 자료작성(IR자료/ 재무현황 등) 어려움	18.0	40.0
투자자의 경영활동 간섭	8.0	16.0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적음	2.0	2.0

주) 전체(N) = 50

2) 외부 자금조달 현황

- 최근 3년간(2021년 7월~2024년 7월) 외부¹¹⁾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있는 지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N=50)의 52%가 외부 자금조달에 성공했다고 응답했으며, 조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응답은 4%, 조달을 시도한 적 없다는 응답은 44%를 차지함
 - 이러한 응답 경향은 전 장르 기업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며, 연평균 매출에 따른 응답 차이 역시 두드러지지 않음
- 단, IP 보유 기업의 경우, 외부 자금조달에 성공했다는 응답이 55.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IP 미보유 기업은 20% 수준의 낮은 응답 비율이 나타남
 - 표본 수가 크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IP 미보유 기업의 경우, 외부 자금조달 시도가 없었다는 응답이 80%를 차지한다는 점도 특이점으로 꼽을 수 있음
 - 외부 자금조달에 성공한 콘텐츠기업 중 IP 미보유 기업은 단 한 곳에 그침
 - 기업 입장에서 외부 자금조달 시도의 동인이자 조달 가능성 예측요인으로서 보유한 IP 여부가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11) 조사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조사에서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이 의미하는 바와 범위를 조사페이지에 안내 사항으로 명시함(외부차입금: 기업이 경영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자금 가운데 금융기관 차입금, 회사채, 사채 등과 같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말함. 단, 투자, 주식발행, 지원 사업금에 의한 자금조달은 제외)

〈표 4-10〉 외부로부터 자금조달 경험

구분		빈도	외부 자금조달에 성공	외부 자금조달을 시도했으나 실패	외부 자금조달 시도 없음
전체		50	52.0	4.0	44.0
대표 장르	영상	22	54.5	9.1	36.4
	만화/웹툰	9	55.6	0.0	44.4
	게임	14	50.0	0.0	50.0
	음악	5	40.0	0.0	60.0
연평균 매출	10억 원 미만	25	52.0	0.0	48.0
	10억 원 이상	25	52.0	8.0	40.0
IP 보유 건수	없음	5	20.0	0.0	80.0
	있음	45	55.6	4.4	40.0

주) 전체(N) = 50

- 외부 자금조달 경험이 있는 기업(n=26)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유형을 조사한 결과, 보증대출이 76.9%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며 담보대출(26.9%)과 신용대출(23.1%)을 통해 조달했다는 응답은 20%대로 집계됨
 - 신보, 기보, 지역보증재단 등의 보증서에 의한 대출 비중이 높다는 특징은 영상 콘텐츠, 만화-웹툰, 게임 장르 영역에서 고르게 나타남

〈표 4-11〉 외부 자금조달 유형(복수응답)

(단위: %)

구분		빈도	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대출*	인보증대출	기타**
전체		26	26.9	23.1	76.9	3.8	19.2
대표 장르	영상	12	41.7	16.7	83.3	8.3	8.3
	만화/웹툰	5	0.0	20.0	80.0	0.0	20.0
	게임	7	14.3	42.9	71.4	0.0	42.9
	음악	2	50.0	0.0	50.0	0.0	0.0
연평균 매출	10억 원 미만	13	23.1	15.4	84.6	0.0	15.4
	10억 원 이상	13	30.8	30.8	69.2	7.7	23.1
IP 보유 건수	없음	1	100.0	100.0	100.0	0.0	100.0
	있음	25	24.0	20.0	76.0	4.0	16.0

주) 외부 자금조달 경험이 있는 기업(n) = 26

* 보증대출: 신보, 기보, 지역보증재단 등의 보증서에 의한 대출

** 기타: 기타 금융기관 또는 개인간 거래 등

- 외부 자금조달 경험이 있는 기업(n=26) 중 38.5%가 보유 IP를 활용해 자금 조달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61.5%는 관련 사례가 없다고 응답함
 - IP 보증과 IP 담보대출이 각각 19.2%,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2〉 IP 기반 자금조달 성공사례 경험(복수응답)

(단위: %)

구분		빈도	있음				없음
			IP 담보대출	IP 보증	IP 기반 채권	코스닥 상장	
전체		26	11.5	19.2	3.8	3.8	61.5
대표 장르	영상	12	25.0	16.7	8.3	0.0	50.0
	만화/웹툰	5	0.0	20.0	0.0	20.0	60.0
	게임	7	0.0	14.3	0.0	0.0	85.7
	음악	2	0.0	50.0	0.0	0.0	50.0
연평균 매출	10억 원 미만	13	23.1	23.1	0.0	0.0	53.8
	10억 원 이상	13	0.0	15.4	7.7	7.7	69.2
IP 보유 건수	없음	1	0.0	0.0	0.0	0.0	100.0
	있음	25	12.0	20.0	4.0	4.0	60.0

주) 외부 자금조달 경험이 있는 기업(n) = 26

- 한편, 콘텐츠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은 ‘콘텐츠 IP를 활용한 금융상품 부족’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콘텐츠 IP를 활용한 금융상품 부족’ 문제를 애로사항 1순위로 꼽은 비율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높은 대출 금리’(20%), ‘매출액 등 재무제표 중심의 심사’(16%) 문제 역시 자금조달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1순위와 2순위 응답 결과를 합치해 살펴보면 상기 세 항목의 응답비율이 30%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며, ‘금융기관의 콘텐츠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36%) 요소 역시 콘텐츠기업이 체감하는 또 다른 애로사항임을 알 수 있게 함

〈표 4-13〉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단위: %)

구분	1순위	1+2순위 (복수응답)
과도한 담보나 보증 요구	12.0	20.0
콘텐츠 IP를 활용한 금융상품 부족(콘텐츠 IP 담보 설정 등)	26.0	38.0
까다로운 대출 심사	12.0	26.0
인보증(당사자 또는 제2자 자연인의 보증) 요구	2.0	6.0
높은 대출 금리	20.0	34.0
매출액 등 재무제표 중심의 심사	16.0	36.0
금융기관의 콘텐츠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	12.0	36.0

주) 전체(N) = 50

3) 투자유치·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 콘텐츠기업의 투자유치 및 외부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IP 확보를 위한 제작 단계에서의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기회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순위 조사 결과 기준 30%, 1+2순위 합산 기준 48%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보유 IP 기반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자금조달을 위한 조건을 갖추는 일, 즉 IP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임
 - 한편, 정책펀드·정책보증 등 정책자금을 통한 투융자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남(1순위: 26%, 1+2순위: 44%)

〈표 4-14〉 콘텐츠기업 투자 유치 및 외부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단위: %)

구분	1순위	1+2순위 (복수응답)
보유 IP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법 확대(IP투자/ IP대출/ IP증권 등)	12.0	24.0
IP 확보를 위한 제작 단계에서의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기회 확대	30.0	48.0
정책펀드/ 정책보증 등 정책자금을 통한 투융자 지원 강화	26.0	44.0
개인이 참여하는 투자 플랫폼 활성화(뮤직카우/ 펀더풀 등)	4.0	6.0
투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투자지원 강화	16.0	40.0
콘텐츠 IP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평가 제도 구축	12.0	34.0

주) 전체(N) = 50

다. IP 활용 자금조달

1)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

- 조사 참여 기업(N=50)의 62%는 콘텐츠 IP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¹²⁾이 확대될 경우, 콘텐츠산업 내 자금조달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함
 - 전 장르 기업에게서 자금조달 용이성에 대한 긍정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연평균 매출 및 IP 보유 건수에 따른 차이 역시 나타나지 않음

〈표 4-15〉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 예측

(단위: %)

구분		빈도	자금조달 용이성		평균 (4점 척도)
			부정	긍정	
전체		50	38.0	62.0	2.72
대표 장르	영상	22	40.9	59.1	2.64
	만화/웹툰	9	33.3	66.7	3.00
	게임	14	35.7	64.3	2.64
	음악	5	40.0	60.0	2.80
연평균 매출	10억 원 미만	25	44.0	56.0	2.72
	10억 원 이상	25	32.0	68.0	2.72
IP 보유 건수	없음	5	40.0	60.0	2.80
	있음	45	37.8	62.2	2.71

주) 전체(N) = 50

- 관련 방안 확대 시, 콘텐츠 IP 기반 자금조달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한 기업(n=31)은 '보유 IP를 유동화하여 즉각적인 자금 수급에 도움이 되어서' 항목을 긍정 예측의 첫 번째 이유로 꼽았으며(35.5%),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19.4%), '신규 투자자를 손쉽게 모집할 수 있어서'(19.4%) 항목 선택 비율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남

12)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써 콘텐츠 IP 범위를 '연재된 웹툰/웹소설, 공개된 영화 및 드라마 등 이미 권리화 사업화가 이루어져 리메이크나 타 장르 콘텐츠로 제작이 가능하고 2차 사업화(굿즈 제작 등)로 확장이 가능한 IP'로 규정해 안내하였으며, 콘텐츠 IP를 활용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사례(예. 뮤직카우)를 조사 페이지에 제시

〈표 4-16〉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 ‘긍정’ 예측 이유

(단위: %)

구분	1순위	1+2순위 (복수응답)
신규 투자자를 손쉽게 모집할 수 있어서	19.4	35.5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어서	9.7	25.8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25.8	35.5
보유 IP를 유통화하여 즉각적인 자금수급에 도움이 되어서	35.5	61.3
대중적인 홍보효과를 통해 후속 투자유치 또는 지속적 자금조달을 기대할 수 있어서	9.7	41.9

주) 자금조달 용이성 긍정 예측 기업(n) = 31

- 반면, IP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은 기업(n=19)은 부정 예측의 첫 번째 이유로 ‘콘텐츠 IP 권리관계의 복잡성으로 실질적인 거래가 용이하지 않아서’(57.9%) 항목을 꼽았으며, 뒤를 이어 ‘콘텐츠 IP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26.3%) 요인을 선택함

〈표 4-17〉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 ‘부정’ 예측 이유

(단위: %)

구분	1순위	1+2순위 (복수응답)
콘텐츠 IP 권리관계의 복잡성으로 실질적인 거래가 용이하지 않아서	57.9	68.4
콘텐츠 IP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6.3	47.4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5.3	26.3
IP 권리를 분할하여 거래하지 않는 산업 구조로 인해서	10.5	26.3
자금조달 비용이 높고 효율적이지 않아서	0.0	15.8
기존 투자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서	0.0	10.5

주) 자금조달 용이성 부정 예측 기업(n) = 19

- 조사 참여 기업의 사업 영역(장르)에서 콘텐츠 IP 기반 자금조달 방안의 적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진단하는지 조사한 결과,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4%,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로 집계됨
 - 만화/웹툰(66.7%), 음악(80%) 장르 기업이 적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나 영상콘텐츠기업의 경우, 부정 응답 비율(54.4%)이 긍정 응답 비율(45.5%)을 상회함
 - IP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유 IP가 있는 기업 집단에게서 적용 가능성의 긍정·부정 응답 비율이 유사한 수준에서 나타나고(각각 51.1%, 48.9%), 보유 IP가 없는 기업의 긍정 응답 비율(80%)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4-18〉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적용 가능성

(단위: %)

구분		빈도	적용 가능성		평균점수 (4점 척도)
			부정	긍정	
전체		50	46.0	54.0	2.52
대표 장르	영상	22	54.5	45.5	2.41
	만화/웹툰	9	33.3	66.7	2.78
	게임	14	50.0	50.0	2.43
	음악	5	20.0	80.0	2.80
연평균 매출	10억 원 미만	25	44.0	56.0	2.56
	10억 원 이상	25	48.0	52.0	2.48
IP 보유 건수	없음	5	20.0	80.0	2.60
	있음	4	48.9	51.1	2.51

주) 전체(N) = 50

2) '제작 중인 콘텐츠 활용' 자금조달 방안

- 제작 중인 콘텐츠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¹³⁾에 대한 기업 인식을 조사

13) 본 조사에서는 '제작 중 콘텐츠'의 IP 범위를 가치평가가 가능한 제작 중인 콘텐츠로 정의하였으며, ① 시나리오가 있으며, 제작진 및 출연진 섭외가 완료된 영상콘텐츠, ② 기획된 컨셉이 있고 개발 진행 중인 게임 콘텐츠, ③ 선판매를 위한 초반 연재 분량이 있는 웹툰/웹소설, 연재 중인 웹툰/웹소설, ④ 기획된 컨셉이 있고, 제작 진행 중인 음악 앨범 등으로 사례를 제시

- 조사 참여 기업(N=50)의 78%가 제작 중인 콘텐츠 기반 자금조달 방안이 확대될 경우, 콘텐츠산업 내 자금조달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함
 - 전 장르에 걸쳐 콘텐츠기업들은 긍정적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연평균 매출 및 IP 보유 건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응답 양상을 보임
- 앞서 콘텐츠 IP 기반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62%로 집계되었는데 이보다 16%p 높은 수준임
 - 자금조달을 위한 자산이자 수단으로써 제작 중인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기업의 기대가 드러나는 대목임

〈표 4-19〉 제작 중인 콘텐츠 활용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 예측

(단위: %)

구분		빈도	자금조달 용이성		평균점수 (4점 척도)
			부정	긍정	
전체		50	22.0	78.0	2.82
대표 장르	영상	22	22.7	77.3	2.77
	만화/웹툰	9	22.2	77.8	3.00
	게임	14	28.6	71.4	2.71
	음악	5	0.0	100.0	3.00
연평균 매출	10억 원 미만	25	24.0	76.0	2.80
	10억 원 이상	25	20.0	80.0	2.84
IP 보유 건수	없음	5	40.0	60.0	2.40
	있음	45	20.0	80.0	2.87

주) 전체(N) = 50

- 자금조달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한 기업(n=39)에게 긍정 응답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규 투자자를 손쉽게 모집할 수 있어서’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이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뒤를 이어 ‘제작 중인 콘텐츠를 담보로 유동화하여 즉각적인 자금수급에 도움이 되어서’(23.1%),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20.5%)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20〉 제작 중인 콘텐츠 활용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 ‘긍정’ 예측 이유

(단위: %)

구분	1순위	1+2순위 (복수응답)
신규 투자자를 손쉽게 모집할 수 있어서	33.3	41.0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어서	10.3	23.1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20.5	30.8
제작 중인 콘텐츠를 담보로 유동화하여 즉각적인 자금수급에 도움이 되어서	23.1	53.8
대중적인 홍보효과를 통해 후속 투자유치 또는 지속적 자금조달을 기대할 수 있어서	12.8	48.7

주) 자금조달 용이성 긍정 예측 기업(n) = 39

-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은 기업(n=11)을 대상으로 부정 응답 이유를 조사한 결과, ‘IP 권리관계의 복잡성으로 실질적인 거래가 용이하지 않아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36.4%)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IP 권리를 분할하여 거래하지 않는 산업 구조로 인해서’, ‘자금조달 비용이 높고 효율적이지 않아서’에 대한 응답 비율은 18.2%로 동일함

〈표 4-21〉 제작 중인 콘텐츠 활용 자금조달 방안 확대 시, 자금조달 용이성 ‘부정’ 예측 이유

(단위: %)

구분	1순위	1+2순위 (복수응답)
IP 권리관계의 복잡성으로 실질적인 거래가 용이하지 않아서	36.4	54.5
제작 중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9.1	27.3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18.2	36.4
IP 권리를 분할하여 거래하지 않는 산업 구조로 인해서	18.2	63.6
자금조달 비용이 높고 효율적이지 않아서	18.2	18.2

주) 자금조달 용이성 부정 예측 기업(n) = 11

- 조사 참여 기업의 사업 영역(장르)에서 제작 중인 콘텐츠 기반 자금조달 방안의 적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N=50)의 64%가 적용 가능하다는 데 동의함
 - 적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진단하는 이러한 응답 경향은 전 장르 기업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며, 연평균 매출 규모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음
 - 단, 보유 IP 여부에 따른 응답 차이는 나타나는데 보유 IP가 있는 기업의 경우 적용 가능하다는 데 66.7%가 동의하는 반면, 보유 IP가 없는 기업의 긍정 응답 비율(40%)은 부정응답 비율(60%) 대비 낮게 나타남

〈표 4-22〉 제작 중인 콘텐츠 활용 자금조달 적용 가능성

(단위: %)

구분		빈도	적용 가능성		평균점수 (4점 척도)
			부정	긍정	
전체		50	36.0	64.0	2.70
대표 장르	영상	22	31.8	68.2	2.77
	만화/웹툰	9	33.3	66.7	2.78
	게임	14	50.0	50.0	2.43
	음악	5	20.0	80.0	3.00
연평균 매출	10억 원 미만	25	36.0	64.0	2.68
	10억 원 이상	25	36.0	64.0	2.72
IP 보유 건수	없음	5	60.0	40.0	2.20
	있음	45	33.3	66.7	2.76

주) 전체 응답자(N)=50

3) 콘텐츠 IP 기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 콘텐츠 IP를 활용한 투자, 대출, 증권 및 채권발행 등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표로 우선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콘텐츠 IP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제도의 도입’을 1순위 과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콘텐츠 IP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활성화’(22%), ‘콘텐츠 IP 거래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16%), ‘콘텐츠 IP 정책금융 규모 확대’(12%) 등을 주요 과제로 인식함

- 1·2·3순위 응답 비율을 합산해 살펴보면, 1순위 응답 기준 상위 4개의 항목과 동일하게 나타나 기업들이 인식하는 주요한 선결 과제임을 알 수 있으며, ‘콘텐츠 IP 정책금융 신규 제도 도입’(38%)에 대한 수요 역시 확인할 수 있음

〈표 4-23〉 콘텐츠 IP를 활용한 자금조달 활성화 위한 우선해결 과제

(단위: %)

구분	1순위	1+2+3순위 (복수응답)
콘텐츠 IP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제도의 도입	38.0	62.0
콘텐츠 IP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활성화	22.0	62.0
콘텐츠 IP 거래를 위한 법제도(저작권법/ 증권법 등)의 정비	16.0	46.0
콘텐츠 IP 신탁업체 지정 및 정부의 관리 감독	6.0	16.0
콘텐츠 IP 정책금융 규모 확대(IP 펀드/ IP 보증 등)	12.0	62.0
콘텐츠 IP 정책금융 신규 제도 도입	6.0	38.0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정책적 홍보 및 교육 강화	0.0	10.0
전문적인 콘텐츠 종사자의 참여 확대	0.0	4.0

주) 전체 응답자(N)=50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및 대상

- 본 연구는 IP 유동화 중심의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콘텐츠 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앞서 분석한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및 IP 유동화 방향성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진행함
- 조사 대상은 콘텐츠 IP펀드 운용 경험이 있는 VC, 금융권 전문가(IP 거래 플랫폼사, 증권사 등), IP금융 관련 공공기관(보증기관, 연구원 등)이며, 총 15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 간 조사를 진행함
- 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해 콘텐츠 IP 유동화에 대한 인식, IP를 활용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조화된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서면 답변의 형태로 응답지를 회수함

〈표 4-24〉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IP펀드 운용 VC, 금융권, IP금융 관련 공공기관 등 전문가 15인
진행 기간	2024년 7월 26일 ~ 8월 2일
조사 방법	온라인을 통한 서면 답변

나. 조사 내용

- 전문가 의견조사의 내용은 앞서 분석한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및 IP 유동화 방향성에 대한 내용 및 전문가 자문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함

- 먼저, 콘텐츠 IP 유동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IP 유동화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와 IP 유동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함
 - 또한 전문가가 인식하는 콘텐츠 장르별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도 조사함
- 다음으로 총 4개의 IP금융 고도화 방안의 필요성과 각 방안별 세부방향성에 대해 조사하여 앞서 분석한 문헌연구를 검증하고자 함
 - 각 방안별 필요성과 세부방향성에 대한 상세의견 및 기타의견을 추가 작성하도록 조사내용을 구성함

〈표 4-25〉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구분	내용
콘텐츠 IP 유동화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5점 척도) •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5점 척도) • 장르별*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5점 척도) <p>*게임, 만화/웹툰, 영상, 음악, 전시</p>
고도화 방안(안)	세부 방향성(5점 척도)
콘텐츠 전문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평가, 특허평가, 감정평가 등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기술평가, 특허평가, 감정평가 등의 타 분야 가치평가 인력을 중심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별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 • 제작이 완료되고 권리화사업화된 IP를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 모형이 고도화 될 필요가 있다.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인프라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조각투자, STO 등 IP 기반의 신규 금융방식은 전문투자자 및 VC를 우선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 조각투자, STO 등 IP 기반의 신규 금융방식은 개인투자자를 우선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콘텐츠산업에 특성에 맞는 저작권 조각투자, STO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다. •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작 중인 콘텐츠에 대한 증권발행 등 콘텐츠 IP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을 위한 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 등의 적극적인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 콘텐츠 IP의 증권형토큰발행(STO)을 제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을 적극적인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 증권사 등 기존 신탁업체가 콘텐츠 전문 저작권관리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과도한 가격 변동, 권리관계의 불투명성 등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IP 기반의 정책금융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운영중인 IP펀드, IP보증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콘텐츠 IP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IP 담보대출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콘텐츠 IP의 현금흐름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로열티 매출채권 보증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투자한 콘텐츠 IP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지원펀드를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조각투자 등을 통해 거래된 IP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를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콘텐츠 IP 유동화증권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2. 조사 결과

가. 콘텐츠 IP 유동화에 대한 인식

1)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 개인투자자 등 자금조달처 확대와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증가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 9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조사 결과, IP 유동화가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증가시킬 수단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개인투자자 등의 자금조달처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IP 유동화의 종류인 조각투자의 확산과 개인투자자 유입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반면, 국내 콘텐츠산업 내 해외자본 유입의 증가와 필요시 빠른 자금조달의 가능성은 IP 유동화를 통한 기대효과로서 낮게 나타남
 - 국내 콘텐츠산업 내 해외자본 유입의 증가는 기대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응답은 26.7%, 필요시 빠른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대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응답은 20.0%로 분석되었음

〈표 4-26〉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낮음	보통	높음	평균(점)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증가	-	6.7%	93.3%	4.00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의 절감	6.7%	53.3%	40.0%	3.40
국내 콘텐츠산업 내 해외자본 유입의 증가	26.7%	26.7%	46.7%	3.13
필요시 빠른 자금조달 가능	20.0%	33.3%	46.7%	3.27
개인투자자 등 자금조달처 확대	-	6.7%	93.3%	4.33
콘텐츠기업의 투명성 확대	6.7%	66.7%	26.7%	3.27

2)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합리적인 콘텐츠 IP의 가치평가 수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 합리적인 콘텐츠 IP의 가치평가 수단 부족이 이유라는 응답은 66.7%,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0%로 나타나 대부분의 전문가가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의 선결 과제로 합리적인 콘텐츠 IP 가치평가 수단의 확보를 꼽고 있음
 - 금융 및 콘텐츠 IP 관련 법제도 미비와 정책적 규제가 이유라는 응답도 각 60%로 조사되었으며, 저작권 등 콘텐츠 IP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서라는 응답도 60%로 나타남
- IP 유동화를 도입할 수 있는 산업적 구조가 아니어서와 다른 금융수단이 더욱 효과적이어서에 대한 동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 IP 유동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금융수단으로서의 낮은 매력보다는 관련 인프라의 부족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IP 유동화를 도입할 수 있는 산업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은 26.7%, 다른 금융수단이 더욱 효과적이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33.3%에 그침

〈표 4-27〉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구분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점)
금융 관련 법제도 미비와 정책적 규제 때문에	-	40.0%	60.0%	3.80
저작권 등 콘텐츠 IP 관련 법제도 미비와 정책적 규제 때문에	-	40.0%	60.0%	3.73
저작권 등 콘텐츠 IP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13.3%	26.7%	60.0%	3.60
IP 유동화를 도입할 수 있는 산업적 구조가 아니어서	33.3%	40.0%	26.7%	3.07
다른 금융수단이 더욱 효과적이어서	20.0%	46.7%	33.3%	3.13
투자 등 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아서	20.0%	26.7%	53.3%	3.33
콘텐츠 IP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부족해서	-	33.3%	66.7%	3.80

3) 장르별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

- 콘텐츠 장르별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음악과 만화/웹툰 분야가 가장 높은 적용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음악 86.7%, 만화/웹툰 80.0%, 게임 60.0% 순으로 나타남
- 영상(영화/방송/애니메이션)의 적용 가능성은 46.7%로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영상 콘텐츠의 경우, 출연진 등의 초상권 등 권리 다발로서의 저작권의 복잡성으로 인해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표 4-28〉 장르별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

장르	낮음	보통	높음	평균(점)
게임	13.3%	26.7%	60.0%	3.73
만화/웹툰	-	20.0%	80.0%	3.93
영상(영화/방송/애니메이션)	6.7%	46.7%	46.7%	3.53
음악	-	13.3%	86.7%	4.27

나.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의 방향성 검증

1) 콘텐츠 전문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

- 콘텐츠 전문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비교적 다수의 전문가가 콘텐츠 전문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명확한 IP 가치평가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는 기관투자자 및 사모 시장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자금조달처의 확대를 위해서는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임
- 세부 방향성을 보면, ‘제작이 완료되고 권리화·사업화된 IP를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 모형이 고도화 될 필요가 있다’의 동의 비중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문가들은 감정평가, 기술평가와 같이 콘텐츠 IP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치평가 모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 특히, 현재의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은 제작 중인 콘텐츠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IP의 현금흐름(관객수, 매출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별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동의여부가 66.7%, ‘기술평가, 특허평가, 감정평가 등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동의여부가 60.0%로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전문가들은 IP 가치평가의 신뢰성 측면에서 콘텐츠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 또한, 특허나 기술 IP와 같이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들이 민간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여 콘텐츠 가치평가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기술평가, 특허평가, 감정평가 등의 타 분야 가치평가 인력을 중심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의 동의여부는 46.7%에 그쳐 타산업의 가치평가의 인력의 활용보다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가치평가 인력 양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함
 - 이는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민간 가치평가 기관을 통해 콘텐츠 IP 가치평가 인프라가 확대될 수는 있지만, 가치평가 인력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특허평가가 아닌 콘텐츠 IP에 특화된 인력양성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음

〈표 4-29〉 콘텐츠 전문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

고도화 방안	필요성			평균(점)
	낮음	보통	높음	
콘텐츠 전문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	20.0%	20.0%	60.0%	3.73
세부 방향성	동의여부			평균(점)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기술평가, 특허평가, 감정평가 등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0%	20.0%	60.0%	3.53
기술평가, 특허평가, 감정평가 등의 타 분야 가치평가 인력을 중심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0%	33.3%	46.7%	3.47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별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	20.0%	13.3%	66.7%	3.87
제작이 완료되고 권리화·사업화된 IP를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 모형이 고도화 될 필요가 있다.	6.7%	20.0%	73.3%	4.13

2) 콘텐츠 IP 유동화 관련 인프라 고도화

-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로 대부분의 전문가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콘텐츠 IP 유동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 비해 불안정한 시장의 현황을 고려할 때, 법제도 및 체계 정비 등 인프라 고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세부 방향성을 보면, ‘콘텐츠산업에 특성에 맞는 저작권 조각투자, STO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다’의 동의 비중이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콘텐츠 IP는 흥행의 불확실성과 장르별 상이한 속성으로 산업적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IP 기반의 신규 금융방식은 전문투자자 및 VC를 우선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의 동의 비중도 73.3%로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음

- 이와는 반대로 개인투자자 우선의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6.7%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33.3%보다 낮게 나타남
- 조각투자, STO 등 콘텐츠 IP 유동화 시장이 개인투자자에게 각광받고 있는 트렌드와 달리 콘텐츠 IP 거래 시장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전문투자자와 VC 우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제작 중 콘텐츠 IP에 대한 증권발행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음
 - 제작 중 콘텐츠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완성되지 않은 IP를 기초로 하는 증권 발행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시급한 주제가 아니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표 4-30〉 콘텐츠 IP 유동화 관련 인프라 고도화

고도화 방안	필요성			평균(점)
	낮음	보통	높음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인프라 고도화	-	20.0%	80.0%	3.93
세부 방향성	동의여부			평균(점)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저작권 조각투자, STO 등 IP 기반의 신규 금융방식은 전문투자자 및 VC를 우선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6.7%	20.0%	73.3%	3.80
저작권 조각투자, STO 등 IP 기반의 신규 금융방식은 개인투자자를 우선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3.3%	40.0%	26.7%	2.93
콘텐츠산업에 특성에 맞는 저작권 조각투자, STO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다.	13.3%	-	86.7%	4.07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작 중인 콘텐츠에 대한 증권발행 등 콘텐츠 IP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46.7%	20.0%	33.3%	2.93

3) 콘텐츠 IP 유동화 관련 법·제도 개선

-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7%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콘텐츠 IP 유동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 비해 불안정한 시장의 현황을 고려할 때, 법제도 및 체계 정비 등 인프라 고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전문가들은 모든 세부 방향성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보였는데,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과도한 가격 변동, 권리관계의 불투명성 등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3.3%임
 - 금융시장에서 가격 변동은 투자자의 책임이 일차적이지만, 권리 관계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투자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음
 - 다만, 과도한 제도적 장치와 규제는 시장의 초기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저작권법,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 기존 법제도의 적극적 개정에 대한 의견도 높은 비중으로 조사되었는데, 현재의 콘텐츠 IP금융 시장과 법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법 등 콘텐츠 관련 법과 민법, 자본시장법 등의 금융 관련 법의 충돌 지점이 콘텐츠 IP금융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등기, 주식 권리명부와 같이 일반 대중들이 콘텐츠 IP를 소유하고 그 권리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증권사 등 기존 신탁업체가 콘텐츠 전문 저작권관리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73.3%로 다수의 전문가가 콘텐츠 전문 저작권관리단체를 활용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표 4-31〉 콘텐츠 IP 유동화 관련 법·제도 개선

고도화 방안	필요성			평균(점)
	낮음	보통	높음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을 위한 법·제도 개선	-	13.3	86.7	4.20
세부 방향성	동의여부			평균(점)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 등의 적극적인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	20.0	80.0	4.00
콘텐츠 IP의 증권형토큰발행(STO)을 제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을 적극적인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	26.7	73.3	4.00
증권사 등 기존 신탁업체가 콘텐츠 전문 저작권관 리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26.7	73.3	3.87
과도한 가격 변동, 권리관계의 불투명성 등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	6.7	93.3	4.13

4) 콘텐츠 IP 기반 정책금융 확대

- 콘텐츠 IP 기반의 정책금융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6.7%로 비교적 다수의 전문가들이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 콘텐츠 IP금융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다양한 유동화 정책이 수립된다면 자금 회수 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이 탄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회수지원펀드를 제외한 모든 정책금융 수단의 확대에 긍정적 태도를 보임
 - 기 운영 중인 IP금융(IP펀드, IP보증) 규모 확대 73.3%, 콘텐츠 IP 유동화증권 도입 60.0%, 콘텐츠 IP담보대출 도입 53.3%, 로열티 매출채권 보험 도입 53.3%, IP 세컨더리펀드 도입 53.3% 등 동의여부는 대부분 높게 나타남

- IP 기반 정책금융의 확대가 민간분야에서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자칫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음
 - IP회수지원펀드를 비롯한 정책금융의 확대는 정책자금으로 민간 금융시장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음
 - 콘텐츠 IP금융 시장은 고위험의 성격을 지닌 영역으로 정책자금의 과도한 투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었음

〈표 4-32〉 콘텐츠 IP 기반 정책금융 확대

고도화 방안	필요성			평균(점)
	낮음	보통	높음	
IP 기반의 정책금융의 확대	6.7	26.7	66.7	3.93
세부 방향성	동의여부			평균(점)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기 운영중인 IP펀드, IP보증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6.7	20.0	73.3	3.87
콘텐츠 IP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IP 담보대출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6.7	40.0	53.3	3.73
콘텐츠 IP의 현금흐름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로열티 매출채권 보증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13.3	33.3	53.3	3.60
투자한 콘텐츠 IP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지원펀드를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40.0	26.7	33.3	3.13
조각투자 등을 통해 거래된 IP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를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13.3	33.3	53.3	3.67
콘텐츠 IP 유동화증권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6.7	33.3	60.0	3.73

제3절 조사결과 종합

1. 콘텐츠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의 기대효과 확인

- 조사결과, 콘텐츠 IP 유동화가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증가시키고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콘텐츠산업 업계의 인식을 확인함
 -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93.3%가 IP 유동화를 통해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콘텐츠기업의 62%가 긍정적 의견을 제시함
 - 특히, 콘텐츠기업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애로사항으로 ‘콘텐츠 IP를 활용한 금융상품 부족’과 ‘대출액 등 재무제표 중심의 심사’ 등을 꼽았는데 콘텐츠 IP를 활용한 자금조달의 확장성을 유추해볼 수 있음
 - IP 유동화가 확대되면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처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93.3%가 동의하였으며, 콘텐츠기업도 신규 투자자 모집의 용이성 등을 주요 이유로 꼽음
- 다만, IP 유동화가 콘텐츠기업의 즉각적인 자금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콘텐츠기업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음
 - 콘텐츠 IP를 활용하면 자금조달이 용이할 것이라고 응답한 콘텐츠기업의 주요한 이유로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를 꼽음
 - IP 유동화를 통해 필요시 빠른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전문가는 46.7%였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20%로 나타남
 - 투자자, 금융권 등의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기대하는 유동화를 통한 빠른 자금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면 인프라 고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2. IP 유동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IP 유동화와 관련된 법제도 미비로 현재의 콘텐츠 IP 유동화 시장 형성이 지체되고 있으며, 시장 수요를 고려할 때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함
 - 전문가들은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였으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7%로 매우 높게 나타남
 - 특히, 저작권법,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 기존 법제도의 적극적 개정에 대한 의견도 높은 비중으로 조사되었는데, 현재의 콘텐츠 IP금융 시장과 법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콘텐츠 IP 거래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꼽는 콘텐츠기업의 비율도 높게 조사되어 법제도의 정비가 콘텐츠 IP 유동화 시장 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을 확인함
- 전문가들은 콘텐츠 IP 유동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 비해 불안정한 시장의 현황을 고려할 때,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 확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IP 기반의 신규 금융방식은 전문투자자 및 VC를 우선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의 동의 비중은 73.3%인 반면, ‘저작권 조각투자, STO 등 IP 기반의 신규 금융방식은 개인투자자를 우선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의 동의 비중은 26.7%에 불과함
 - 콘텐츠 IP 유동화 시장이 개인투자자에게 각광받고 있지만 높은 변동성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확립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 IP 유동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의 방안으로서 합리적인 콘텐츠 IP 가치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타남
 - IP를 활용한 자금조달에 부정적 의견인 콘텐츠기업들은 그 이유로 ‘콘텐츠 IP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를 두 번째로 높게 선택하였으며,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콘텐츠 IP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제도의 도입’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전문가들은 합리적 가치평가의 부족을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꼽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가치평가 기관의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주장함

3. 장르에 따라 상이한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

- 콘텐츠기업 및 전문가들은 대체로 음악과 만화/웹툰 장르에서는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지만, 영상 장르에서는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음
 - 콘텐츠기업 조사 결과, 만화/웹툰(66.7%), 음악(80%) 장르 기업이 적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영상콘텐츠기업의 경우, 부정적 의견이 54.4%로 더욱 높게 나타남
 - 전문가 조사 결과, 음악(86.7%)과 만화/웹툰(80.0%)의 적용 가능성은 높았지만, 영상(46.7%)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은 IP 권리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확인함
 - 콘텐츠기업 조사 결과, IP 유동화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 이유로 'IP 권리관계의 복잡성으로 실질적인 거래가 용이하지 않아서'를 1순위로 선택함
 - 이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응답자의 60%는 저작권 등 콘텐츠 IP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함
 - 특히, 영상 콘텐츠의 경우, 출연진 등의 초상권 등 권리 다발로서의 저작권의 복잡성으로 인해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장르별 IP 유동화 적용 가능성을 상이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저작권의 현금흐름 창출 구조가 다르다는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ABS 발행과 조각투자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음악 시장은 IP인 음원이 발매 직후뿐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도 2차 시장을 통해 저작권료를 창출한다는 특징이 있음
 - 반면, 구독료 중심의 OTT플랫폼의 구조가 점차 확립되어가고 있는 영상 시장에서는 2차 시장을 통한 저작권의 지속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음

4. IP 정책금융 확대의 필요성 확인

- 정책금융 차원에서 IP 유동화 도입과 확대에 대한 콘텐츠 업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콘텐츠 IP를 활용한 자금조달 활성화 위한 우선해결 과제’에 대한 콘텐츠기업 응답의 1~3순위를 합하였을 때, 62%의 기업이 IP 정책금융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 전문가들 역시 응답자의 66.7%가 콘텐츠 IP 기반의 정책금융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아직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콘텐츠 IP금융 상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음
- 전문가들은 기 운영중인 IP펀드, IP 보증을 확대하는 동시에 IP 담보대출, IP 유동화증권, IP 세컨더리펀드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만, IP 정책금융의 확대는 민간 자본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정책자금의 과도한 투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함
 - IP회수지원펀드 등 기존의 정책금융 제도보다 적극적으로 민간 자본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0%로 동의한다 33.3%보다 높음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 연구 : IP 유동화를 중심으로

제5장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

1. 전문투자자 중심 단계적 시장 형성

- 조각투자, 토큰증권 등 콘텐츠 IP 유동화 시장은 일반적 시장에서 거래가 힘든 자산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콘텐츠 IP 거래 시장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한계점도 명확함
- 본 연구는 콘텐츠 IP금융 고도화를 위해 전문투자자 중심의 IP 유동화 시장을 일차적으로 형성하고, 이후 개인투자자 시장을 이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적 시장 형성 방안을 제안함
 - 전문가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3%는 전문투자자 및 VC 우선의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지만, 개인투자자 우선의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6.7%에 그친 것처럼, 업계 전문가들은 안정성을 위해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토큰증권발행을 제도화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토큰증권시장이 발달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발행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를 기관투자자 및 적격투자자로 제한하였으며, 개인 투자자는 자산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등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 사모펀드 중심으로 투자자가 구성되어짐
 - 싱가포르의 정책은 토큰증권 등 새로운 방식의 IP 유동화가 기존 금융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동시에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 및 금융시스템 보호 차원에서 규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됨
- 전문투자자 중심의 IP 유동화 시장은 IP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
 - 콘텐츠기업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콘텐츠 IP 관련 정책금융의 확대는 시장이 명확하게 조성되지 않았으며, 인프라가 부족한 현재의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임을 확인함
 - 특히, 정책금융을 통한 콘텐츠 IP 유동화증권과 IP 세컨더리펀드 등 신규 정책의 도입은 벤처자본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으며, 콘텐츠기업은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또한, 미국과 싱가포르의 규제 면제와 같이 시장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정책 금융 환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IP 정책금융이 마중물이 되어 시장이 형성된다면, 싱가포르 모델과 같이 IP 유통화 시장에서 사모펀드 및 해외자본을 유인할 가능성도 있음
 - 다만, IP 정책금융이 민간 자본의 투자 손실을 보전을 위한 양적 확대보다는 시장 형성을 위한 질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할 필요가 있음
- 한편으로는, 콘텐츠 IP는 권리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장르별로 IP 유통화 적용 가능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IP 매출 구조와 현금흐름 데이터가 축적된 장르 중심으로 IP 정책금융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ABS 발행과 조각투자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음악(음원 저작권) 장르 중심의 논의를 진행하되, 장기적으로는 웹툰, 게임, 영상 등의 장르에도 IP 유통화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조각투자 및 토큰증권발행 가이드라인 개발의 검토가 필요함

2. 콘텐츠 IP 가치평가 인프라 고도화

- 본 연구를 통해 콘텐츠기업과 전문가 모두 IP 유동화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현재의 구조에서는 금융권과 콘텐츠기업 모두 콘텐츠 IP에 대한 합리적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 콘텐츠 IP에 대해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평가를 위한 시장 데이터가 부족하며, 금융권 내 콘텐츠 가치평가 사례 공유도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꼽힘
 - 전문성이 낮은 평가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수 가치평가사에 의한 가치평가 독점은 시장을 축소시키는 부작용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정평가, 기술평가와 같이 콘텐츠 IP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치평가 모형 및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제작 프로젝트보다는 IP의 현금흐름 평가 중심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임
-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사업자의 신탁 수익증권 대상자산의 기본 요건으로 객관적 가치평가의 가능성을 설정한 만큼 콘텐츠 IP 유동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IP 가치평가 인프라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콘텐츠 IP 가치평가 인프라의 고도화는 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 평가기관 확대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음

가. 콘텐츠 IP 가치평가 전문 인력 양성

- 콘텐츠산업은 장르적 특수성 및 다양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구조로 산업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의 가치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콘텐츠산업 특화 가치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해야 함
 -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와 IP금융 확대에 가치평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를 제외하고는 국내 콘텐츠 전문 가치평가 기관이 없기 때문에, 주로 특허 등 타 분야 인력이 콘텐츠 IP 가치

평가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콘텐츠 전문 인력에게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콘텐츠 IP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기술평가, 특허평가, 감정평가 등의 타 분야 가치평가 인력을 재교육하기 보다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가치평가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산업 이해도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5-1〉 콘텐츠 IP 유동화를 위한 가치평가 사례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 〈호박〉 발행 사례

열매컴퍼니는 공모의 기초자산인 '호박'의 취득가와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적인 가격 산정시스템을 통해 국내외거래 43건을 분석했다.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협회로부터 감정평가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평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

- 콘텐츠 IP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범위와 성격을 규정짓는 법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함
 - 콘텐츠 가치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2022 콘텐츠가치평가 전문 인력 양성방안 연구〉와 〈2023 콘텐츠가치평가 국가자격도입 시행방안 연구〉가 최근 진행되었을 정도로 콘텐츠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양성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격제도를 운영할 만큼 인력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사의 업무를 컨설팅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안함
 - 다만, 콘텐츠 조각투자 등 콘텐츠 IP 가치평가 자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콘텐츠 IP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투자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사례처럼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콘텐츠 IP 가치평가 전문 인력의 범위를 개념화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함

나. 콘텐츠 IP 가치평가 전문 기관 지정 및 평가 데이터 확보

- 콘텐츠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정부 지정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을 콘텐츠 IP 평가 전문 기관으로 지정하여 콘텐츠기업의 IP 가치평가 수요를 연결할 수 있음
 - 콘텐츠 가치평가는 공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특허나 기술 IP와 같이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들이 이미 민간시장에 형성¹⁴⁾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여 콘텐츠 가치평가 시장 확대가 가능함
 - 정부 지정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 중 일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콘텐츠 가치평가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음
 - 문체부 등 소관부처 차원에서 콘텐츠 가치평가 전문 인력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IP 가치평가 수요와 연결시킨다면, 콘텐츠 IP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를 위한 민간 평가기관의 참여를 유인시킬 수 있을 것임
- 표준화된 콘텐츠 IP 가치평가 모형에 대한 업계의 요구도 높는데,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기보다는 콘텐츠 IP 가치평가 데이터, IP(저작권) 창출에 따른 현금흐름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유사 사례를 축적하는 방향이 요구되어짐
 - IP와 같은 무형자산의 수익을 추정하는 가치평가 방법론은 학문적·실무적으로 검증된 여러 모형이 제시되고 있으며, 산업 특성과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평가 모형 개발의 효과성은 다소 부족함
 - 결국, 콘텐츠 IP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치평가 모형은 새로운 가치평가 모형의 개발보다는 가치평가의 근거자료가 되는 시장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음악 등 일부 장르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발전으로 저작물 이용 데이터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관련 신탁관리단체를 활용해 가치평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책적으로 마련된다면 IP 가치평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IP 가치평가 활용을 위한 데이터 실태조사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자료화하여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14) 공공 8개, 민간 25개 등 총 33개 기관이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으로 지정(2023년 12월 기준)

3. 저작권 등록 체계 개선

-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특별한 절차나 형식을 거치지 않아도 인정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 국내의 저작권법은 저작이라는 사실(행위)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며 특별한 절차를 밟거나 형식을 요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저작권 등록은 권리발행의 요건이 아님
 - 그러나 일정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여 공중에 대한 공시효과를 부여하고 일부 등록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이라는 효력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함(최승재, 2022)
- 저작권 자체가 무방식주의이긴 하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부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구조임

〈표 5-2〉 저작권법 제55조 중 일부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저작권 등록 자체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반면, IP 유동화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유동화자산을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등록 제도의 개편이 필요함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자산유동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등록신청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음
 - 부동산과 같이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하고 등기부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유동화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별도로 유동화자산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의 저작권법이 저작권의 유동화보다는 개별적인 저작권의 양도, 담보설정, 이용허락 등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IP로서 저작권의 유동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제도의 개편이 요구되어짐
- 자산으로서 금융 거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식 권리명부나 등기와 같이 그 권리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따라서 저작권 등록 체계를 금융위원회의 유동화자산 등록 절차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앞선 콘텐츠기업과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 저작권법과 금융 관련 법의 충돌 지점이 콘텐츠 IP금융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콘텐츠 IP를 안정적인 기초자산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등록업무 위탁기관인 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작권 유동화를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등 저작권 등록 개편을 추진하되, 자산유동화 등록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등록 처리 절차와 연계하여 금융제도권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음
 - 저작권 유동화와 관련된 일부 연구에서는 저작권의 개별 등록 관점이 아닌 대규모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과정에서 절차와 비용 등에 있어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4. 콘텐츠 IP 전문 신탁관리단체 역할 강화

- 콘텐츠 IP의 유동화는 신탁 수익증권 등 신탁금융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IP 자산을 특수목적기구나 신탁전문기업에 신탁한 이후, 전문기업(기구)이 IP를 토대로 유동화하는 구조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자산유동화로 정의함
- 콘텐츠 IP의 신탁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자와 저작권법에 의한 신탁관리업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신탁업자는 자본금 120억 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증권사, 은행, 보험사 같은 대형 금융기관이 포함됨(나수미, 2021)
 - 신탁관리업자는 IP 신탁 및 유동화 관련 업무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비금융기관이라 유동화증권을 거의 발행하지 않음
 -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11개 단체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허가를 받음

〈표 5-3〉 국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신탁관리업)

구분	취급권리
(재)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의 권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상제작자의 권리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악실연자의 권리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음악 저작자의 권리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방송실연자의 권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문학예술저작자의 권리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자의 권리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 제작자의 권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자의 권리

- 국내의 IP 신탁은 금융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신탁업자인 금융기관이 콘텐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IP 가치에 대한 평가가 어려우며, 저작권관리단체와의 협업도 원활하지 않은 구조임
 - 은행, 증권 등 신탁업자는 금융에 비해 IP 자산에 대해 전문성이 낮다는 한계점이 있어 IP 가치평가와 금융상품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 자본법상 신탁업자가 저작권관리단체 등 전문기관에 재신탁하는 경우를 불허하고 있어, 콘텐츠 IP에 전문성을 지닌 단체 또는 기업과의 협업이 어려운 상황임
- 다만, 정부는 2022년 「신탁업 혁신 방안」 발표를 통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화된 신탁서비스 제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본법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은행, 증권 등 신탁업자와 저작권관리단체의 연결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조사결과, ‘증권사 등 기존 신탁업체가 콘텐츠 전문 저작권관리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73.3%로 다수의 전문가가 콘텐츠 전문 저작권관리단체를 활용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실제로 콘텐츠 IP를 활용해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발행을 추진한 증권사(신탁업자) 관계자들은 해당 IP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체 방법론 및 효과적인 저작권 관리 방안을 부재로 매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관리단체와의 협업을 시도하였음
 - 동일 장르라도 저작권 주체에 따라 저작권관리단체가 상이하고, 협업의 선례가 부족하여 신탁업자들은 콘텐츠 IP 유동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탁업자와 저작권관리단체의 연결 지원을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연계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저작권관리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관리·감독 강화도 함께 필요함
 - 저작권 등 콘텐츠 IP는 금융의 기초 자산이기 때문에 저작권관리단체에 의한 저작권 사용 요율 변경 등 현금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성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참고문헌

논문·단행본·보고서

- 금융위원회(2022), 「신탁업 혁신방안」.
- 금융위원회·특허청(2018),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 김규찬·이상규·김성준·양지훈·김창욱·최순욱·이성민(2021), 「콘텐츠 지식재산(IP)과 가치사슬 변화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갑래(2021), 「미국의 증권토큰발행(STO)에 관한 고찰」, 자본시장연구원.
- 나수미(2021), 「기술기반 벤처기업을 위한 IP금융 고도화 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법무법인 세종(2023), 「독일 전자증권법 제정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채권 발행의 시사점」.
- 삼일PwC경영연구원(2024), 「조각투자의 이해 및 STO(토큰증권발행)시장 전망」.
- 양지훈·박찬욱·김성준·홍무궁·설원식·이준호·이태호(2022), 「벤처투자모태조합 문화계정 벤처펀드 성과분석 및 투자수요조사」, 한국벤처투자.
- 이경자·정민기·홍진현(2024), 「대체투자-STO ②: 새로운 금융, 토큰증권」, 삼성증권.
- 이지연(2021),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이지영(2017), 「IP 유동화 평가방법론」, 서울신용평가.
- 이현진(2017), 「콘텐츠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현진, 이성민(2016), 「콘텐츠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천창민(2015), 「창조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 최승재(2022), 「저작권 증권화와 저작권법 금융의 쟁점」, 경영법률, 32(4), 253-297.
- 최승재·권재열·고철웅(2022), 「저작권 유동화 정책 도입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 최종일·정현일·이영수(2006), 「문화콘텐츠산업 자금조달 시스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벤처투자(2024), 「모태펀드(문화, 영화, 해양) 2024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2024a),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 _____(2024b), 「2023년 콘텐츠기업 금융환경조사」.
- _____(2024c), 「콘텐츠 금융제도 브로슈어」.
- 홍무궁·박찬욱·진현정·이정훈(2023), 「콘텐츠산업 프로젝트 투자 지원 강화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IFPI, 「Global Music Report 2024」.
- KBRA(2022), Hipgnosis Music Assets 2022-1 L.P. Pre-sale Report.
- Ocean Tomo(2020),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Study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2022.4.20.),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보도자료).
- _____(2022.4.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보도자료).
- _____(2022.11.29.), 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 _____(2023.2.6.),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보도자료).
- _____(2023.12.14.),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보도자료).
- _____(2023.12.27.), '24.1.12일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보도자료).
- 특허청(2024.3.25.), 지식재산(IP) 금융 10조원 눈앞! 혁신기업 자금조달 '청신호'(보도자료).

신문기사 등

- 김성수(2023.11.8.), K-콘텐츠 해외투자 유치 기회 넓힌다" 펀더풀 'IX SWAP'과 맞손, 이데일리,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newsId=03011046635803752>
- 박상희(2023.12.4.), 바른손 토큰증권(STO) 거래 시장 개화...영화 STO 글로벌 상장 추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DPWSG1G>
- 봉채영(2023.6.29.), 콘진원, 카카오-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한국,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980>

- 정다운(2024.7.9.), 뮤직카우, 美 진출 속도…ST 기반 서비스 베타버전 하반기 론칭,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40709000049>
- Aswad, J.(2021.10.19), Kobalt Sells Fund II, With Songs by the Weeknd, Lorde and More, to KKR Venture for \$1.1 Billion, Variety, <https://variety.com/2021/music/news/kobalt-sells-fund-ii-with-songs-by-the-weeknd-lorde-and-more-to-krk-venture-for-1-1-billion-1235092441/>
- Cooperman, C.(2022.1.19), Massarsky Consulting, which valued music assets worth over \$6.5 billion last year, has been acquired, MBW(Music Business World),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massarsky-consulting-which-valued-music-assets-worth-over-6-5-billion-last-year-has-been-acquired-by-citrin-cooperman1/>
- DLP Piper(2016.3.2), The man who sold the world - bowie, bonds and IP securitisation, Lexology,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8340ac3-05fc-4e65-8f26-d04c0eff0e26>
- Donna M.Mitchell.(2022.2.7), Hi-Fi Music IP Issuer, 2022-1, plans to release \$732.5 million in ABS, Asset Securitization Report, <https://asreport.americanbanker.com/news/hi-fi-music-ip-issuer-2022-1-plans-to-release-732-5-million-in-abs>
- Leong, R.(2022.2.8), Chord ABS hits right tone with investo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view, <https://www.ifre.com/story/3240481/chord-abs-hits-right-tone-with-investors-tdjqknw6yl>
- Pathe, T.(2022.12.4.), 360X Music Launches Tokenised Music Royalties, The Fintech Times, <https://thefintechtimes.com/360x-music-launches-tokenised-music-royalties/>
- Tempkin, A.(2011.11.5.), Miramax revives movie-backed securitization,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markets-credit/miramax-revives-movie-backed-securitization-idUSTRE7A35X220111104/>

법령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일부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5호, 2024. 2. 13., 일부개정]
- 저작권법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9825호, 2023. 10. 31., 타법개정]
-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제18873호, 2022. 6. 10., 일부개정]

기타

- INX웹사이트 <https://one.inx.co/invest/advent?ref=cryptocurrencyjobs.co>
- IP 금융관리시스템 <https://iphub.or.kr/ipfis/inform/intro/BusinessIntroduction/>
- JKBX 웹사이트 <https://www.jkbx.com/>
- SEIBro 웹사이트 <https://seibro.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PORTAL/user/index.xml>
- SongVest 웹사이트 <https://www.songvest.com/>

ABSTRACT

Advanced Strategies for Content IP Finance : Focusing on IP Securitization

Moogoong Hong, Hayoung Oh, Hyunjin Lee

As intangible asse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IP), gain greater recognition over traditional tangible assets like labor and capital as key factors in determining national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the significance of IP finance has increased, leading to a rapid expansion of its scale. With the traditional value chain structure of the content industry shifting towards an IP-centric model,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source IP has become directly linked to the performance of content companies. For domestic content companies, many of which are small in scale, securing financing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ir IP is essential for commercialization.

Although content companies that face difficulties in raising funds through conventional financial means may find content IP finance to be a viable alternative, there are limitations in terms of the available policy tools and scope.

In this study, we propose a policy framework centered on IP securitization to enhance content IP finance. To develop these policy measures, we examined the concept and case studies of IP securitization, conducted interviews and surveys with content IP finance experts and content companies, and based on the findings, presented various policy recommendations for advancing content IP securitization.

Keywords

IP Finance, IP Securitization, Contents Investment, Fractional Investment, Security Token Offerings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 연구 : IP 유동화를 중심으로

부록

콘텐츠기업 및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콘텐츠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콘텐츠기업 설문조사

본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며, 콘텐츠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도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내용은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운영 방향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간 : 2024년 7월 22일 ~ 8월 2일

A 기업 및 응답자 정보

A1. 응답자 및 기업 정보

응답자 직위	① 대표자급 ② 임원급 ③ 경영실무자급 ④ 기타()
대표 장르	①만화/웹툰 ②음악 ③영화 ④게임 ⑤애니메이션 ⑥방송 ⑦기타()
설립연도	□□□□년
상시 근로자수 (대표, 임원 포함)	① 5인 미만 ② 5~50인 미만 ③ 50~100인 미만
	④ 100~300인 미만 ⑤ 300인 이상
연 평균 매출액(최근 1년)	① 10억 원 미만 ② 10억 원 이상
IP* 보유건수	① 없음 ② 1~5건 미만 ③ 5~10건 미만
	④ 10~30건 미만 ⑤ 30~50건 미만 ⑥ 50건 이상

* IP : 권리화·사업화된 지적재산권(저작권, 상표권 등)

B 자금조달 현황 및 인식

B1-1. 지난 3년간(2021.7~2024.7) 귀사는 투자를 받으신 적(투자금 입금 시점 기준)이 있습니까?

- ① 투자유치에 성공
☐ B1-2로 이동
- ② 투자유치를 시도했으나 실패
☐ B1-3으로 이동
- ③ 투자유치 시도 없음
☐ B2로 이동

B1-2. ‘투자유치에 성공’이라고 응답한 경우, 투자자의 주체와 투자 유형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투자자 유형	투자 여부	투자 유형(복수 응답)	
1) 벤처캐피탈(VC)	<input type="checkbox"/>	① 지분 투자	② 프로젝트 투자
2) 스타트업투자자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등)	<input type="checkbox"/>	① 지분 투자	② 프로젝트 투자
3) 정부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input type="checkbox"/>	① 지분 투자	② 프로젝트 투자
4) 금융회사, 은행	<input type="checkbox"/>	① 지분 투자	② 프로젝트 투자
5) 금융, 투자업종 외 기업	<input type="checkbox"/>	① 지분 투자	② 프로젝트 투자
6) 개인투자자	<input type="checkbox"/>	① 지분 투자	② 프로젝트 투자
7) 크라우드펀딩 등 플랫폼	<input type="checkbox"/>	① 지분 투자	② 프로젝트 투자
8) 기타()	<input type="checkbox"/>	① 지분 투자	② 프로젝트 투자

B1-3. ‘투자유치를 시도했으나 실패’라고 응답한 경우, 시도한 투자자의 주체와 투자 유형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벤처캐피탈(VC)
- ② 스타트업투자자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등)
- ③ 정부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 ④ 금융회사, 은행
- ⑤ 금융, 투자업종 외 기업
- ⑥ 개인투자자
- ⑦ 크라우드펀딩 등 플랫폼
- ⑧ 기타()

B2.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최대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 () 2순위 : ()

- ① 투자사 정보가 없어서 접촉하기 어려움
- ② 투자자가 요구하는 투자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 ③ 추진 프로젝트 및 보유 IP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의 어려움
- ④ 투자 유치까지의 복잡한 절차차와 기간
- ⑤ 투자자 설득을 위한 자료작성(IR자료, 재무현황 등) 어려움
- ⑥ 투자자의 경영활동 간섭
- ⑦ 기타()

B3-1. 지난 3년간(2021.7~2024.7) 귀사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적이 있습니까?

외부차입금 : 기업이 경영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자금 가운데 금융기관 차입금, 회사채, 사채 등과 같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말함. 단, 투자, 주식발행, 지원사업금에 의한 자금조달은 제외

- ① 외부 자금조달에 성공 ② 외부 자금조달을 시도했으나 실패 ③ 외부 자금조달 시도 없음
- ☐ B3-2-1로 이동 ☐ B3-3으로 이동 ☐ B4로 이동

B3-2-1. '외부 자금조달에 성공'이라고 응답한 경우, 자금조달의 유형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담보대출 ② 신용대출 ③ 보증대출 (신보, 기보, 지역보증
재단 등의 보증서에 의한 대출)
- ④ 인보증대출 ⑤ 기타(기타 금융기관 또는 개인
간 거래 등)

B3-2-2. 이 중 보유 IP를 기반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성공한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복수응답)

- ① IP 담보대출 ② IP 보증 ③ IP 기반 채권
- ④ IP 유동화증권 ⑤ 기타() ⑥ 없음

B3-3-1. ‘외부 자금조달을 시도했으나 실패’라고 응답한 경우, 자금조달을 시도한 유형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 ① 담보대출 | ② 신용대출 | ③ 보증대출 (신보, 기보, 지역보증
재단 등의 보증서에 의한 대출) |
| ④ 인보증대출 | ⑤ 기타(기타 금융기관 또는 개인
간 거래 등) | |

B3-3-2. 이 중 보유 IP를 기반으로 자금조달에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시도한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복수응답)

- | | | |
|------------|----------------------------|------------|
| ① IP 담보대출 | ② IP 보증 | ③ IP 기반 채권 |
| ④ IP 유동화증권 | ⑤ 기타() | ⑥ 없음 |

B4.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최대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 () 2순위 : ()

- ① 과도한 담보나 보증 요구
- ② 콘텐츠 IP를 활용한 금융상품 부족(콘텐츠 IP 담보 설정 등)
- ③ 까다로운 대출 심사
- ④ 인보증(당사자 또는 제2자 자연인의 보증) 요구
- ⑤ 높은 대출 금리
- ⑥ 매출액 등 재무제표 중심의 심사
- ⑦ 금융기관의 콘텐츠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
- ⑧ 기타()

1순위 : () 2순위 : ()

- 부록 135

IP 활용 자금조달

다음은 콘텐츠 IP를 활용한 자금조달에 대한 사례입니다.

〈뮤직카우 사례〉

- 뮤직카우는 아티스트로부터 저작자로부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양도받은 뒤 이를 플랫폼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최근에는 1,000여곡 이상의 음악 IP를 증권형태로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함
- 이를 통해 저작권자는 보유 IP를 현금화할 수 있음

(IP의 범위) 연재된 웹툰/웹소설, 공개된 영화 및 드라마 등 이미 권리화 사업화가 이루어져 리메이크나 타 장르 콘텐츠로 제작이 가능하고 2차 사업화(굿즈 제작 등)로 확장이 가능한 IP

C1-1. 위의 사례와 같이 콘텐츠 IP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조각투자, IP 증권화 등)이 확대된다면 콘텐츠산업 내 자금조달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①,② 응답시 C1-3으로 이동, ③,④ 응답시 C1-2로 이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C1-2. 그렇다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최대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 () 2순위 : ()

- ① 신규 투자자를 손쉽게 모집할 수 있어서
- ②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어서
- ③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 ④ 보유 IP를 유통화하여 즉각적인 자금수급에 도움이 되어서
- ⑤ 대중적인 홍보효과를 통해 후속 투자유치 또는 지속적 자금조달을 기대할 수 있어서
- ⑥ 기타 ()

C1-3.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최대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 () 2순위 : ()

- ① 콘텐츠 IP 권리관계(초상권 등)의 복잡성으로 실질적인 거래가 용이하지 않아서
- ② 콘텐츠 IP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 ③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 ④ IP 권리를 분할하여 거래하지 않는 산업 구조로 인해서
- ⑤ 자금조달 비용이 높고 효율적이지 않아서
- ⑥ 기존 투자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서
- ⑦ 기타 ()

C1-4. 귀사의 사업 영역(장르)에도 위 사례와 같은 콘텐츠 IP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조각 투자, IP 증권화 등)이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제작 중인 콘텐츠를 활용한 자금조달에 대한 사례입니다.

<p>〈웹툰/웹소설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한 콘텐츠업체는 제작 중인 (플랫폼과 연재계약이 완료된)웹툰/웹소설 IP를 증권화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기획 중임 - 이를 통해 웹툰/웹소설 제작사는 제작 초기 외부 자금을 조달받는 대신, 증권을 통해 콘텐츠 IP의 권리 지분을 다수에게 분할함 - 콘텐츠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투자자들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음 - 권리화 사업화가 이루어진 IP가 아닌 제작 중인 콘텐츠 IP를 증권화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조각투자자와 차이가 있음 <p>(제작 중 콘텐츠 IP의 범위) 콘텐츠에 대한 가치평가가 가능한 제작 중인 콘텐츠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가 있으며, 제작진 및 출연진 섭외가 완료된 영상 콘텐츠 - 기획된 컨셉이 있고 개발 진행 중인 게임 콘텐츠 - 선판매를 위한 초판 연재 분량이 있는 웹툰/웹소설, 연재 중인 웹툰/웹소설 - 기획된 컨셉이 있고, 제작 진행 중인 음악 앨범

C2-1. 위의 사례와 같이 제작 중인 콘텐츠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조각투자, IP 증권화 등)이 확대된다면 콘텐츠산업 내 자금조달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①,② 응답시 C2-3으로 이동, ③,④ 응답시 C2-2로 이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C2-2.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최대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 () 2순위 : ()

- ① 신규 투자자를 손쉽게 모집할 수 있어서
- ②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어서
- ③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 ④ 제작 중인 콘텐츠를 담보로 유동화하여 즉각적인 자금수급에 도움이 되어서
- ⑤ 대중적인 홍보효과를 통해 후속 투자유치 또는 지속적 자금조달을 기대할 수 있어서
- ⑥ 기타 ()

C2-3.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최대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 () 2순위 : ()

- ① IP 권리관계의 복잡성으로 실질적인 거래가 용이하지 않아서
- ② 제작 중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 ③ 기업이 필요한 수준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 ④ IP 권리를 분할하여 거래하지 않는 산업 구조로 인해서
- ⑤ 자금조달 비용이 높고 효율적이지 않아서
- ⑥ 기존 투자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선호하지 않아서
- ⑦ 기타 ()

C2-4. 귀사의 사업 영역(장르)에도 위 사례와 같이 제작 중인 콘텐츠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조각투자, IP 증권화 등)이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C3. 콘텐츠 IP를 활용한 자금조달(투자, 대출, 증권 및 채권발행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최대 3순위까지 응답)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콘텐츠 IP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제도의 도입
- ② 콘텐츠 IP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활성화
- ③ 콘텐츠 IP 거래를 위한 법제도(저작권법, 증권법 등)의 정비
- ④ 콘텐츠 IP 신탁업체 지정 및 정부의 관리 감독
- ⑤ 콘텐츠 IP 정책금융 규모 확대(IP 펀드, IP 보증 등)
- ⑥ 콘텐츠 IP 정책금융 신규 제도 도입
- ⑦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정책적 홍보 및 교육 강화
- ⑧ 기타()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본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며, 콘텐츠 IP를 활용해 도입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안 도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내용은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운영 방향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간 : 2024년 7월 22일 ~ 8월 2일

A 주요 용어 및 사례

다음은 본 조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충분히 숙지 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장르 확장과 부가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지식재산권 묶음으로 저작권과 상표권을 포함 - 연재된 웹툰/웹소설, 공개된 영화 및 드라마 등 이미 권리화사업화가 이루어져 리메이크나 타 장르 콘텐츠로 제작이 가능하고 2차 사업화(굿즈 제작 등)로 확장이 가능한 형태
조각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공동으로 투자해 조각처럼 쪼개 소유하고 거래하는 방식 - 음악(뮤직카우, 핀고컴퍼니 등) 및 미술(열매컴퍼니, 테사 등) 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JT[음악 조각투자 플랫폼] <--> ③, ⑦ T[투자자] T <--> ④ T JT <--> ②, ⑤ SPC[음악 저작권 취득 목적 SPC] SPC <--> ① C[저작권자] C <--> ⑥ SPC SPC <--> 저작권 신탁계약 SM[저작권 신탁관리업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SPC <--> 저작권료 정산 M[음원출판사 - 해외 로열티 정산 음원유통사 - 인접권료 정산] SPC <--> 저작권료 관리계약 M </pre> <p>① 저작권 양도, ② 저작권료 참여권 부여 (저작권료 지급), ③ RPR(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경매, ④/⑤/⑥ 대금 지급, ⑦ 저작권료 지급</p> <p><거래구조 예시></p> </div>

STO (토큰증권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투자의 발행형태인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 통상 암호화폐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그림, 고급시계, 명품, 주식, 채권, 부동산)등을 토큰화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을 의미 - 콘텐츠, 미술품 관련 플랫폼에서 증권사와 협업하여 STO를 추진 중
콘텐츠 IP 담보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 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IP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로열티 매출채권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사용기업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할 때 IP 보유기업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 -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하며, 현재 저작권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보험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회수지원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로 설정된 IP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보물인 IP를 매입하는 펀드 - 회수전문기관 및 펀드가 은행이 보유하게 된 부실 담보IP를 매입하여 리스크 경감
세컨더리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인수하는 전용 펀드 - 구주 거래를 통해 신규자본 및 해외자본이 유입되는 효과
저작권관리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법에 근거하고 문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탁관리업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화예술평작권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장르별 신탁관리업자가 존재
IP 유동화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IP를 집합화(pooling)하여 그 자산을 기초로 유가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하여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콘텐츠산업에서는 저작권을 유동화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며, 1997년 음악가 데이빗 보위의 저작권 수입을 담보로 한 증권화, 일명 '보위본드'가 대표사례

본 조사에서는 콘텐츠 IP 유동화에 대한 인식과 이를 활용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사하고자 합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콘텐츠 IP 유동화 사례에 대해 콘텐츠산업과 정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지 그 인식을 도출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어 조사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p>〈조각투자 사례 - 뮤직카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직카우는 아티스트로부터 저작권로부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양도받은 뒤 이를 플랫폼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환경을 조성함 - 최근에는 1,000여곡 이상의 음악 IP를 증권형태로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함 - 이를 통해 저작권자는 보유 IP를 현금화할 수 있음 		
구분	저작권료	매매손익
배당 시점	매월 (전월 분배된 저작권료가 다음달 10영업일에 배당)	판매 시
특징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저작권료 징수기관/유동회사가 징수한 저작권료를 매월 배당	구매한 음악 수익증권을 시장에서 판매 시 구매가와 판매가의 차액만큼 손익 발생 (거래 수수료 발생)
장점	하루만 보유해도 다음달에 저작권료 배당 (일할 계산, 매월 10일마다 지급·현금화 가능)	최소성은 가격 상승 요인, 공연/컴백 등 아티스트 활동에 따른 상승, 리메이크/역주행 등을 통한 잠재적인 업사이드
리스크 요인	저작권가치 하락 가능, 아티스트 평판에 따라 개별 곡의 저작권료 하락 가능, 경매에서는 고가에 낙찰 받을수록 저작권료 수익률 하락	구매한 음악 수익증권의 가격 하락으로 손실 발생 가능, 개별곡의 저작권료 하락에 의해 가격하락 가능

<p>〈콘텐츠 분야 STO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투자의 발행형태인 토큰증권(ST)을 발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업계의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과 협업 진행 중 - 다만 관련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어, 즉각적인 제도화는 어려운 상황임 		
증권사명	조각투자사	내용
미래에셋증권	열매컴퍼니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운영 기업, MOU 체결
	링거스튜디오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 '링거스튜디오'운영 기업, MOU 체결
	핀고컴퍼니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 '핀고'운영 기업, MOU 체결
	서울옥션블루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운영 기업, MOU 체결
NH투자증권	투게더아트	미술품 조각투자기업, 전략적 투자 유치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업무 MOU 체결
KB증권	바이셀 스탠다드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운영 기업, MOU 체결
	펀더풀	문화콘텐츠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MOU 체결
	서울옥션블루	미술품 조각투자사, 계좌관리 MOU 체결
하나증권	웹툰올	웹툰 기반 IP 수익권 디지털 거래 플랫폼 기업, 조각투자 업무협약 체결
키움증권	테사	미술품 조각투자 기업, 실명계좌 제공 서비스 도입 등 제휴
	뮤직카우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으로 거래되던 곡을 음악 수익증권으로 전환 발행, 뮤직카우 앱에서 키움증권 계좌개설 필요

B 콘텐츠 IP 유동화에 대한 인식

B1. 콘텐츠 IP 조각투자, STO 등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방안이 확대될 경우 콘텐츠산업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증가	①	②	③	④	⑤
2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의 절감	①	②	③	④	⑤
3	국내 콘텐츠산업 내 해외자본 유입의 증가	①	②	③	④	⑤
4	필요시 빠른 자금조달 가능	①	②	③	④	⑤
5	개인투자자 등 자금조달처 확대	①	②	③	④	⑤
6	콘텐츠기업의 투명성 확대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그 외에 기대효과가 있다면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B2. 콘텐츠 IP 조각투자, STO 등 IP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방안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금융 관련 법제도 미비와 정책적 규제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	저작권 등 콘텐츠 IP 관련 법제도 미비와 정책적 규제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3	저작권 등 콘텐츠 IP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①	②	③	④	⑤
4	IP 유동화를 도입할 수 있는 산업적 구조가 아니어서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금융수단이 더욱 효과적이어서	①	②	③	④	⑤
6	투자 등 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아서	①	②	③	④	⑤
7	콘텐츠 IP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그 외에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C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콘텐츠 IP를 활용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C1. 콘텐츠 전문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IP의 가치와 수익성을 산출할 수 있는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 확대 및 전문인력 육성 -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가치평가센터를 운영 중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가치평가 결과의 신뢰성 증가 - 콘텐츠 가치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 증가 및 콘텐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구분	방안	필요성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콘텐츠 전문 가치평가 인프라 확대	①	②	③	④	⑤
구분	세부 방향성	동의여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1	기술평가, 특허평가, 감정평가 등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기술평가, 특허평가, 감정평가 등의 타 분야 가치평가 인력을 중심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별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제작이 완료되고 권리화·사업화된 IP를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 모형이 고도화 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상세 의견 위 방안의 방향성에 관해 상세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C2. 콘텐츠 IP 유동화 관련 인프라 고도화

개념	-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설정 및 관련 인프라 고도화
기대효과	-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활성화의 기틀 마련

구분	방안	필요성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2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인프라 고도화	①	②	③	④	⑤
구분	세부 방향성	동의여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2-1	저작권 조각투자, STO 등 IP 기반의 신규 금융방식은 전문투자자 및 VC를 우선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저작권 조각투자, STO 등 IP 기반의 신규 금융방식은 개인투자자를 우선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콘텐츠산업에 특성에 맞는 저작권 조각투자, STO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작 중인 콘텐츠*에 대한 증권발행 등 콘텐츠 IP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상세 의견	위 방안의 방향성에 관해 상세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작 중 콘텐츠의 개념 : 콘텐츠에 대한 가치평가가 가능한 제작 중인 콘텐츠
(예시)

- 시나리오가 있으며, 제작진 및 출연진 섭외가 완료된 영상 콘텐츠
- 기획된 컨셉이 있고 개발 진행 중인 게임 콘텐츠
- 선판매를 위한 초반 연재 분량이 있는 웹툰/웹소설, 연재 중인 웹툰/웹소설
- 기획된 컨셉이 있고, 제작 진행 중인 음악 앨범, 미발매 곡.

C3. 콘텐츠 IP 유동화 관련 법·제도 개선

개념	- 콘텐츠 IP를 활용하는 신규 금융방안 도입을 위한 관련 법 및 제도 개정
기대효과	- 조각투자, STO 등 IP 유동화 및 자금조달 방안 제도화 - 콘텐츠기업, 은행, 증권사, 플랫폼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콘텐츠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진입

구분	방안	필요성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3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구분	세부 방향성	동의여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3-1	콘텐츠 IP 활용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 등의 적극적인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2	콘텐츠 IP의 증권형토큰발행(STO)을 제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을 적극적인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3	증권사 등 기존 신탁업체가 콘텐츠 전문 저작권관리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4	과도한 가격 변동, 권리관계의 불투명성 등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상세 의견	위 방안의 방향성에 관해 상세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제시한 법제도 개선 방안 외에 의견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C4. 콘텐츠 IP 기반 정책금융 확대

개념	- 콘텐츠 IP를 활용한 펀드, 보증 대출, 보험 등 정책금융 제도 확대
기대효과	- 정책자금 투입을 통한 선도적 시장 형성 및 거래 활성화 - 새롭게 형성된 금융시장에 대한 모험투자 촉진

구분	방안	필요성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4	IP 기반의 정책금융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구분	세부 방향성	동의여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4-1	기 운영중인 IP펀드, IP보증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콘텐츠 IP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IP 담보대출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콘텐츠 IP의 현금흐름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로열티 매출채권 보증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투자한 콘텐츠 IP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지원펀드를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5	조각투자 등을 통해 거래된 IP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를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6	콘텐츠 IP 유동화증권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상세 의견	위 방안의 방향성에 관해 상세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C5. 콘텐츠 IP 유동화(조각투자, STO, 유동화증권 등) 적용이 가능한 콘텐츠 장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르별로 적용가능성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방안	적용가능성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게임	①	②	③	④	⑤
2	만화/웹툰	①	②	③	④	⑤
3	영상(영화/방송/애니메이션)	①	②	③	④	⑤
4	음악	①	②	③	④	⑤
5	전시	①	②	③	④	⑤

C6. 콘텐츠 IP 유동화 및 IP 활용 자금조달 방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필 내역

연구 책임

홍무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 연구총괄

공동 연구

오하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제4장

이현진 김·장법률사무소 수석연구원: 제3장

연구 참여

강용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 연구 : IP 유동화를 중심으로

발행인 김 세 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4년 10월 2일

발행일 2024년 10월 2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9-11-7198-009-3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4.e2>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홍무궁·오하영·이현진(2024), 콘텐츠 IP금융 고도화 방안 연구: IP 유동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4.e2>



www.kcti.re.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9 791171 980093
ISBN 979-11-7198-009-3